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합본호 2022. 01 ~ 12.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합본호 2022. 01 ~ 12.

Contents

- | | | | |
|----|--|-----|---|
| 05 | 14호 2022. 01. - 02.
문화를 통한 부울경 메가시티 협력방안 | 77 | 17호 2022. 07. - 08.
부울경 지역 문화예술 교류 |
| 29 | 15호 2022. 03. - 04.
부울경 문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방안 | 101 | 18호 2022. 09. - 10.
부울경 공동의 문제, 바다와 기후위기 |
| 53 | 16호 2022. 05. - 06.
부울경 문화공동체와 엑스포 | 127 | 19호 2022. 11. - 12.
지역 문화예술계가 바라본 청년문제 |

Editor's Letter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가 2022년에 발간한 문화정책 이슈페이퍼는, '부울경 메가시티와 공공 문화기관', '부울경 문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방안', '부울경 문화공동체와 엑스포', '부울경 지역 문화예술 교류', '부울경 공동의 문제, 바다와 기후위기', '지역 문화예술계가 바라본 청년 문제'에 이르기까지, 부울경 지역 문화예술계가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한 해를 걸어왔습니다.

문화분권의 차원에서 부울경 지역의 공공 문화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엑스포와 같은 메가이벤트에서 문화예술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부울경 지역이 공통으로 가진 기후위기와 청년인구 감소와 같은 문제를 문화예술을 통해 극복하는 사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의 현장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는 다양한 정보와 동향을 살피는 문화정책 이슈페이퍼를 발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부울경 메가시티와 공공 문화기관

14호

2022. 01. - 02.

column 칼럼	부울경 메가시티 형성을 위한 공공 문화기관의 방향성 남송우 부경대학교 명예교수
issue 이슈 1	부울경 메가시티 시대, 지역문화재단이 나아가야 할 길 손경년 (재)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issue 이슈 2	경쟁 혹은 상생? 부울경 공공미술관의 협력방안에 대하여 이진철 울산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
issue 이슈 3	부울경 문예회관 협업을 통한 문화분권 실현 서승우 (재)영화의전당 예술경영본부장
문화+출판	시민과 지역 중심 출판문화 활성화를 위한 고민들 장현정 부산출판문화산업협회 회장, 호밀밭 출판사 대표
정책보고서 토크보기	수영구 문화도시 조성계획 문화영향평가 연구 김선애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사무국장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2022. 01. - 02.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14호 | 2022. 01. - 02.

2022년, 이번 한 해는 "문화를 통한 부울경 메가시티 협력방안"이라는 연간 주제를 통해, 각 호별로 다양한 시선을 담아보고자 합니다. 그 첫 걸음으로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14호에서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향한 칼럼, 부울경 지역 공공 문화기관의 협력 방안, 그리고 지역 출판사의 상생 방안에 대해 구성해보았습니다. 끝으로 지난 해 부산연구원과 부산문화재단이 공동연구를 수행한 문화영향평가 보고서 소개합니다.

Contents

- | | | | |
|----|---|----|---|
| 07 | column 칼럼
부울경 메가시티 형성을 위한
공공 문화기관의 방향성
남송우 부경대학교 명예교수 | 16 | issue 이슈 3
부울경 문예회관 협업을 통한
문화분권 실현
서승우 (재)영화의전당 예술경영본부장 |
| 10 | issue 이슈 1
부울경 메가시티 시대,
지역문화재단이 나아가야 할 길
손경년 (재)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 20 | 문화+출판
시민과 지역 중심
출판문화 활성화를 위한 고민들
장현정 부산출판문화산업협회 회장, 호밀밭 출판사 대표 |
| 13 | issue 이슈 2
경쟁 혹은 상생?
부울경 공공미술관의 협력방안에 대하여
이진철 울산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 | 24 | 정책보고서 톨아보기
수영구 문화도시 조성계획
문화영향평가 연구
김선애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사무국장 |
| | | 26 |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

부울경 메가시티 형성을 위한 공공 문화기관의 방향성

남 송 우

부경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의 지역이 소멸되고 있다. 수도권 중심주의가 나온 적폐의 결과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가 소위 부울경 메가시티의 구상이다. 이는 일극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다극주의의 지향이며, 온전한 지역분권을 통한 삶의 진정성과 행복을 구현하기 위한 길이다.

그런데 이의 실현을 위한 부울경 메가시티의 구성이 현재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는 모양새이다. 법적인 토대는 갖추어졌지만, 이미 관성화되어 있는 부울경 지역 각각의 자치행정을 허물고 새로운 부울경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이 그렇게 손쉬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근원을 따지고 보면, 너무 정치, 경제적인 관점으로만의 접근이 빛은 결과이기도 하다. 행정구역상 각각 나뉘어져 있던 부울경의 관행을 넘어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선 새로운 부울경 공동체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그 동안의 지역 자치를 통해 일구었던 자구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시켜나가야 한다. 이 승화의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토대로 삼아야 할 것은 단순히 정치, 경제적인 요소만이 아니다. 정치, 경제적인 가치와 지향을 추동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따로 있다. 그것이 문화력이다.

그 동안 많은 학자들이 인류문화사를 통찰하면서, 인간이 지닌 문화력이 인간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확인한 바 있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이끈 선진 민주국가의 발전의 토대는 그 나라 시민들의 문화력이었고, 경제적 발전을 이룬 경제대국의 밑바탕에도 한층 더 높은 문화적 지수가 작동하였음을 객관적이고 다층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증명하였다. 정치, 경제가 한 나라의 발전과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구성원이 내장한 문화력이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지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문화력의 어떤 부분이 공동체를 하나의 가치와 온당한 지향점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가? 그것은 문화가 지닌 공감력이다. 문화의 정의를 한 마디로 규정하기는 힘들지만, 문화란 동시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삶의 총체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는 공유하면 할수록 공감대를 확대·심화시켜나가는 매개로 작동한다. 특히 예술문화는 이를 극대화시키는 힘이 있다. 보편적으로 예술문화의 창작자들이 향유자를 향한 공감대의 형성을 근원적으로 지향하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예술문화의 다양한 양상과 작품들은 일차적으로 인간이 지닌 감성을 건드려 공감의 진원지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인간이 지닌 공감적 참여의 좋은 매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구성과정에서 문화예술의 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이 지점이다. 공감적 사유의 공유와 그 실천 없이는 온전한 부울경 메가시티의 실현이 힘들기 때문이다.

공감적 세계인식은 자율적 개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모든 것은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체계이론(system theory)과 맥을 같이 하며, 이 체계이론은 지구촌이 직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할 생태학적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지닌 이러한 공감적 성향은 꾸준히 연마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연마를 위한 하나의 좋은 매개가 문화예술이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늦었지만 부울경 메가시티의 공공 문화기관들이 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그 몇 가지 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첫째는 부울경에 산재한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들의 느슨한 연대로부터 끈끈한 연대로의 이행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부산문화재단, 울산문화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이미 협약을 맺은 바를 토대로 상호협력체계를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향은 우선 공통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일이다. 공유를 통해 함께 협력해야 할 지점과 문제점을 협의함으로써 부울경 문화권(동남문화권) 안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창안하는 일이다. 이를 바탕으로 부울경 문화권 형성을 위해 필요한 부울경 문화프로젝트를 완성해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실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각 문화재단이 그 동안 펼쳐온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체계화 한 바탕 위에 새롭게 열려질 부울경 문화권의 정체성을 어떻게 구체화해나갈 것인지를 고민하여 밑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문화재단 정책팀이나 기획팀이 상시적으로 만나 빠른 시일 안에 <부울경 문화비전 2030> 기초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부울경 전 지역 시민들의 온전한 문화권 향유를 위해 광역시도 문화재단이 기초문화재단 설립을 추동하고, 이와외 긴밀한 연대를 확대·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지금 부산에는 금정구와 부산진구, 경남에는 창원문화재단, 사천문화재단, 김해문화재단, 밀양문화재단, 거제문화예술재단, 거창문화재단이 울산에는 고래문화재단, 울주문화재단(준비 중) 정도가 설립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정도의 기초문화재단 설립으로는 부울경 지역 전체의 문화진흥을 제대로 일구어 나가기 힘들다. 최소한 부울경 지역 시군구에는 하나 이상의 기초문화재단이 설립되어야 부울경 문화권을 제대로 실현해 나갈 수 있다.

부울경 문화분권 형성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하나의 문화기관이 문화원이다. 한국문화사를 점검해보면, 한국문화진흥을 위해 제일 먼저 설립된 단체가 문화원이다. 한국문화사의 영욕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체이다. 관변문화 창출의 원천이었다. 문화재단이 각 지역의 문화진흥을 이끌고 있는 현실 속에서 문화원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시점이다. 전국 대부분의 문화원들이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진행, 실버문화 페스티벌 운영,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등과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직은 문화재단과 같이 광역문화원 조직과 지역문화원 조직으로 나누어져 있으면서 한국 전체를 대표하는 한국 문화원 연합회로 조직되어 있다. 진정한 문화분권을 위해서는 중앙이나 본부 개념이 자리하고 있는 한국문화원은 해체하고, 각 지역이 수평적으로 평등한 연합체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소위 중앙의 한국문화원에서 모든 예산과 프로그램을 각 지역에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온전한 지역문화 분권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지역문화원들이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문화프로그램을 창안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자율성과 역량을 우선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그 지역의 문화재단과 문화원은 일차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 그 지역의 정체성에 맞는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다양한 문화 수용층의 욕구에 따라 문화재단이 관장해야 할 것과 문화원이 담당해야 할 부분들을 분담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부울경이 하나의 문화권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문화원 수가 문화재단 수보다도 훨씬 많다는 점은 이들의 관계 정립이 그만큼 큰 과제임과 동시에 풀어나가야 큰 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부산에는 14개의 문화원이, 울산에는 5개의 문화원이, 경남에는 20개의 문화원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문화원을 방치해 두고 문화재단이 일방적으로 부울경 전체 문화의 미래 조감도를 그리고 실현해 나가기에는 많은 결락 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노인층의 수요가 많은 문화원 프로그램의 문제들을 부울경 지역문화의 다양성이란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안고 가야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프로그램이나 문화기획의 역량 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는 지역문화원의 체질을 바꾸어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재단의 협력과 도움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지역에서 문화재단과 문화원이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대로 실행해본 적이 없기에 부울경 지역에서는 기존 모든 문화기관들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문화진흥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부울경 동남문화권 형성을 위해서는 기존 문화원과 문화재단과의 관계정립과 협력체계 구축은 선결과제 중의 하나이다. 앞으로 부울경 지역에 세워나가야 할 시군구 기초문화재단의 설립과 기존 문화원과의 관계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기초문화재단의 설립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안을 제대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우선은 부울경 광역시도 문화재단이 앞장서서 현실 대응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울경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연대해서 문화기관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추동하는 부울경 문화예술인들의 연대 활동도 반드시 필요하다.

부울경 메가시티 시대, 지역문화재단이 나아가야 할 길

손경년

(재)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김해문화재단의 ‘불가사리 프로젝트’는 김해예술인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출발한 지원 사업이다. 말하자면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주는 자’와 ‘받는 자’를 구분 짓는 짓을 하지 말자는 것, 지속적인 성장 동기를 재단과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자는 것, 그 결과 시민들에게는 좋은 공연과 전시를 제공하고, 이와 동시에 재단은 상생의 매개 역할을 하면서 ‘지역’이라는 용어에 갇히지 말자는 것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마음가짐이었다. 이에 따라 문화재단은 지역예술인의 상생 그리고 문화·예술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선착순 방식의 공모, 심사가 아닌 협의를 통해 42개의 공연과 함께 ‘김해 미술인 다(多)모임’전 10인의 작가를 선정하였다. 예전의 심사방식을 벗어나 김해 거주자, 예술인활동증명서의 확인이라는 첫 번째 기준, 젠더 감수성 및 환경생태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제안서 요청이라는 두 번째 기준을 제시, 전문 예술인의 창·제작을 우선하면서, 당면한 문제에 대한 예술적 접근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적 지평을 넓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 즉 ‘불가사리 프로젝트’는 지역문화재단 설립목적의 두 축, 즉 ‘지원’과 ‘향유’라는 두 마리 토끼잡기라는 지역문화재단의 기본을 다시 숙고하는 중요한 과정이 되었다.

되짚어보면 1997년에 광역으로써 경기문화재단이, 2001년에 기초로써 부천문화재단이 설립된 이래 문화재단설립의 역사가 20년을 넘었다. 올 2월 기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현황자료에 의하면, 기초문화재단은 113개이고, 광역문화재단은 17개로 총 130개의 문화재단이 전국 각지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다. 이를 보면 자치단체장의 지역문화재단 설립 공약은 이제 보편화된 듯하다. 처음 문화재단이 만들어졌을 때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사회에서 ‘재단은 알겠는데 문화재단은 무엇을 하는 곳이야’라고 질문을 했던 시절도 있었으니 격세지감이 든다.

잠깐 시선을 돌려보자. 저출생¹과 고령화의 우려가 지속되어왔던 우리나라의 인구가 2012년 6월 23일 오후 7시, 5천만 명을 넘어섰다. 당시 소위 ‘20-50클럽’²이라는 나라는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아, 독일, 영국 등 6개국이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조건을 갖춘 지구촌의 7번째 나라가 된 것이다. 드디어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에 도달하였다 하여 기념행사를 했던 기억이 난다. 2020년 기준 인구수를 보니 50,825,557명으로 큰 폭의 인구증가는 더 이상 없었다. 또 2020년에는 사망자가 출생자 수보다 많은 자연감소가 시작된 해이기도 하다. 출생률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고령 세대가 늘어나다 보니 쇠퇴, 소멸이라는 단어가 도시 앞에 붙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이 뉴스를 보고 놀랐던 것으로, 2021년 전국의 89곳이 정부로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는 점이다. 놀랍게도 인구감소지역에 광역도시 중 부산이 포함되어 있었다. 정부 정책의 하나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 인구감소지역에 매년 1조 원씩 10년간 투입하기로 했다고 하나, 실행 과정의 정교화와 이후의 지속가능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청년 유출, 고령화, 도시기능의 쇠퇴 등의 문제로 결국 정책효과가 미미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도 뒤따랐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의 인구는 26,038,307명으로 전체인구의 51%를 차지하는데, 비율에서 보듯 수도권은 과밀화 상태이다. 지역 내총생산(GRDP)을 보면 수도권에 비해 경남권의 비중이 하락하고 있으며, 지역총소득(GRI)도 마찬가지로 하락하였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 자원 투입이 있었지만, 아직도 서울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객관적인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타개할 수 있는 자구책이자 지역전략으로, 2018년 '경남의 동남권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농산어촌 등을 모두 연계, 영남권, 남중권에 이르기까지 유연한 광역권을 형성하여 수도권 1극 체제의 극복'을 위해 경남·부산·울산(이하 부울경) 메가시티가 제안되었다. 경남권의 광역적 의제 처리 등 행정의 효율화, 1시간 거리로 접근성을 높여 생활권이라는 인식을 물리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광역교통체계 구축, 낙동강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과 물 관리체계 및 먹거리 공동체 형성 등 경남권 자치단체의 협력적 광역경제권에 대한 추진 의지가 최근에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추진이 본격화된다면, 적어도 경남권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임학순(2021)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문화재단 설립을 가속해왔던 근거로, 문화예술의 특성과 정책 효과성의 측면에서 정당성을 찾고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문화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팔길이 원칙의 강조와 전문성과 유연성, 소통과 협력 네트워크 역량을 발휘하는 조직으로서의 지역문화재단을 기대하고 설립을 추진한다는 것이다.³ 그러나 본래 추구했던 설립의 정당성과 달리 지역문화재단들은 날이 갈수록 관료성, 경직성의 경향을 보였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행정 여건도 여전히 미흡하며, 국가사업 확보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1 저출산(低出生)은 '여성이 아기를 적게 낳는다는 뜻'이며, 저출생(低出生)은 '아기가 적게 태어난다'는 의미이다. 문체부는 2019년 7월 2일 자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와 교육비'라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처음으로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이라는 표현을 했다. 물론, 아직도 저출생이 공식용어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참고, <여성신문> 2019년 7월 18일 자, "저출산이 아니라 저출생입니다"(이하나 기자)

2 '20-50클럽'은 일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만 명을 동시에 충족하는 나라를 뜻한다.

3 임학순(2021),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미래", 웹진 <예술경영> 467호(20210610), 예술경영지원센터

는 비판도 상당하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기대만큼 지역문화재단들이 지역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이 주된 논평이다. 처음 '장밋빛 꿈'을 갖고 문화재단을 설립하였지만 점차 또 하나의 관료조직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혐의로 만신창이가 된 셈이다.

그러나 좌절보다는 현재 130개의 재단이 운영되고 있다는 현실 앞에서, 다시금 지역문화재단의 존재 이유를 성찰하고,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것 같다.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후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과정 및 실행을 통해 지역 환경과 특성의 반영, 지역주민의 주체적 참여와 주도를 견인하면서 다양한 문화와 예술 주체들의 거버넌스와 시민력 증진을 위한 시도가 가능해졌다. 말하자면 자치와 분권의 점진적 구현 과정에서 지역문화정책에서도 문화분권이 도시의 중요한 실천 의제로 등장, 지역문화재단의 정체성, 방향성 등의 재정립을 고려해야 할 시대가 된 것이다. 특히 문화도시 사업 확장과 맞물려 지역문화재단들은 기초단위 지역문화시설의 관리, 운영, 축제 개최 등으로 축소되어 있던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문화생태계의 '소통자-연결자-조정자-지역문화와 예술의 가치 옹호자-혁신자'⁴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변모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그래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현실화 된다면, 서울 중심, 수도권 중심의 문화예술 수요공급 방식과 다른, 해양문화권과 낙동강역사문화권을 중심으로 생태환경, 기후위기, 문화다양성 등의 가치를 실천하는 거점으로서의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지역의 문화예술생태계 및 마르지 않는 '문화콘텐츠 생산고'로서의 지역문화재단, 개인과 사회, 그리고 도시까지 아우르는 확장된 미션과 함께 특히 사람과 사람을 엮고 매개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쪼개고 묶어서 '삶의 개선'과 '행복도'를 최적의 상태로 끌어올리는 유연한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

4 상동(上同)

경쟁 혹은 상생?

부울경 공공미술관의 협력방안에 대하여

이진철

울산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전국적으로 '이건희 미술관' 유치가 쟁점이 되었을 때 각 지자체들은 상생의 방안을 찾지 않았다. 각 지자체는 나름의 타당성을 내세우며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다. 우리나라의 공립미술관들은 운영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거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문화재단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부산, 울산, 경남의 공립미술관도 예외가 아니다. 2022년 현재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는 부산시립미술관, 부산현대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창원시립문신미술관,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김해문화의전당 윤슬미술관, 김해 클레이아크 미술관 그리고 올해 개관한 울산시립미술관을 포함하여 모두 8곳의 공립미술관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25년 개관예정인 창원시가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표 1> 부울경 지역 공립미술관 현황 (출처 : 2020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지역	운영주체	미술관명	소장품 종류	소장품 점수
부 산	부산광역시	부산시립미술관	평면, 입체, 기타	2,829
	부산광역시	부산현대미술관	설치, 조소, 뉴미디어, 영상, 사진, 회화	287
경 남	경상남도	경남도립미술관	회화, 조각, 사진, 영상 등	1,317
	창원시	창원시립문신미술관	조각, 회화, 유품(공구 등)	3,985
	김해시	김해문화의전당 윤슬미술관	회화, 조각, 서예, 서각 등	352
	김해시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도자 작품	1,291
	진주시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회화, 판화, 드로잉, 도자기	376
울 산	울산광역시	울산시립미술관*	영상, 뉴미디어, 입체, 설치, 사진, 평면 등	112

* 울산시립미술관은 미술관 제공 자료임(2022년 2월 현재)

경쟁 혹은 상생?

2021년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한국위원회에서는 「문화와 지역발전: 영향 극대화 -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체, 박물관을 위한 지침서」를 공개하였다. ICOM과 OECD가 공동으로 출간한 이 지침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변화의 주체로서 박물관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지침서에서 말하고 있는 ‘박물관’을 우리의 실정에 맞추어 ‘미술관’으로 이해하자면 미술관이 지역경제개발을 위해 지역의 관광개발, 도시재생 및 공동체 개발, 문화인식과 창의사회 촉진, 그리고 포용과 건강 및 웰빙을 위한 공간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오늘날의 미술관이 지역문화발전의 주도적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나아가 지역의 관광과 경제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은 미술관 관계자들에게 이미 널리 이해되고 있다. 그렇다면 부울경 메가시티 내 국립미술관들은 각 지역의 미술문화진흥을 주도하면서 광역경제권에도 기여하는 상생의 공간이 될 수 있을까? 우려하듯이 광역경제권이 되면 오히려 승자독식의 경쟁관계가 되지는 않을까?

만약 대중교통망의 확대로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남의 도시들이 연결되고 이동이 쉬워지면 각 지역 공공미술관의 연간 관람객 수, 그리고 일일 관람객 수가 자연스럽게 증가될까? (사)문화다움 대표 추미경은¹ “메가시티에서의 문화전략은 지역문화를 수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남권 지역문화의 고유성을 독자적 가치로 포지셔닝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역문화의 내면적 역동성과 지속가능성을 주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로컬문화의 고유성과 독자적 가치를 포지셔닝하는 기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체불가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미술관

미술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메가시티 내 각 미술관들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기 위해서는 우선 독자적으로 대체불가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문화공간이 되어야 한다. 강력한 킬러 콘텐츠는 외피적이고 현란한 마케팅 기법을 넘어서는 일례로 울산시립미술관은 개관에 앞서 소장품을 수집하면서 미디어아트 중심의 미술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백남준 작가의 「시스틴 채플」을 구입하였다. 「시스틴 채플」은 1993년 베니스비엔날레 독일관에 출품된 작품으로 백남준 작가에게 그 해 베니스비엔날레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여준 작품이다. 「시스틴 채플」은 2019년 영국 테이트모던미술관 백남준 회고전에서 재현되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을 비롯하여 싱가포르국립미술관을 순회하면서 백남준 작가의 대표작으로 소개되고 있다. 울산시립미술관의 소장품이 된 이후에도 「시스틴 채플」은 백남준 전시를 준비 중인 국내외 미술관으로부터 대여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백남준, 시스템 체플, 1993/2021 (installation view, Nam June Paik, SFMOMA, 2021) 울산시립미술관 소장

부산시립미술관, 부산현대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그리고 울산시립미술관 등메가시티 내의 각 미술관들이 서로 대체불가한 소장품과 나름의 독자적 전시를 기획해 나갈 때 서로의 협력과 상생은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미술관이 각 지역의 미술을 재조명하고, 서울 중심의 미술사 서술을 보완함으로써 균형잡힌 한국미술사를 서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각 미술관들이 고유하고 독자적이며 지금보다 더 매력있는 콘텐츠와 미술관 경험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반일 생활권 또는 일일생활권 내에 있는 메가시티 내 미술관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각 미술관들은 경쟁하지 않고 상생하기 위해 서로 차별화 되어야 한다.

부울경 메가시티만의 독자적인 문화예술진흥정책

국립현대미술관은 국가 대표미술관으로서 지역에 소재한 공·사립 미술관들의 진흥과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이 주어져 있다. 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미술관 협력망 사업”이다. 부울경 메가시티 내의 각 미술관들은 국립현대미술관의 협력망 사업과는 별개로 수평적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야 하며 부울경 메가시티만의 독자적인 미술관 지원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향후에 만들어질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내에 미술관 운영, 연구 및 인력지원,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미술문화 향유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등 메가시티 내 미술관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나 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현안으로는 공동 수장고형 미술관의 건립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수장시설의 부족은 개별 미술관들마다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 공동 수장고형 미술관이 만들어지면 소장품의 보관과 관리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한곳에서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부울경의 지역미술을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의 건립도 제안한다. 한때 부산, 울산, 경남은 나뉘어져 있지 않았다. 모두 경상권이라는 한 지역이었다. 예술작품은 인위적인 행정구역에 따르지 않는다. 나아가 만약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면, 문화예술사업의 지역간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가 목적인 프랑스의 지역문화예술위원회(CRAC) 제도와 미술은행처럼 소장품 확보의 형태로 지역 신인 작가들을 지원하는 현대미술지방재단(FRAC)의 운영 등 해외의 지역미술진흥 제도들을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만의 독자적인 문화예술진흥정책이 추진되는 즐거운 미래를 상상해 본다.

부울경 문예회관 협업을 통한 문화분권 실현

서승우

(재)영화의전당 예술경영본부장

1. 문예회관 현황

1980년대 들면서 정부는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의 문예회관¹ 건립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80년대 까지는 주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며, 90년대 들어서는 기초단체들까지 확산되었고 2021년 현재 전국 243개 광역 및 지자체의 107%에 해당하는 260개 문예회관이 건립되었다.² 전국의 공연시설은 총 1,007개이며, 서울지역에 340개로 전체의 33.8%이고, 경기와 인천 지역을 포함하는 수도권 지역 시설 수가 총 498개로 전체 공연시설의 49.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³ 또한, 시설특성별로는 중앙정부 12개, 문예회관 260개, 기타(공공) 234개⁴, 대학로 지역 시설 101개, 민간(대학로 외) 400개이다.

문예회관은 설립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으로 구분되고, 운영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정부기구, 책임운영기관, 특수법인, 민법상의 법인 등으로 구분된다. 2020년 말 현재 운영 중인 전국의 260개 문예회관의 운영주체를 살펴보면 <표-1>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직영사업소가 전체의 57.3%인 149개이고, 42.7%인 111개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⁵

<표 1> 문예회관 운영주체별 현황

구분	문예회관수	직영사업소			위탁운영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공기업	재단법인	사단법인	상법인	교육기관	개인	기타
합계	260	13	136	18	83	6	-	2	1	1

문예회관의 숫자가 늘어난 만큼 비판의 목소리도 다양해졌고 커졌다. 다수의 문예회관들이 예산, 인력, 프로그램 등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시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직영에서 위탁으로 운영주체를 바꿔야 한다거나 예술조직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다른 한편에서는 재단법인과 민간위탁기관의 재정 상태가 직영과 공단보다 더 열악하다는 이유로 민간 위탁보다 직영체제가 더 효율적이라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대세는 민간 전문가 집단에게 시설을 맡겨 자율적인 운영을 통한 재정자립과 공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세종문화회관은 1999년 7월 독립 재단법인으로 새로 출범했고, 국립극장은 2000년 1월부터 책임운영기관⁶으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예술의전당은 재단법인에서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⁷으로 전환하여 그 공공성을 더 강화하고 있다.

II. 부울경 문예회관 현황

부울경에는 현재 부산 11개, 울산 5개, 경남 23개 등 모두 39개 문예회관이 운영 중이며, 재정자립도는 부산 7.1%, 울산 4.6%, 경남 4.0%로 부산만 전국 평균 4.7%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공연장 가동률과 프로그램 가동률은 각각 부산이 20.4%, 17.5% 울산이 23.3%, 21.3% 경남이 11.8%, 10.2로 나타나 전국 평균 16.6%, 13%보다 부산과 울산은 높게 경남은 낮게 나타났다.⁸ 운영주체는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 부산 7개, 울산 4개, 경남 13개 등 39개 기관 중 61.5%인 24개로 나타났으며, 재단법인 등 민간 위수탁 시설은 부산 4개, 울산1개, 경남 10개로 나타났다.⁹

부울경 지역 대부분의 지자체에 1개 이상의 문예회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그 운영 내용과 성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시대에 맞추어 부울경 지역 39곳에 운영 중인 문예회관을 문화분권의 거점 시설로서 그 역할을 제안하고자 한다.

III. 제안내용

1) 부울경 문예회관 연합법인 출범

현재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한문연) 부울경지회의 지위에서 벗어나 별도 법인화하여 그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문연에서 전국의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등 프로그램 선정 시 예산의 지역할당제를 도입하여 지역의 작품은 부울경연합회에서 선정, 지역 문예회관에 우선 공급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그러면 최소한 지역의 작품이 국비와 문예회관 매칭 예산으로 지역의 관객에게 선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2) 통합 예술감독제 도입

재단법인으로 운영 중인 문예회관은 차치하더라도 시군구 직영으로 운영중인 24개 문예회관의 경우 통합 예술감독제를 도입하여 연중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 컨셉과 방향을 계획적으로 정해보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중복에 대한 논란과 예술성과 공공성 시비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지역별로 프로그램을 차별화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3) 국내외 유명 공연 공동 유치

매년 통영국제음악제 기간이 되면 부산의 클래식 매니아들이 통영으로 공연 여행을 떠난다. 시간을 내지 못해 가지 못하는 분들은 부산에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도 한다. 그래서 간혹 사전 협의를

통해 부산공연이 성사되기도 한다. 통영국제음악제 뿐만 아니라 부산국제연극제 등 부울경 내 문예 회관을 중심으로 개최 중인 국제행사의 프로그램을 사전 협의를 통해 지역 순회공연 추진하면 여러 모로 이득이 많을 것이다. 이를 제도화해서 부울경 관객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지기를 바란다.

4) 2030엑스포 홍보 및 축하공연 공동제작

2030엑스포 개최가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과 함께 문화분권 실현의 새로운 엔진으로 도약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치 성공을 위해 부울경 문예회관 모두가 적극 협력하고 그 성과도 부울경이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부울경 문예회관 연합법인에서 연출, 배우, 안무 등 지역예술인 대상으로 엑스포 홍보용 작품을 공모해 공동제작 후 순회공연한다면 2030엑스포 유치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5) 상주단체페스티벌

문예회관 공간 활성화와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 부산에서는 2013년부터 매년 8월경, 경남에서는 2011년부터 매년 11월경 개최되고 있으며 울산에서는 2014년부터 '전국 공연장상주예술단체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전국 시도를 대표하는 20여개 상주단체가 매년 참가하고 있다. 이렇게 시기를 달리해 각각 개최되고 있는 상주단체 페스티벌을 지역을 순회하며 같은 시기에 대규모 페스티벌로 개최하고 전국의 문예회관 관계자들과 기획자를 초청해서 지역 공연을 소개하면 지역 공연 유통에 도움이 될 것이다.

6) 무대미술세트장(수장고) 건립

국내 공연예술계에서는 그동안 무대장치 보관을 위한 공간이 없어 각종 도구 및 장치 등의 조기폐기로 예산낭비 및 우수레퍼토리 축적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무대세트, 의상 등 무대용품의 손상으로 재사용이 어려웠으며 외부 보관장소 임대에 따른 추가 예산 부담 등으로 인해 꾸준히 무대미술세트장(수장고)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과 더불어 부울경 무대미술세트장을 건립하여 부울경 문예회관의 제작공연 및 대관공연에 따른 보관장소를 제공하고 세트장 견학을 통한 창작의욕 고취는 물론 문화예술 일자리 창출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파주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가 2021년 4월 입찰을 통해 추정가격 기준 179억원으로 경기도 파주시 법흥리에 지상 3층(연면적 1만3442.65m²)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7) 공연 영상화 스튜디오 건립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공연의 형식과 제작 그리고 유통 방법이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공공 공연장에서도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갖추고,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카메라, 조명, 음향 장비나 시설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대관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 예술단체나 예술가의 좋은 기획과 콘텐츠가 온라인을 통해 관객과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예술의전당에 공연영상화 종합제작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품질 공연 영상

제작, 온라인 공연 생중계, 민간단체 공연 영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부울경에서도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 영화 세트장처럼 온라인 공연 영상 촬영이 가능한 장비를 비치하고 전문 기술인력까지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시민과 지역 중심 출판문화 활성화를 위한 고민들

장현정

부산출판문화산업협회 회장,
호밀밭 출판사 대표

지난 1월 27일, 부산출판문화산업협회가 출범했다. 3월 기준으로 지금까지 34개 출판사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부산은 이미 2019년에 김혜린 시의원의 발의로 지역출판조례를 마련한 바 있지만, 직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진데다 부산에서는 그동안 출판 관련 시정(市政)의 경험이 거의 없었던 터라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한 채 2년이라는 시간이 별 성과 없이 지나갔다. 그러다 올해 초 협회가 출범하면서 다시금 부산시와 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새롭게 지역출판의 가치를 되새기며 출판이 지역 문화의 새로운 활력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전략을 마련 중이다.

왜 지역이고, 왜 출판일까. 근대 이후 세계 지식 담론의 서구 편향성은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이는 단일국가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그동안 한국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출판과 문화예술뿐 아니라 거의 모든 영역에서 기형적일 정도로 심했다. 이는 곧바로 정신과 문화의 식민성으로 이어진다. 지금도 부산은 입버릇처럼 늘 서울을 의식하고 서울과 비교하며 오래된 콤플렉스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일제강점기부터 군사독재 시절을 거처온 오랜 시간 동안 한국에서 출판은 진흥의 대상이기보다 억압과 금지의 대상이었다. 통제된 지식과 담론만 서울을 중심으로 유통되었고 지역마다 고유한 출판과 독서문화가 자리 잡기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다. 민주화 이후 상황이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한국 출판, 나아가 지역출판이 풀어야 할 숙제는 산적해 있다.

2021년 통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일반 단행본 출판사 수는 2,013개로 파악된다. 이 중 1,277개가 서울에 있고 수도권까지 합하면 1,696개이다. 전체 출판사 중 80%를 훌쩍 넘는 출판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부산에는 41개, 대구에는 35개, 광주에는 37개, 대전에는 33개의 출판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전자책 출판 제작업의 통계를 봐도 128개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부산에는 2개 회사만 등록되어있다.

출판 관련 지원사업도 오랫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었다.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출판 관련 법

령과 제도도 2002년 김대중 정부에 와서야 처음으로 마련되었는데 지역출판에 관한 법적, 제도적 고민은 이후로도 한참이 지난 2015년에야 시작되었다. 그러다 보니 각 지방정부에서도 출판을 어떻게 육성하고 지역의 독서문화와 어떻게 연계하면 좋을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으며 출판, 도서관, 서점 등 여러 정책이 따로 놀며 공회전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2002년에 한국의 출판에 대한 정책이 막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면 20년이 지난 2022년에는 이제 지역의 출판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정식으로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사회의 변화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다. 단순히 종이책으로서, 올드 미디어로서의 출판이 아니라 지식과 문화의 원천콘텐츠로서의 출판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많은 분야가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4차 산업혁명 담론이 뜨겁고 SNS와 유튜브 등 콘텐츠와 미디어 환경도 격변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출판의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비판적 전망도 많지만, 위기는 새로운 기회라는 말처럼 책은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또 다른 가능성의 영역으로 우리를 이끈다. 출판에는 숫자로 환치되지 않는, 디지털의 방식과 영역으로 포섭할 수 없는 아날로그만의 역능(puissance)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웹툰, 영상, 어플리케이션, 나아가 공연이나 축제까지 영역을 넘나들 수 있다. 출판이 위기라고 하지만 이미 전국 각 지역에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많은 이들이 기꺼이 독서 모임, 글쓰기 모임, 독립출판과 독립서점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모이고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디지털 기술은 또한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성 및 연결성도 놀라운 속도로 발전시키면서 오늘날 '지역(local)'의 가치를 새롭게 증폭시킨다. 디지털 기술은 이제 지역의 지식과 문화, 서사와 담론을 물리적 차원의 지역에만 가두지 않는다. 지역출판의 성과를 세계로 내보낼 수 있는 기술적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전 세계와 연결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과 출판이 만나는 방식도 이전과는 달라질 필요가 있다.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출판이 가진 문화로서의, 또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시대변화와 조응하는 구체적 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다.

부산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영화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장르의 창조콘텐츠 육성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이런 시기에 그 원천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하고 안정적인 콘텐츠 산업으로서의 지역 출판산업의 가능성과 전략에 대한 관심과 육성은 긴요하다. 산업의 여러 분야가 AI나 새로운 디지털 기술로 전환되면서 앞으로 도시의 미래가 무형의 서비스, 특히 콘텐츠 산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에 지역의 출판사들이 연대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며 출판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뜻을 모은 것은 그래서 늦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자평한다.

도시의 성장에는 문화와 산업이라는 두 축이 모두 필요한데, 출판이야말로 문화와 산업의 특징을 함께 갖는 분야다. 출판은 오랫동안 소수의 엘리트, 지식인들만의 영역이었지만 문맹률이 낮아지고 정보사회로 접어들면서 더 많은 사람이 출판의 주체로 거듭나며 독자와 저자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신춘문예 등단, 유명인사, 교수, 전문가 등이 중심을 이루던 저자 군(群)이 저마다 SNS를 비롯한 다양한 경로로 자신의 콘텐츠를 유통하며 다중(Multitude) 전체로 확장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금보다 더 편하

게 넘나들 수 있는 출판의 대중화와 저자 발굴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더구나 지역의 신인 저자들과 독자들의 유출도 심한 상황이다. 글쓰기, 독서 등 출판과 연계된 다양한 문화 활동에 대한 높은 수요는 이미 여러 경로로 확인되고 있어서 이런 시민들의 문화적 수요를 만족시키는 한편 이를 통해 지역의 출판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천적인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출판은 이미 문학, 역사, 철학 등 인문학과 긴밀히 연결되어왔지만 나아가 디자인, 영상, 아카이빙, 교육 및 강연, 도서전과 같은 축제, 인문 투어, 도시재생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사회 의제와 연동되고 있다.

이런 흐름과 더불어 부산출판문화산업협회는 창립과 동시에 2022년 2월 9일부터 16일까지 전체 회원사 33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모두 29개 회원사가 참여해주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인 출판사의 설립 붐이었다. 협회는 또한 2월 14일과 22일,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출판, 서점, 도서관,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기회도 가졌다. 무엇보다 출판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지금은 출판, 도서관, 서점 등 독서문화 정책이 따로 놓고 있다는 진단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도서관 장서 구입비 확대, 공공도서관 증설과 작은 도서관들의 확대 개편 등의 방안이 논의되었고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또 지방정부 차원의 예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특히 공공도서관의 경우 경기도의 사례를 참고해 지역 서점을 통해 책을 발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서점이라는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아무 지역, 아무 업종이나 입찰을 하는 제도적 맹점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각 도서관의 사서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 출판물에 관심을 보여주기를 희망했다.

최근 부산의 대표적인 독립서점 중 하나였던 아스트로복스가 5년 만에 폐업한 것과 관련해 지역의 서점들에 대한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서점은 독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하며 출판과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미세혈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적 공간이라는 이유로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협회는 올해부터 여러 사업을 준비 중이다. 특히 그동안 부산의 출판이 문화적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를 축적해왔지만, 산업적 측면에서는 취약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지역의 콘텐츠와 가치를 확산하고 자체적으로 규모 있는 기획을 추진하려면 이제부터는 비즈니스로서의 출판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다. 현재 협회는 교육, 지역 콘텐츠 출판지원, 회원사 간 정보 공유 및 대외 홍보, 공동 시리즈물 기획, 지역 유관 콘텐츠 산업 연계, 지역 출판인 권리 보호, 부산출판문화산업협회(Busan Publishing Culture and Industry Association)의 이니셜을 딴 'BPCIA 어워드', 공기업 및 공공기관 연계 독서문화 확산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준비 중이며, 장기적으로는 부산출판산업연구지원센터나 부산북비즈니스센터 설립과 지역의 향토 기업이 함께하는 지역출판기금 혹은 모태펀드 등도 고려하고 있다. 또 지역적으로 가까운 일본과 대만 등 아시아 출판사들과의 교류와 지역 출판사들에 가장 시급한 공간인 창고 확보를 통해 재고관리나 유통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출판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도 마련하고자 한다.

나는 출판 관련 특강을 하거나 기회가 될 때마다 ‘출판은 문화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강조한다. 어떤 분야든 시작할 때 책(기록)을 통해 자료를 모으고, 하나의 프로젝트 혹은 삶이 끝나도 역시 책(기록)으로 남기게 마련인데 그렇게 책(기록)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기 때문이다.

출판사는 이제 시대정신을 선도하는 지식기업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다. 지역만의 구체적 맥락(context)을 훑어보고 이를 독자들의 시대적 감수성에 조응하는 형태로 가공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기존 출판에 대한 고정관념에서도 탈피해야 한다. 네트워크형 조직으로 전환해 지역의 청년들과 수시로 협업할 수 있어야 한다. 부산처럼 인구 300만이 넘는 도시는 유럽의 작은 국가 하나라고 봐도 좋다.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부산이 계속해서 서울을 의식하거나 단일국가 내부의 시야로만 미래를 준비해서는 안 된다. 현재 부산은 335만 인구에 출판 예산은 4,000만 원 수준인데 공연 하나를 만드는 예산에도 미치지 못한다.

협회와 부산의 출판사들에게도 숙제가 많다. 지원만 바란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누구라도 매력을 느낄 만한 디자인과 결과물로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도 비슷한 시도가 계속되고 여러 자리에서 같은 얘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차근차근 실질적으로 체질을 바꾸며 나아가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부산이 동남권 출판산업의 중심점이자 노드(node)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려면 더 많은 사람, 또 많은 기관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 신영복 선생님이 쓰신 <변방을 찾아서>라는 책 속 한 구절이 떠오른다.

“모든 새로운 것은 변방에서 시작되는데, 거기에는 전제가 있다. 콤플렉스가 없어야 한다.”는 문장이다. 부산의 출판사들이 협회 출범을 계기로 부산문화의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글을 맺는다.

수영구 문화도시 조성계획 문화영향평가 연구

김 선 애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사무국장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모델 개발

2013년 제정된 문화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에 발맞추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문화적 관점에서 시의 계획·정책 관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문화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시범평가를 거쳐 2016년부터 본격 시행 중이며, 평가 대상 정책의 성격 및 유형을 다양화하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문화적 가치의 재인식 등에 기여하고 있다. 부산시 문화영향평가는 부산 실정에 맞는 문화영향평가 제도 정착과 운영을 위해 2019년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한 이후, 2021년 「수영구 문화도시 조성계획 부산형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하고,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모델개발 용역」을 완료했다.

수영구 문화도시 조성계획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법정 문화도시 지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예비도시 선정 후 예비사업 기간 내 문화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다. 그만큼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현재 부산시는 영도구가 법정 문화도시로, 북구가 예비도시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수영구가 '각자의 방식으로 만들고 공유하는, 누구에게나 문화도시'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문화도시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수영구 문화도시 조성사업 문화영향평가는 연구진, 관계자, 평가단 그룹별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각 그룹별로 평가기준 중요도, 평가지표 순위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평가기준의 중요도 비교에서 연구진은 실현·지속가능성을, 수영구 관계자는 파급효과를, 평가단은 거버넌스를 1순위로 보았다. 평가지표 중요도 비교에서는 연구진은 지역문화가치를, 수영구 관계자는 문화발전을, 평가단은 문화기본권을 꼽

아 문화도시 계획을 보는 관점과 입장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평가기준 대비 평가지표 쌍대비교·분석을 보면 실현·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지역문화가치’와 ‘문화기본권’이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고 있으며, 파급효과 관점에서는 ‘문화발전’이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거버넌스 관점 역시 ‘문화발전’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발전’을 위해서 사업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권한과 책임, 권한위임(Empowerment), 시민이 주도하는 정책 참여 과정 프로세스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된다.

결과적으로 지표 중요도는 문화발전 > 문화기본권 > 지역문화가치 > 문화정체성 순으로 드러났으며, 문화도시 사업의 특수성, 개념,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문화영향평가 지표 우선순위로 문화발전의 지표영역을 가장 중요시 한다는 점이 파악 가능하다. 이러한 문화발전은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 자연스럽게 문화도시 사업에서 왜 지역문화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하는지 이어진다. 또한 본도시 지정이 되면 매년 성과검토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게 되며 ‘거버넌스 구축’이 별도 평가지표로 포함되어 있다.

문화영향평가는 보고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진행되어 지역 자율성 및 책임성 부족, 실효성 의문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문화적 발전을 위해 지역별로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한다는 것은 해당 지역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 수행을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다만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사업으로 진행되므로 전반적인 수행과정에서 국가정책과 가이드라인에 많은 영향을 받고, 도시전략 차원에서 사업범위가 설정되는 특성 상 지자체 등의 사업여건 조성 등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또한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단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수립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수행과 목표가 단계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이러한 시간전략은 단계에 따라 중시해야 할 평가지표가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연구진, 관계자, 평가단 그룹별로 중요 순위가 상이하게 나타난 것도 문화도시 조성계획에서 어느 시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문화영향평가는 ‘사업여건 조성’에 대한 측면을 포함하고, 준비·예비 단계 - 본단계 1년차 - 본단계 5년차 등 사업의 단계별 평가지표를 차별화·적용하면 좀 더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한다.

부산형 지역특성화 지표와 SDGs 지역화

부산형 지역특성화 평가영역인 ‘지역문화가치’는 개방, 포용, 미래가치라는 3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유네스코 2030 INDEX, SDGs 지표가 반영이 되어 있다. 지역의 문화지표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되어 제시된다는 점이 상당히 반갑고, 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 측면에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의 구체적인 평가실행을 위해서는 문화영향평가 활성화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시, 부산권 외 SDGs 이행 관련 다양한 협력 구조를 폭넓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SDGs 이행의 화두는 ‘지역화’이다.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문화를 중심으로 모색되고,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문화적 방안으로서 모색되길 희망한다.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2022. 01. ~ 02.

부산문화재단

- **새로운 부산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공모 사업 추진(2.8)**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미연)은 모두가 행복한 문화예술교육을 실천하고자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단체·기관·시설을 대상으로 “2022 부산 문화예술교육 사업” 공모를 진행했다.
- **빈집을 예술로 반짝반짝 밝혀줄 ‘반딧불이’ 예술가를 찾습니다!(2.8)**
재단은 2월 7일부터 2월 21일까지 도심 속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예술인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반딧불이(빈집활용)사업> 입주예술가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 **2022년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공모(2.21)**
재단은 오는 3월 22일까지 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공연장 가동률을 증대하기 위한 <공연장-예술단체 육성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 **문체부 장관, 문화예술과 기술 융합 협력 확대 지원(1.6)**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은 1월 6일(목) 오후 7시, 카이스트(KAIST) 대강당에서 열리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와 카이스트(총장 이광형)의 교육·연구 분야 상호협력 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문화예술에 최신 기술을 접목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 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학교예술강사 법적 지원 근거 마련, 고용 안정성 확보(1.11)**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31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이 1월 11일(화) 제2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 **지난 3년간 기초지자체 문화기반시설, 인구 대비 14% 증가(2.14)**
문체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대관)과 함께 공공부문 문화공급 현황을 진단하기 위한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지역문화종합지수를 발표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창작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실험의 장 '창작 실험활동 과정과 공유'(2.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가 '2021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실험활동지원 결과발표회 <창작실험활동 과정과 공유> (이하 과정과 공유)'를 이달 11일부터 3월 3일까지 CJ아지트 대학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문화예술 청년 일자리, 온라인에서 찾으세요!(2.18)**
예술위는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문화예술 기관과 단체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2022 아르코 예술인력지원 온라인 잡마켓>(이하 잡마켓)을 개최한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예술TF 출범(2.21)**
예술위는 2022년 2월부터 3개월간 청년예술TF를 운영한다.

강원문화재단

- **'강원트리엔날레 in 평창' 출범식 개최(1.19)**
강원도(강원도지사 최문순)가 주최하고 (재)강원문화재단, 평창군, 평창문화도시재단이 주관하는 '강원트리엔날레 in 평창' 출범식이 1월 19일(수) 평창 알펜시아 인터컨티넨탈 호텔 1층 미팅룸에서 열렸다.

서울문화재단

- **서울문화재단, 이렇게 달라집니다! '3대 전략, 10대 혁신안' 발표(1.26)**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이하 재단)은 지난해 10월에 8대 대표이사로 임기를 시작한 이창기 대표이사의 취임 100일을 맞아, 2022년에 중점 추진할 <3대 전략, 10대 혁신안>을 26일(수)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에서 발표했다.
- **거리 두기로 비어있는 객석 티켓값 지원하는 <사이채움> 시즌 2 공모(2.28)**
재단은 포르쉐코 리아(대표 홀가 게어만)와 함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위축된 공연예술계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지원 사업 <사이채움> 시즌 2를 2월 28일(월)부터 3월 11일(금)까지 진행한다.

대구문화재단

- **대구예술발전소, 연간계획 발표(1.19)**
(재)대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승익)이 운영하는 대구예술발전소는 2022년 연간 운영 프로그램 계획을 19일(수) 발표 했다.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부울경 문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방안

15호

2022. 03. - 04.

column 칼럼	국가균형발전과 부·울·경 메가시티, 문화정책을 위한 제언 차재근 (재)지역문화진흥원 원장
issue 이슈 1	생활문화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 신미영 구포이음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국장
issue 이슈 2	부울경 메가시티 문화도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자 김은아 밀양시문화도시센터 본부장
issue 이슈 3	ICT기술로 연대하는 부울경 문화공동체 김덕은 징검다리커뮤니케이션 대표
문화+사람	부울경 문화공동체, 어떻게 가능할까? 김태훈 작가, 지역스토리텔링연구소장
정책보고서 토크아보기	2021 부산시민 문화예술활동 트렌드 조사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2022. 03. - 04.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15호 | 2022. 03.-04.

이번 15호에서는 '부울경 문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생활문화, 문화도시, 문화기술 측면에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초광역적 협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Contents

- | | |
|---|----------------------------|
| 03 column 칼럼 | 41 issue 이슈 3 |
| 국가균형발전과 부·울·경 메가시티,
문화정책을 위한 제언 | ICT기술로 연대하는
부울경 문화공동체 |
| 차재근 (재)지역문화진흥원 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김덕은 징검다리커뮤니케이션 대표 |
| 35 issue 이슈 1 | 44 문화+사람 |
| “부울경 문화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방안”
- 생활문화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 | 부울경 문화공동체,
어떻게 가능할까? |
| 신미영 구포이음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국장 | 김태훈 작가, 지역스토리텔링연구소장 |
| 38 issue 이슈 2 | 48 정책보고서 돌아보기 |
| 부울경 메가시티 문화도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자 | 2021 부산시민 문화예술활동
트렌드 조사 |
| 김은아 밀양시문화도시센터 본부장 |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
| | 50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

국가균형발전과 부·울·경 메가시티, 문화정책을 위한 제언

차재근

(재)지역문화진흥원 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부·울·경 메가시티,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아직 구체적 실체가 없는 이 말에 대한 등장 배경과 이해가 필요한 것 같다. 우선 대한민국 헌법은 제9장(경제)에서 균형성장과 균형 발전이라는 헌법 가치를 규정하고 있다. 제119조 2항은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당한 소득의 분배”로 영역과 계층 간 균형을, 제123조 2항에서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조문하여 지역균형발전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였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헌법적 가치는-비록 헌법전문이나 별도의 장(국가균형발전)을 두어 좀 더 견고한 장치를 하지 못했지만-제123조 2항이 지역 간 균형발전의 헌법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균형발전정책은 2003년 참여정부를 시작으로 역대 정부에 따라, 비록 경중의 차이는 있었으나 그나마 정책 일관성으로 유지되었던 대표적인 국가정책임에 틀림없다. 그동안 국가 주도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지역발전 모델과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은 인구와 자원을 비롯한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 간 불균형과 경제,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켰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시대 개막을 선포하고 균특법제정과 균특회계 도입,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구성, 5개년계획 수립,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매년 1월 29일을 국가기념일인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하여 균형발전이란 헌법가치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있으나, 이를 기억하는 지자체는 드물다.

역대 균형발전정책의 주요 성과를 요약하면 첫 번째, 공간분산정책 영역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균특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2004.1월)하고 순차적으로 153개 1차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2019.12월)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을 제정(2005.3월)하고 44

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을 이전하고, 이와 더불어 정주 인구 23만 명 이상의 성장거점으로 혁신도시 10개를 건설하였다. 두 번째는 지방재정확충 영역으로 균특회계를 신설(2004)하여 지역특성과 우선 순위의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2010)하고, 지방소득세·소비세 등을 도입, 확대(2010)하여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였다. 세 번째 영역은 지역혁신역량강화 영역이다. 지역특성을 살린 전략산업 육성과 광역경제권 정책으로 도입하여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지역별 혁신협의회를 구성(2004), 주체 간 협치 역량을 향상시켰으며, 혁신역량강화와 교육여건 개선, 지역의 R&D 예산 확대를 위한 지방대학 혁신을 강화해 왔다.

이러한 역대 정부들의 균형발전전략은 문재인 정부를 지나면서 사람·공간·산업의 3대 전략으로 갱신되어 진행되었다. 그 주요 성과를 3대 성과목표인 분권·혁신·포용에 따라 정리해 보면, 첫째 분권 영역이다. 시, 도별 혁신협의회 운영, 시도 중심의 기획이 가능한 지역혁신성장계획, 수평적 지위를 보장한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의 지역 주도 추진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지역 주도의 지역균형뉴딜 정책을 확산하고, 23개 사업, 24.1조 원 규모의 예타면제와 초광역협력 프로젝트(13개) 기획 지원, 예타조사에 있어 균형발전 비중을 40%까지 높이고 균형발전지표를 도입하여 부처별 공모사업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선행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둘째로는 혁신영역이다. 14개의 국가혁신융복합클러스터를 육성하고 29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미래 신산업의 발굴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였으며, 국가경영그룹이 총11회의 전국경제투어를 진행하며 현장성을 높였다. 광주 형 일자리로 대변되는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에 기반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광주/부산/밀양/구미/군산/횡성)을 제시하고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셋째 포용영역이다. 201개 지자체 488곳의 도시재생뉴딜 사업 진행, 국정과제인 법정문화도시 30개 지정, 5개의 관광거점도시를 선정하여 매력 넘치는 지역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100원 택시 등 지역 교통체계를 보완하고 11개의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함으로써 양질의 사회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며, 지역민이 모세혈관 가장 가까워서 문화,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3년간 32.9조가 투입되어 진행되는 생활SOC사업은 19.9만 명의 고용 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3대 전략과 성과목표의 성과를 위한 추진과제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과 인구감소와 및 지역소멸 대응이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소멸 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제2, 제3의 경제·생활권 형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 간 경계를 넘어선 연계·협력·공유가 가능한 법(2022.1.13.지방자치법전부개정)·제도(규약의결/행정부승인/협약 등)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2020.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초광역협력 프로젝트 기획지원이 진행되었고, 2021년 2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에 대한 대통령 보고회를 통해 작금, 균형발전정책의 최대 이슈인 부·울·경 메가시티의 필요성이 수면 위로 등장했다. 같은 해 4월에서 10월까지 관계부처·균형위·분권위가 참여한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가 구성 운영되었고, 10월 14일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에 대한 대통령 보고회를 거쳐 최종 방침을 확정했다. 이러한 초광역협력을 통한 균형발전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인식한 지역이 동남권으로 일컬어지는 부·울·경이다. 3개 지자체장들과 지방의회가 뜻을 모았고, 오피니언, 지역언론 등 도시경영 관계 그룹이 그 중심에서 여론을 주도했다. 그 결과 부·울·경이 마련한 부산경남울산특별연합규약(안)은 부산(4/13), 경남/울산(4/15) 의회

의 의결을 거쳐 4월 18일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설치를 완료, 19일 중앙정부와의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공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연합의 출범 시기는 2023년 1월 1일이다. 그동안 연합의 장을 선출하고 집행기관과 행정기구, 청사를 마련해야 하며, 각 9명씩, 27명의 연합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규약이 정한 연합의 대상 업무는 각 지자체로부터 위임받은 18개 업무와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3개의 업무로 특정한다.

여기서 각 지자체가 위임한 18개 업무 중, 초광역 문화·관광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에 관한 운영 방향과 철학, 가치에 대해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위임된 처리사무는 3가지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 상호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무, 관광진흥법 제48조 4항에 따른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사무, 관광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등이다. 이중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 상호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무에 대해 먼저 고민했으면 한다.

첫째, 문예진흥법의 한계에 있다. 우리나라 제 법률 중에 가장 누더기 법률이란 오명을 가진 이 법이 가진 위상이 문화 관련 39개 법률 중 최상위 개념이 아닌, 일반 법률의 하나일 뿐이다. 법 제2조 ①의1이 정의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정의를 보면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고전적인 문화정책의 두 축인 전통문화계승발전과 예술지원 정책, 그마저도 예술지원이라는 한 축만이 대상일 수 있다. 더구나 느슨한 형태의 각 “지역 간 상호협의체의 구성, 운영”이라는 제한된 사무는 처음부터 선부른 기대를 가지기엔 난망하다. 당연히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진흥법 같은 지역과 밀접한 법은 물론 문화 관련 제반 법률에 규정된 관련 사업들이 연합의 규약 안에서 통섭 될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위임 사무로는 실효적 성과보다는 향후 방향성과 개선방안을 제기하는 정기적 협의체 기능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정체성이 아직은 통합이 아닌 연합의 단계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 이득이 없는 옥상옥의 장치, 대도시 중심의 또 다른 중심부의 등장 등의 비판이 여기서 시작된다. 그렇다고 통합으로 가기관 그리 만만한 과정 또한 아니다. 연합 형태인 부·울·경 특지단의 초유의 실험이 긍정적이고 가시적 성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느슨한 연합의 과정을 지나면서 다음 단계에 대한 준비를 했으면 한다. 가령, 연합의 준비과정을 소수의 스페셜리스트들이 주도했다면,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는 다양한 제너럴리스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칙과 과정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셋째, 모든 것을 블랙홀로 빨아들이는 수도권이란 현존 괴물의 독점에 대응하고 쟁취하기 위한 동남권 메가시티라는 새로운 중심부를 모색하는 것은 변증법적 지역주의의 대표적 현상임에 틀림없고, 지역 입장에서라도 미룰 수 없는 교육지책이다. 다만, 또 하나의 중심부 권력 혹은 동남권 이기주의가 태동하고, 대도시 중심부에서 밀려 다시 존재할 농산어촌(경남지역)의 소멸위기 등 제기되는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선 비판적 지역주의 관점의 개념이 동남권 메가시티 즉, 부울경 특지단의 경영철학에 자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내용과 방안은 지면상, 다음 기회로 미룬다.

넷째, 문화의 개념과 문화정책의 범위를 고전적인 정책 개념이나 규약이 정한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가둔다면 메가시티에서 문화정책의 역할은 매우 협소하다. 문화는 문화영역만이 아닌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삶 모든 영역에서 작동되는 공통원리이다. 우리는 팬데믹이 가져온 이동제한, 고립과 외로움, 소통단절과 갈등 등으로 점증되는 지역화와 동시에, 급격한 정보시스템의 발달이 가져온 세계화와 정보사회의 병리현상인 극단성을 함께 경험하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지향점이 또 하나의 중심부를 꿈꾸는 변증법적 지역주의에 머물지 않고, 지역이 가진 자산과 특성 곧 문화다양성을 주목하되 결코 지역에 가두지 않고, 세계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와 관통하게 하여 로컬 투 로컬, 글로컬이 가능하게 했던 1970년대 세계 건축계의 혜성들이 추구한 비판적 지역주의의 관점을 추구해 주기를 바란다.

다섯째, 이제 문화정책의 언어 자체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인류세의 끄트머리 시기를 살아가고 있고, 현존 인류의 삶의 트렌드 변화 또한 매우 빠르다. 사회구조변화에의 대응, 문명치유, 문화적 도시재생, 인구감소와 소멸위기, 탈근대적인 삶의 추구, 고립과 외로움의 문제, 동네 지식인과 사회적 여가 등 새롭게 요구되는 언어들은 결국 그 당위성을 다음 부연에 바탕한다. 인간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 즉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만으로는, 앞으로 도래할 인류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 문화일류학자들의 예측대로 유일한 통로가 문화적 방식밖에는 대안이 없다.

작년 가을, 국제심포지움에서 만난 EU의 정책고문과 OECD의 문화 및 지역발전센터장인 피에르 규 샤코는 이런 증언을 해 주었다. “EU, OECD, G20 같은 국제적 연대체는 물론 이에 속한 주요 국가들의 최상위 정책의 중심이 문화정책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닌 급격히 촉진될 일이다.” 이 말을 굳게 믿는다.

“부울경 문화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방안” - 생활문화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

신미영

구포이음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국장

#들어가며

부산 도시의 마을활동가로서 생활문화하면 떠오르는 곳이 목욕탕, 미용실, 골목점포, 근린공원이 다. 오래된 동네의 목욕탕과 미용실은 온갖 정보와 유행이 유포, 회자되는 곳이다. 패션소품에서 건강, 미용식품까지 유통되기도 하고 개인과 개인 네트워크에서 얻은 경험담이 확고한 사실로서 확산되는 장소이다. 선출직 공무원들이 미용실과 목욕탕의 여론에 주목하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최근 도시재생, 문화예술정책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리빙랩¹(Living Lab.)이 유행하고 있다. 서구에서 들어 온 리빙랩(Living Lab.)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목욕탕, 이용원, 미용실, 골목 슈퍼(부식까지 취급하는 골목의 점포)는 이런 기능을 넣기에 딱 적합한 곳이 아닐까하고 생각한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런 생활문화 속 리빙랩이 위축되었지만 일상회복으로 가면 활발하게 본래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작은 생활문화공동체로서 동네의 10년 이상 된 미용실, 이용원, 목욕탕, 골목점포, 근린 공원을 주목하자.

#일상 속 생활문화공동체에 주목하자

오래된 동네, 쇠퇴한 마을에서 10년 이상 활동하며 매스컴이 반영하는 트렌드와는 결이 다른 중장년층의 유행을 이런 장소에서 발견한다. SNS에 기반한 빅데이터에 포착되지 않는 실물의 세계가 바로 이런 장소들이다. 살아있는 이야기가 여과 없이 오고가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타인의 삶을 엿들 수 있는 곳이다. 생활문화 정책이 이런 생생한 장소에서 출발하면 어떨까하고 상상해본다. 구글(Google)에서 생활문화를 검색하면 약 144,000,000개(0.42초)가 뜬다. 그 첫줄에 생활문화를

1 생활 공간속의 실험실이란 뜻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을 실험실로 삼아 다양한 사회 문제의 해법을 찾아보려는 시도를 가리킨다. 개발자 중심이 아닌 사용자 중심으로 리빙랩으로 지정된 지역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 모두가 실험 참여자이자 해법을 찾아내야하는 주체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생활문화라 하면 취미활동을 떠올리는 데 문화라는 것이 넓은 의미에서 우리 삶의 총화이다. 일상생활속의 생활문화를 들여다봐야 한다.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으로 본격적인 생활문화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시민이 일상생활 곳곳에서 생활예술을 자발적으로 생산하고 생활문화를 스스럼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문화예술 활동지원과 환경조성을 위해 전국의 문화재단이 노력하고 있다. 도시 특성과 다양한 시민, 다양한 삶에 기초한 생활문화 활성화, 생활문화시설 활성화 지원, 생활밀착 문화예술활동 지원, 일상문화 탐색 지원, 생활문화 정책 연구 그리고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 등이 그것이다.

더 이상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라고 생각될 만큼 촘촘하게 짜여있다. 그런데 문화접근성이 낮은,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중장년층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듯하다. 찾아오지 않는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듣고 듣고 또 듣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생활문화정책을 담아내었으면 한다. 이미 주민들은 일상에서 작지만 다양한 생활문화공동체를 잘 꾸리고 있다, 다만 그것을 생활문화공동체라고 명명하지 않았을 뿐이다. 문화기획자와 정책기안자들은 이 곳에 주목할 것을 권유한다.

#지워진 세대, 50+남성군을 위한 생활문화정책이 필요하다

생활문화는 개별성, 지역성, 특이성을 가진다. 개인적이고 소비 중심적인 생활문화를 극복하고 생활문화에 지역성이라는 미세한 숨결과 공공성의 가치를 불어 넣는 매개체로서 문화예술교육을 정의한다면 은퇴한 50+세대 남성군에 대한 할당이 모자란다. 이들이 생활문화정책안에 포착되고 있지 않다. 이들은 산업화의 역군으로 개인의 삶을 통째로 직장에 쏟아 붓고 거의 꺾어 버려져 은퇴했다. 물론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은퇴 후 삶을 미리 준비한 지혜로운 그룹이지만 태반은 그냥 때가 되어 현직에서 물러났다. 노후준비는 경제적인 요소만큼이나 문화적인 측면이 중요하다. 삶의 만족도는 문화적인 요소가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와 다양한 관계를 형성해 온 여성들은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잘 열어가고 있다. 반면 사회적 관계에 취약한 '삼식이'가 되지 않기 위해 애쓰는 이들은 지역문화재단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과 연결되지 않고 있다. 그들 가운데 특히 경제적으로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않는 층에 대한 생활문화지원 정책은 절실하다.

이들이 사회와 국가가 부여한 역할에서 놓여나 제2의 인생을 스스로가 선택한 개인의 취향에 기준한 새로운 역할로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들의 다수는 가정내에서 설 자리가 없고, 정서적 심리적으로 병들어있다고 한다. 문제는 그들이 자신의 직면한 문제를 모르고 있고,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술 문화로 대변되는 은퇴한 50+세대에게 그들이 까맣게 있고 있던 자신의 특징과 욕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도권에서 이미 10여전부터 기초단위 50+센터를 중심으로 이 일을 해오고 있으나 부산은 5년 전 부터 움직이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 문화공동체 차원에서 이 부분은 더욱 고민해야 한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관점에서 보면 생활문화는 더 다양하고 풍부해진다

2021년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한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공고문을 보면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사업은 생활문화를 공유하는 생활권 단위 공동체 확산을 통해 지역에서 관계망을 형성하고, 개인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통해 삶의 문화적·사회적 가치 발견하고 확산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일상 속 관계의 문화를 만들고자 준비하고 있는 공동체들의 참여를 부탁하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관점에서 생활권 단위를 나눈다면 현재의 행정구역과 달리 확장된 생활권 단위가 정해질 것이다. 이는 사실상 하나의 생활단위임에도 행정구역에 의해 구분되어 나타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 경계를 물고 있는 부산시와 김해시, 양산시, 울산시는 현재의 행정경계를 넘어서 해양문화권과 낙동강문화권 등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의 생활권으로 이뤄 낸 풍부한 문화자원을 토양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부울경 메가시티는 다양한 생태환경, 기후위기, 문화다양성 등의 가치를 실천하는 거점으로서 하여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가며

부울경을 한 덩어리의 지역 단위로 하여 문화예술생태계를 조성하면 지역의 고유성과 특이성을 가진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을 것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확장된 생활문화단위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재단, 개인과 사회, 그리고 이웃 도시까지 아우르는 확장된 미션과 함께 특히 사람과 사람을 엮고 매개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쪼개고 묶는 게 가능할 것이다. 생활문화에서 강조하는 일상성, 접근성, 지속성, 자발성이 부울경 메가시티로 확장되면 더 살아날 것이다. 시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행복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이웃과 서로 관계하고 활동하며 배우고 삶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전통적인 삶의 터전, 작은 생활문화공동체에 주목할 때 제대로 빛을 발할 것이다.

부울경 메가시티 문화도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자

김은아

밀양시문화도시센터 본부장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은 2019년 3월 ‘부울경 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한 후 2020년 ‘부울경 발전 계획’을 수립해 특별지자체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2022년 4월 18일 정부(행정안전부)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기본 규범인 규약을 승인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심화가 여전히 큰 문제로 자리하고 있음을 볼 때, 기존 지역 균형발전 전략이 사실상 한계에 다달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비수도권의 경우 여전히 공모 사업 등에 있어 비수도권 지자체끼리 각자 경쟁하기 바쁘다. 이는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경쟁력의 큰 저하를 불러오고 있다. 이런 문제의 대안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공동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생활, 경제, 문화, 행정공동체를 형성하여 부산과 울산, 경남이 함께 생활하고 성장하는 초광역 단일권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부울경의 경우 광역버스, 광역철도 등의 광역교통망이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같은 생활권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이 강하며, 산업 연계 또한 긴밀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열악한 광역교통망을 갖고 있지만 부울경 내부 통행을 보여줘 생활권 단일화의 잠재력이 있다. 또한 오랫동안 부울경 지역 현안이었던 식수 문제, 쓰레기 문제를 비롯하여 미세먼지 문제나 신재생에너지사업, 문화도시 등 부울경의 초광역적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현대사회는 경제성장이 중시되던 과거에 비해 삶의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사회화 기능, 욕구충족 기능 등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기능의 문화로 확장되고 있다. 문화는 그 자체로서 행복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도 움직일 수 있으며, 모든 시민은 문화를 향유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가 있다. 모든 계층의 시민이 활발한 문화활동을 진행한다면 문화가 사회적 자

본의 확대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문화의 사회적 가치도 형성될 것이다. 특히 문화도시사업 추진에 있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자리매김한 문화의 다양성은 이제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부울경 메가시티에서의 문화도시사업은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다.

문화도시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주민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조성·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자치형 정책사업이다. 문화도시는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현재 부울경에는 3개의 법정 문화도시(1차 부산 영도구, 2차 경남 김해시, 3차 경남 밀양시)와 4차 법정문화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3개의 예비문화도시(울산광역시, 부산 북구, 경남 창원시) 그리고 5차 예비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다수의 지자체가 있다. 경남의 경우, 문화도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2020년 ‘경남 문화도시 네트워크(김해시, 밀양시, 창원시, 진주시, 경남문화예술진흥원)’를 결성하여 문화도시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에서도 이와 같은 문화도시 상생협의체 구조를 갖추었으면 한다.

문화도시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간, 지자체별 수행주체 간 상호협력과 상생을 위한 공동 활동이 필요하다. 문화도시 준비기간과 예비기간, 본도시로 이어지는 3년 간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문화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사업과 그 지역만의 특성에 맞춰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문화도시 상생기관으로 협력적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지자체 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화도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진된 공동체적 사업의 성과로 양성된 문화도시 전문인력을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부울경 타도시와 연결하게 된다면 전문인력의 부재로 문화도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문화도시사업 진입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

2022년 5차 문화도시 예비도시 선정을 끝으로 문화도시 1.0이 종료되고 2023년 차기 정부에서 문화도시 2.0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한다. 새로운 정부의 문화도시 계획이 아직 나와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부울경 메가시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개별 지자체들이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부울경 전체의 문화적 가치와 시민의 문화적 삶의 회복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상생, 협력적 구조를 갖추어 갈 수 있도록 부울경 메가시티 문화도시 상생협의체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부울경 문화도시 상생협의체의 구성원은 지역 간의 차이를 갖지 않는 개인, 지역주민, 단체 등 누구든지 의지와 열정이 있다면 이를 수 있다. 함께 이루어진 문화도시 상생협의체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넘어 부울경 경제의 발전까지 나아갈 수 있으며, 이러한 지역 간 연계 활동을 통하여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고 활발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다. 다채롭고 활발한 활동의 문화공동체가 많아지면 부울경의 경제는 빠르게 움직이고 지역주민들과 꾸준한 문화활동 또한 이어갈 수 있다. 변화한 사회환경에 따라 지역주민의 선호하는 문화콘텐츠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소외지역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으며,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현안을 지역의 단체뿐만 아니라 타지역과 함께 공유해 풀어간다면 상호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모색될 것이라 생각된다. 지역문화라고 해서 타도시와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역

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갈등을 서로의 입장에서 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문화도시 2.0 추진을 위한 의견 수렴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 법정문화도시에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인 도시들의 문화도시사업 추진 5년 이후 지원 체계에 대한 논의와 법정문화도시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외된 군 단위 소규모 지자체의 문화도시 진입 문제의 개선(문화마을 사업의 부활) 등과 같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역할과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 문화도시 상생협의체가 지역문화 생태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삶의 양식, 문화 다양성이 존중되는 성장경로의 필요충분조건이 되어야 한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지역균형발전과 삶의 안전망에 도움이 되어서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넘어서는 메가시티의 규모를 갖춘 삶터가 되기를 바란다.

ICT기술로 연대하는 부울경 문화공동체

김덕은

징검다리커뮤니케이션 대표

ICT 기술로 연대하는 부울경 문화공동체! 어떤 분은 문화까지도 기술이 점령한다고 불쾌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미 SNS를 통해 다른 이들과 연대하고 내 행사를 알리며, 심지어 미술가들은 디지털 아트로 본인의 작품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옹고 그림을 떠나 우리는 이미 그 세계에 속해 있으며 누군가는 거기서 무궁무진한 창조성을 발견하고 있다. 필자는 대학 졸업 후 약 10년 동안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 종사해 왔다. 그러다 2015년부터 개인적 바람으로 ICT 기술을 문화예술 분야에 접목하는 시도를 해왔다. 2017년부터는 관련 회사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그 일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문화예술과 ICT이라는 주제로 고민을 해왔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다. 이를 통해 본 ICT기술과 문화예술의 결합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문화공동체를 추진하는데도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개인적으로 문화의 세 가지 주체를 꼽는다면 '사람', '공간',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문화에서 활동은 주로 이벤트-행사로 나타난다. 공연, 전시, 축제, 체험, 강연, 포럼 등이다. 이런 문화 활동 정보 즉, 행사정보를 공유한다면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행사정보를 알면 그 행사에 관련된 사람(단체), 공간정보는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부·울·경 지역의 행사정보를 모니터링 해보면 부·울·경 지역에 어떤 문화 활동가(단체)가 있고 어떤 공간이 있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연대하고 싶은 단체를 찾을 수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활동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활동 정보는 문화기획자에게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또 다른 영감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드러내고 공유하고 연대하는 것이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 드러내고 공유하는 것에 가장 특화된 것이 ICT 기술이다.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부·울·경 지역의 문화행사 정보를 폭넓게 공유할 수 있다면, 연대할 수 있는 부·울·경 지역의 문화단

체를 찾기도 쉬워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울·경 지역의 문화공간을 찾기도 쉬워진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부산의 지역 행사정보를 공유하는 앱이나 웹사이트를 만들려는 시도는 몇 번 있었지만, 아직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서비스는 마땅히 없다. 지역 콘텐츠를 다루는 SNS 채널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SNS는 지역성이 아니라 관계성이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지역의 관점에서 행사정보를 찾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울·경 문화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부·울·경의 문화행사정보를 공유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작업은 민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앱이나 웹 같은 ICT 기술은 대중의 피드백을 먹고 점점 진화하는 생물 같은 것이다. 정해진 기간에 용역비만 받고 끝내는 공공사업방식의 추진 보다는 오랜 기간 애정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민간기업이나 단체가 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공공은 이런 민간기업·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적극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다.

두 번째 ‘공간’에 대해서 살펴보자. 공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만나고 여기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간은 문화공동체 형성에 있어 가장 초석이 되는 요소이다.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많을수록 전체 공동체를 구성하는 단위 공동체의 숫자도 늘어날 수 있다. 공간도 우선은 드러내고 공유해야 한다. 즉,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부분도 앞서 언급했듯이 앱이나 웹 같은 ICT 기술이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최근에는 내 근처의 공간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 원하는 목적에 맞는 공간정보를 손쉽게 찾고 예약할 수도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아직은 부·울·경 지역의 공간정보가 수도권 대비 그리 많이 수집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최근에는 오프라인 공간을 온라인 3D VR 공간으로 복제해주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현실 속 실제 공간을 3차원 촬영하여 디지털 쌍둥이 공간으로 만드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개념의 기술들이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면 오프라인 공간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상에서 공간을 걸어보고 둘러볼 수 있다. 심지어 원하는 부분의 치수도 잴 수 있고 의자, 테이블, 현수막, 무대를 가상으로 설치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문화행사 기획자나 관람객으로서는 가능한 한 좀 더 상세한 공간의 특성을 알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문화행사 기획자는 상세한 공간의 구조를 알고 싶고, 동선까지도 점검해보고 싶어 한다. 그리고 현수막이나 의자, 테이블 등을 어떻게 배치할지도 점검해보고 싶어 한다. 관객은 어떤 자리가 좋을지? 그 자리에서 무대가 어떻게 보일지도 너무 궁금하다. 노약자와 장애인 분들은 이런 정보가 더더욱 중요하다. 장애인 주차장 위치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차장으로부터 휠체어 등을 타고 행사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동 경로를 어떻게 되는지? 지금처럼 홈페이지의 사진 몇 장 만으로는 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처럼 부·울·경 지역의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공간정보에 대한 공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나아가 공간정보를 단순한 텍스트나 이미지가 아닌 3D VR 등으로 좀 더 상세하고 직관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공동체를 만드는데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공간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메타버스는

가상공간이긴 하지만 실제 공간에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있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친근함과 소속감을 준다. 이런 면이 기존 문자채팅, 화상채팅과는 또 다른 매력을 주고 여기에 MZ세대들이 열광하고 있다. 요즘에는 축구 경기도 메타버스 공간에 같이 모여서 본다. 이는 기존 세대가 축구 경기를 맥줏집에서 함께 보는 것과 기본적으로 같은 욕구다. 메타버스 화면도 핸드폰으로 보는데 그 화면 속의 더 작은 TV로 축구중계를 본다. 하니 언뜻 이해가 안 되지만, 중계화면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문화예술의 특징을 생각하면 앞으로 메타버스의 활용은 무궁무진할 것 같다.

마지막 '사람'에 대해 살펴보자. 문화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나와 협업하고 연대할 수 있는 다른 문화활동가(단체)를 찾는 것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심지어 최근에는 예술가가 엔지니어와 협력하는 사례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예술의 방향이 정적 예술에서 점점 쌍방향-디지털 예술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은 이미 SNS를 통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앞서 언급한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기존에 나와 있는 메타버스 앱을 활용하여 부울경 문화공동체에 관한 세미나, 포럼, 모임 등을 개최하면 좋을 것 같다. 앞서 언급했듯이 메타버스는 참여자 간의 친근감과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술이다. 메타버스에서 포럼이나 모임을 한다면 엔지니어, 마케터와 같은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참여도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 문화에 관련된 사람, 공간, 활동이 ICT 기술과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기존에 생각하는 예술, 기존에 생각하는 연대방식, 기존에 생각하던 공간개념. 기술은 절대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 발전할 수 없다. 최근 나오는 메타버스, VR, AR 기술들도 결국은 인간이 다른 누군가와 함께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싶은 본성을 잘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각광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부·울·경 문화공동체를 꿈꾸고 추진하는 많은 분께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부울경 문화공동체, 어떻게 가능할까?

김태훈

작가,
지역스토리텔링연구소장

지난 4월 19일 대한민국에서 인구 800만 명의 '부울경 특별연합'이라는 전대미문의 메가시티가 탄생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019년말 "권역별 메가시티로 수도권 공화국을 극복하자"고 주장한지 3년 째 되는 해에 일궈낸 구체적인 성과다. '지방소멸'이란 말이 등장한 것은 2014년이다. 일본에서 발표된 '마스다 보고서'가 출처인데, 그는 2040년까지 인구소멸 가능성이 높은 기초단체 869곳(전체 1,741곳)을 꼽았다. 마스다는 "도쿄로 집중되는 극점사회는 인구의 블랙홀이 되어 결국 전체 인구가 급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의 수도권 인구 비중은 35.2%(2020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50.2%(2020년)보다 15%나 적다. 그만큼 대한민국 상황이 심각하고, 그래서 메가시티 정책은 특단의 대책인 동시에 공여지책인 측면도 없지 않다.

문화정체성의 기본, 스토리 공동체

메가시티의 기본 개념은 '또 하나의 수도권'이다. 부산을 서울 삼고 울산을 인천 삼고 경남을 경기 삼는 일종의 미래링 전략으로, 수도권 못지 않은 중력을 만들어내자는 것이다. 관건은 중력을 일으킬 구심점이다. 행정력을 발동하기 위한 구심점은 이번에 만들어졌다. 경제력을 일으키기 위한 구심점은 부울경 전역에 포진하고 있는 산업기지들을 잘 조직하고 혁신하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문화력, 즉 소프트파워다. '우리는 한 지역'이라는 정서적 공감대, 문화적인 정체성을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까? 가능할까?

당장 메가시티를 부르는 이름부터 지역마다 다르다. 부산은 '부울경', 울산은 '울부경', 경남은 '경부울'이라고 한다. 서울과 수도권은, 헌법재판소가 관습법 개념을 꺼내들 정도로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서울 중심의 '기억 자산'이 존재하지만, 부울경 지역은 깨끗한 백지와 다를 바가 없다. 길게 보되 흐트러지지 않을 통합의 방향성이 절실하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은 2월 28일 영국언론 <가디언>에 “푸틴은 왜 이미 전쟁에서 지고 있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거기에서 유발 하라리는 푸틴이 전투에선 이길지 몰라도 전쟁에선 패배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유는 ‘스토리’ 때문이다. 전쟁과 함께 우크라이나인들은 당장은 물론 수십 년에 걸쳐 미래 세대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쌓아 가고 있다. 전쟁의 공포에도 수도를 떠나지 않는 대통령, 경고하는 러시아 군함에 “꺼져!”를 외치고 장렬하게 전사한 스네이크섬 초병, 맨몸으로 전차의 행진을 막은 시골 할머니 등은 우크라이나가 하나의 나라로 결집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접착제라는 것이다.

그는 칼럼에서 “국가는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기반으로 세워진다”고 정의했다. 이 정의는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층위의 공동체에도 고스란히 적용할 수 있다. 메가시티 또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본은 ‘스토리’일 수밖에 없다. 부울경 메가시티 시민이라면 모를 수 없는, 또 가슴 깊이 간직할 공통의 스토리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없거나 부족하다면 어떻게 창조해내야 할지 고민하고, 시도하고, 반복해야 한다.

사실 연합체를 만들 때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이 대단한 발견은 아니다. 12년 전 마산, 창원, 진해 등 기초단체 세 곳을 모아 출범한 통합창원시도 공통의 스토리를 만들고 싶어 했다. 이를 위해 당시 정부는 프로야구단을 유치했고(스포츠토토), 세종 때 좌상을 지낸 최윤덕 장상의 동상(역사 인물)을 시청 앞에 세웠으며, 유명 작곡가에게 의뢰해 <우리는>이라는 노래를 만들어 시민에게 보급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야구장 신축 문제로 세 도시 사이에 갈등만 키웠고, 최윤덕 장상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밑바닥 수준이며, 그 특별한 노래의 유튜브 조회수는 11년이 다 돼가지만 3,000회를 겨우 넘겼다.

스토리 공동체는 당위성만 갖고 구호를 외친다고 형성되는 게 아니다.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의 머리가 아닌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연결된 투명한 시대에 사람 마음 얻기가 쉬울 수 없다. 그만큼 비전이 뚜렷해야 하고 투자도 뒷받침돼야 하며 실행 과정도 섬세하고 전략적이어야 한다. 어느날 갑자기 한지붕 아래 살게 된 부산, 울산, 경남은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공유하면서 공통의 기억과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부울경 특별연합은 어디에서 통합의 스토리텔링을 찾아야 할까? 세 지역 모두 경상남도라는 뿌리를 갖고 있지만 부산은 1963년 직할시로 분리됐고, 울산은 1997년에 광역시로 독립했다. 행정적인 분리도 장애물이지만 각 지역 생활권이 따로 형성됐다는 사실은 치명적인 약점이다.

○ 수도권이라는 빌런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스토리텔링이 흥미를 끌려면 선악구도가 명확해야 하는데, 부울경 특별연합에게는 수도권이라는 확실한 빌런(악당)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중요한 기회요인이다. 원래 민족정체성이란 것도 내부의 원인과 역량보다는 이민족의 침략 같은 외부요인에 빚진 경우가 많다. 우리가 아는 유럽의 민족들 상당수가 9세기부터 시작된 바이킹의 침략 시대 때 형성된 것은 우연이 아니

다. 따라서 수도권권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집요하게 천착하면서 부울경의 대응 노력을 선명하게 부각하는 스토리텔링은 초창기 특별연합의 정서를 묶어주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요컨대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과 대립각을 세우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 이야기와 영웅을 탄생시키는 플롯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좋은 작품이 나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플롯”이라고 말했다. 아무리 훌륭한 인물을 등장시켜도 플롯이 잘못 구성되면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없다는 말이다. 도시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하지만 그 성격이 일상적일 때 새로운 이야기나 영웅이 등장하지는 않는다. 새 영웅을 탄생시키려면 특별한 플롯이 필요하다. 방송국이 오디션 포맷을 선호하는 이유는 영웅을 탄생시키는 플롯이기 때문이다. 메가시티 안에서 그런 플롯들을 다양하게 설계하고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스포츠’는 아직 굽어보지 않은 복권이다. 수많은 시민들이 체육센터와 운동장에서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어떤 영웅도, 스토리도 탄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에 플롯을 적용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장이라도 시정부가 앞장서서 선수와 경기 기록을 관리하고 종목별 리그를 체계적으로 정비해보자. 어느 스포츠클럽이 부울경에서 최고인지 겨루는 그림을 만들자. 합을 겨루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영웅과 감동의 스토리들이 쏟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플롯을 스포츠는 외에도 문화예술 분야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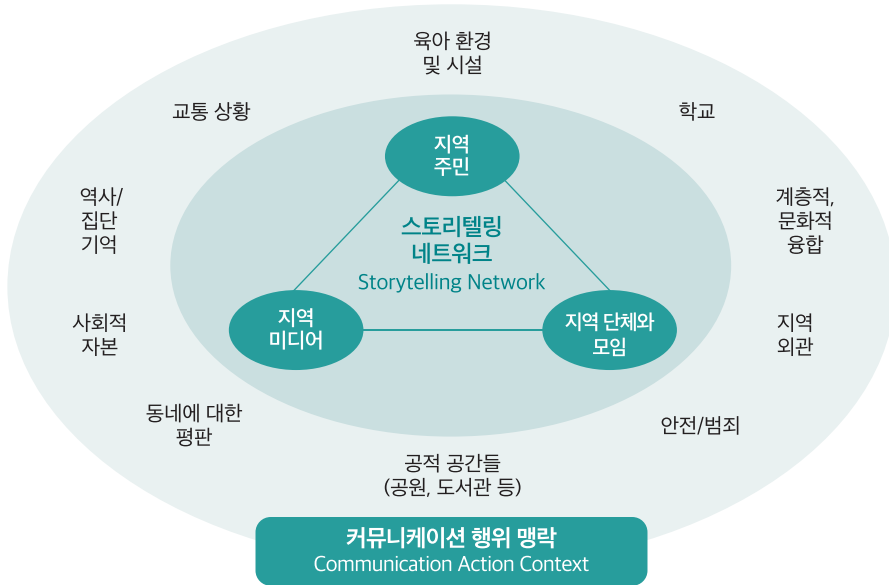
○ 결국 사람 이야기

사람들은 ‘사람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즐거워 한다. 하루 이야기하는 시간 중 75%를 사람 이야기에 할애하고, 그 중에 절반은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한다는 흥미로운 조사 결과도 있다. 결국 영웅이든 악당이든 권역 내 시민들이 함께 기억할 인물이 얼마나 있느냐가 스토리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 된다. 문화정체성 관점에서 보자면, 메가시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지역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가가 관건이다. 지역 내에서 스타가 많이 등장해야 한다. 앞서 제시한 ‘도시 플롯’은 스타들이 탄생하는 등용문 역할을 할 수 있다. 추가로 발굴해야 할 사람 이야기 ‘광산’이 있다. 바로 지역 정치와 시사 분야다. 전국 규모의 정치와 시사 인물이야기는 차고 넘치는데 지역 차원의 정치와 시사 스토리텔링은 빈곤하기 짝이 없다. 기초 의원과 광역 의원의 활약, 그리고 이해 관계를 둘러싼 세력간 경쟁 등이 지역민의 일상 속에서 화제가 될 수 있게 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스토리 확산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하부구조

스토리를 만드는 활동 못지 않게 그것을 의미있게 확산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현재 대한민국 대부분 지역의 커뮤니케이션 체계는 서울과는 더없이 밀착됐지만, 그곳 내부는 더없이 성긴 구조를 갖고 있다. 서울 연남동 이야기는 웬만한 지역 사람들이 다 알아도 울산 태화동 이야기는 울산시민 말고는 알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이 구조를 획기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지역에서 이야기 콘텐츠를 생산하는 노력을 아무리 기울여도 그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커뮤니케이션 하부구조 이론(Communication Infrastructure Theory)’을 도시 차원에 적용해보고 평가와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김용찬 교수가 개발한 이 이론은 도시의 커뮤니케이션 하부 구조에 따라 도시 공동체의 스토리텔링 활동이 영향을 받고, 그 결과 시민의 참여도가 달라진다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시민이 도시 공동체에 소속감과 결속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하부구조가 건강하게 구축되고, 그 속에서 스토리텔링 활동이 활발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뜻이다.



[도시 지역 커뮤니티와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김용찬)]

커뮤니케이션 하부구조는 도로나 아파트처럼 하루 아침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는다.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처럼 테크놀로지가 발달한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다. 사실 커뮤니케이션 하부구조는 다분히 문화적인 결과물이다. 오랫동안 공동체에 축적되고 내재된 역사와 규범이 커뮤니케이션 하부구조의 골간을 이룬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시들은 안타깝게도 그 하부구조가 중앙 권력이나 시장 권력에 의해 훼손된 채로 장기간 방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회복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권으로 쏠리는 중력이 워낙 강해 지역 내 하부구조는 불완전하고 부실하다고 평가해야 할 것 같다.

메가시티 ‘부울경 특별연합’은 커뮤니케이션 하부구조를 밑바닥부터 새롭게 설계하고 건설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세 개 지자체 주민들의 생각과 비전을 한 방향으로 통합하고, 각 지역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열리고 있다. 문화정체성은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공산품이 아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의 스토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 일정한 방향으로 차곡차곡 쌓였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문화정체성은 결과가 아닌 ‘여정’으로 접근해야 한다. 세 개 지자체 주민들의 공감대를 확대하는 여정, 공통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여정, 공통의 기억을 축적하는 여정이어야 한다.

2021 부산시민 문화예술활동 트렌드 조사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는 지난 2021년, 부산시민의 심층적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2021 부산시민 문화예술활동 트렌드 조사>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만 15세 이상 부산시민 2,000명과 문화관심집단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부산시민의 삶에 문화예술이 차지하는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문화예술활동 양상을 담아냈다. 이번 '정책보고서 톡아보기' 코너에서는, 동 연구의 주요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문화예술 즐기는 기회가 많아질수록, 정서적으로 건강해지는 우리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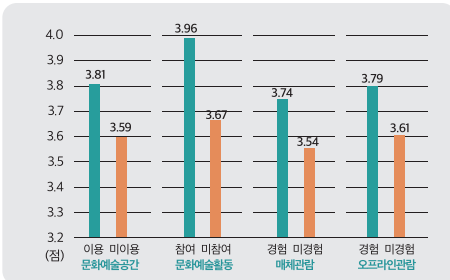
- 문화예술관람과 활동 참여 경험, 문화예술공간 이용 경험이 많을수록,

>여가생활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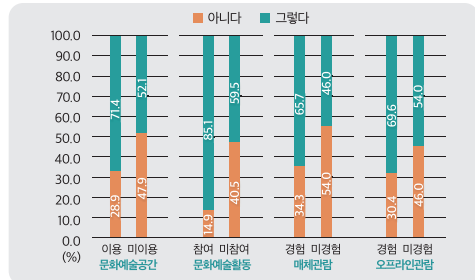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활동을 선호하고, 새로운 문화예술공간/콘텐츠를 탐방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사귄 수 있는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한 문화예술활동 제한으로 우울감을 많이 느꼈고,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생긴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여가생활 만족도 (6점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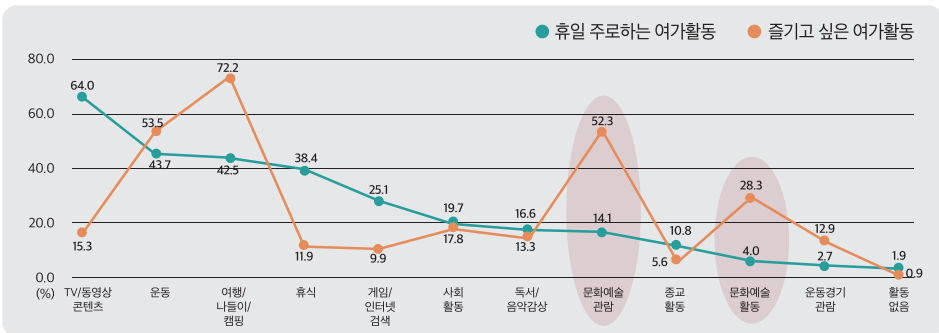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부산시민이 즐기고 싶은 여가활동, “문화예술”

- 현재 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즐기고 싶은 여가활동은

> '여행/나들이/캠핑'에 이어 '문화예술관람'과 '문화예술활동'이 상위권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산시민들의 문화예술향유 기회 보장을 위해서는?

- 부산지역 동서 간 문화격차 해결

> 이용 가능한 문화예술공간의 충분성 및 참여 가능한 거주지 인근 문화예술행사/프로그램의 충분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기장권/동래권, 강서권 거주자 간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관계없이 부산시민 모두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분포 불균형 개선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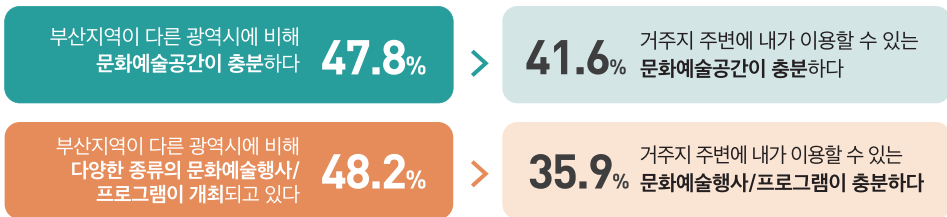
- 부산 문화예술 정보 취득 경로 홍보

> 문화예술관람·활동·공간이용 시 발생하는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관련정보 부족'이 1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웹사이트, SNS, 주변인 등 문화예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경로와 관련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권에서 문화예술을 경험하는 '15분 거리 문화도시' 조성

- '슬세권' 문화예술활동, 공간의 중요성

> 부산지역 전체 문화환경에 비해, 거주지 주변 문화환경 평가의 긍정응답률은 다소 낮은 편으로 조사되어, 생활권에서 문화예술을 즐기는 환경 조성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민 '모두'가 즐기는 문화예술 :

베리어프리 환경 조성, 세대별 맞춤형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 응답자 중

- > 장애인 : 최근 1년 이내 공공도서관, 서점, 복합문화공간 이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 3040대 :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경우, 여가시간이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 70세↑ : 타 연령대에 비해 문화예술행사/프로그램 정보 취득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 > 15~19세 : 부산지역에서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이 부족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21 부산시민 문화예술활동 트렌드 조사>의 보다 자세한 연구 내용은 부산문화재단 전자아카이브 (<http://e-archive.bs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2022. 03. - 04.

부산문화재단

- **광안대교 바라보며 바닷 빛 조선통신사 축제 즐긴다(4.11)**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미연, 이하 재단)은 오는 5월 5일부터 8일까지 총 4일간 옹호별빛공원에서 조선통신사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평화의 바람'이라는 주제로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지원하며, 시민들이 참여를 통해 조선통신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과 즐길 거리들로 채워진다.

- **[문화도시 부산 어젠다] Restart-up! 부산, 부산문화(4.14)**

재단은 부산MBC와 협력하여 4월 20일 오후 2시, F1963 석천홀에서 '다시 새로운 부산문화의 바람이 분다'라는 주제로 [문화도시 부산 어젠다] 「Restart-up! 부산, 부산문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문화예술교육 총서 3, 4권 발간(4.20)**

재단이 과학기술과 문화예술교육의 융합, 공간과 문화예술교육의 의미 등을 통해 들여다본 문화예술교육 총서 3, 4권을 발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로 지역발전을 선도할 제5차 문화도시를 찾습니다(3.3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3월 31일(목)부터 6월 30일(목)까지 문화적 기반과 역량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5차 문화도시'를 공모한다.

-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문화예술계 현장 의견 수렴(4.19)**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과 함께 4월 21일(목),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공개토론회'를 열고,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 **지역 주민들과 더욱 밀접한 공공시설과 생활 공간에서 미술품을 전시하세요(3.18)**

문체부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문영호)와 함께 3월 18일(금)부터 4월 18일(월)까지 전국의 공공시설, 국민안심병원을 포함한 공공·의료시설과 작은미술관, 사회적경제기업 등 지역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에서 미술품을 전시할 민간단체를 모집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국민과 함께 나누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기록(4.11)**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가능한 대국민 투표는 <코로나19, 예술로 기록> 사업에 참여한 974건의 작품 가운데 전문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 총 50편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국민 투표는 이번 사업에 참여한 작품 가운데 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후대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 정신을 알리고 예술이 주는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대구문화재단

- **대구문화재단, 지역연극·뮤지컬 콘텐츠 발굴과 극작가 양성을 위한 연극·뮤지컬 대본 공모(4.20)**

(재)대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승익)은 오는 5월 16일(월)부터 '연극·뮤지컬 대본 공모'를 진행한다. '연극·뮤지컬 대본 공모'는 미 발표 순수 창작 작품 공모를 통해 지역의 우수 작품 제작 기반을 조성하고, 무대화가 가능한 지역 공연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인천문화재단

- **인천 가치와 문화가 담긴 공연콘텐츠 개발 사업 <음악낭독극 축제> 개최(3.17)**

(재)인천문화재단 트라이보울에서는 3월 18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인천 가치와 문화가 담긴 공연콘텐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음악낭독극 축제>를 진행한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주민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문화우물' 마을 공동체 지원(4.11)**

경남문화예술진흥원(원장 김영덕)은 2022년 문화우물사업에 참여할 마을 공동체를 오는 4월 26일(화)까지 모집한다. 문화우물 사업은 지역의 실질적 수요에 기반 하여 주민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권 문화공동체를 발굴·육성하는 사업이다.

서울문화재단

- **서울문화재단 -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업무 협약 체결(4.19)**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은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이사장 박인자)와 파킨슨 환우를 위한 무용 프로그램 <댄스 포 피디(Dance for PD)>의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19일(화)에 체결했다.

전남문화재단

- **사회적 협력예술 프로젝트 '바람의 노래' 추진(4.6)**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선출)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한 "2022년 아르코 공공예술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3억 6천만 원을 지원받아 해양, 환경,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전 지구적 담론을 제기하는 공공 예술 활동을 전남 완도군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부울경 문화공동체와 엑스포

16호

2022. 05. - 06.

column 칼럼	부울경 문화공동체와 엑스포 이봉순 (사)한국PCO협회장, (주)리컨벤션 대표
issue 이슈 1	메가 이벤트에서 지역 예술인의 역할 조봉권 국제신문 기획에디터, 부국장
issue 이슈 2	예술 현장에서 바라는 문화정책 신용철 시골 큐레이터
issue 이슈 3	관광·마이스에서 바라보는 지역 예술인의 역할 강석호 마이스부산 대표
문화+관광	예술과 관광의 시너지효과 창출 임 호 (주)핑크로더 문화·관광콘텐츠연구소장
정책보고서 토크아보기	지역분권 관점에서의 주요국가 예술지원 정책 분석 연구 김수정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2022. 05. - 06.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16호 | 2022. 05.-06.

엑스포와 같은 메가 이벤트가 개최될 때, 지역 예술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또, 지역 예술인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번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16호에서는 '부울경 문화공동체와 엑스포'를 주제로 예술, 관광, 그리고 연대의 접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Contents

- | | | | |
|----|---|----|---|
| 55 | column 칼럼
부울경 문화공동체와 엑스포
이봉순 (사)한국PCO협회장, (주)리컨벤션 대표 | 64 | issue 이슈 3
관광-마이스에서 바라보는
지역 예술인의 역할
강석호 마이스부산 대표 |
| 58 | issue 이슈 1
메가 이벤트에서 지역 예술인의 역할
- 창의-공감이 대세인 세상에 걸맞은 전략부터
조봉권 국제신문 기획에디터, 부국장 | 67 | 문화+관광
예술과 관광의 시너지효과 창출
임 호 (주)핑크로더 문화·관광콘텐츠연구소장 |
| 61 | issue 이슈 2
예술 현장에서 바라는 문화정책
- 고리-집-길로 이어진 가온
신용철 시골 큐레이터 | 70 | 정책보고서 톨아보기
지역분권 관점에서의
주요국가 예술지원 정책 분석 연구
김수정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
| | | 74 |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

부울경 문화공동체와 엑스포

이 봉 순

(사)한국PCO협회장, (주)리컨벤션 대표

#2030부산세계박람회

2030년 5월 1일 우리 부산은 새로운 방식의 방문객을 맞으며 새로운 역사를 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50년대 6·25 전쟁으로 인한 피난민들이 부산에 집중되었던 그 당시 1949년 부산의 인구는 47만 명이었으나 6.25전쟁 이후 1951년 84만 명으로, 거의 배로 증가했다고 한다. 전쟁 피난민으로 거주민의 배가 부산을 대규모로 찾았다면 2030년 5월 1일 부산월드엑스포로 현재 부산 거주민 333만 명의 15배 넘는 5,050만 명 방문객이 약 200개국으로 부터 184일간 부산을 찾게 된다.

총사업비 4조 9천억 원, 경제 파급 생산유발효과 43조 원, 부가가치 18조 원, 취업유발 50만 명으로 부산은 그야말로 지구촌 신천지로 새로운 부를 이루며 우리 도시의 존재 가치를 세계속에 드러내는 문을 열게 된다.

엑스포 유치를 위해 부산시는 2014년부터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19년 5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가 국가사업으로 확정되었고, 윤석열 현정부의 국정 과제 채택으로 정부와 재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돼 부산시의 유치 노력에 날개를 달게 됐다.

부산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이탈리아 로마 등 3개 도시가 2030 세계박람회 유치 후보도시로 지난 6월 20-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BIE 총회에서 2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했다. 최종 유치 확정이 되기까지 아직 난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오징어 게임’ 주연배우 이정재와 가상인간 ‘로지’(ROZY)에 이어 세계 최정상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030부산엑스포 홍보대사로 나서 힘을 보태게 되었다.

만약 유치에 성공한다면 한국 최초로 등록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며, 엑스포로 부산은 미래에 대해 다양한 호재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부산시가 2030부산월드엑스포와 가덕신

공항, 북항 재개발 등 3개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함께 묶여진 사실상의 공동사업으로, 엑스포 유치 가 확정되면 다함께 이행되어 그야말로 부산은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방문하기 좋은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중동, 북아프리카 및 남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개최된 세계박람회인 두바이 엑스포가 지난 3월 31일 폐막식을 끝으로 6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대침체의 직격탄을 맞아 부도 직전까지 내몰렸던 두바이가 엑스포로 재도약과 발전의 계기로 삼아, ‘마음의 연결, 미래 창조’(Connecting Minds, Creating the Future) 주제 하에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192개국 2천만 명 참관객 돌파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었다. 북한을 제외하면 유엔(UN) 가입 기준 정회원국(193개국)이 모두 참여한 셈이다. 엑스포를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국제 행사로 꼽는 이유다.

‘지상 최대의 쇼’로 불렸던 2020 두바이 엑스포가 성대한 팡파르를 울리며 200개가 넘는 파빌리온을 운영, 각자의 혁신 기술과 문화, 예술, 전시 등을 선보였다. 매일 펼쳐지는 60개의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200개가 넘는 F&B 레스토랑에서 제공하는 세계 각국의 음식은 6개월간 풍성하게 이어졌다. 코로나 상황에도 중동국가의 문화 예술 관광적 가치를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평을 갖게 되었다.



두바이 엑스포의 중심, 개회식과 폐막식을 비롯한 각종 공연, 이벤트등이 열리는 주요 행사장. 알 와슬 프라자



떨어지는 빗방울 미디어아트와 우산을 활용하여 친환경 미래를 보여주는 네덜란드관 퍼포먼스

#부울경 지역의 문화유산과 엑스포의 결합 가능성

엑스포로 부산을 방문하는 5,050만 명 관람객들을 위하여 부울경 지역의 산업 경쟁력과 문화 예술을 홍보하면서 다양한 관광적 체험과 콘텐츠들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부울경 문화공동체의 재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부울경의 문화 콘텐츠의 현실은 수도권에 비해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콘텐츠 산업백서(2020.9 발간)에 따르면, 전국 콘텐츠산업 매출액의 지역별 분포 결과 2018년 기준 총 119조 원 중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이 약 104.5조 원으로 87.4%에 달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산업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별 특성화된 장르나 지역소재를 활용한 문화산업에서 다양한 성공사례가 있음에도, 현행 지원사업의 다수가 공모를 통한 단발적 지원사업이기에 연속적으로 발전하기 힘든 구조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현재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이 전국 골고루 성장되도록 지원하는 법률안도 정책도 필요하지만 평소 지역 문화에 대한 경쟁력과 관리가 스스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도 엑스포로 부울경 문화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준비하느냐에 따라 상생과 역동적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부울경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역사 예술 문화콘텐츠 성장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이들을 어떻게 역동적으로 묶어 방문객에게 경험치를 높일 수 있느냐 부분은 지역적으로 가까이 있기에 동선적으로 유리하다. 방문객들이 유럽이나 미국 심지어 남미에서 올 때 하루를 꼬박 걸려 부산에 오게 된다. 부산에 왔을 때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매력적인 문화 예술과 관광적 명소들을 부울경 지역을 확장해서 경험한다면, 지역경제 유발 효과와 함께 무엇보다도 문화 예술을 통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일 수가 있을 것이다.

한국의 대중문화가 해외에서 유행해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한류의 영향력 범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넓어지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아시아를 넘어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등으로 확장되었고, 콘텐츠도 대중문화를 넘어 순수문화예술, 음식, 한글 등으로 확대되면서 한류는 또 다른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역경쟁력이 대한민국 경쟁력이 되는 시대

부울경 지역의 문화유산이 새롭게 확대되고 있는 한류도, 그리고 시대 화두가 되고 있는 엑스포의 결합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진정성 있는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경쟁력이 대한민국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다. 지역의 문화분권 촉진 차원에서도 지역별로 특색을 갖춘 핵심장르와 요소를 집중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어서도 엑스포와 결합이 충실하게 이루어진다면 동남권 메가 시티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울경 문화공동체가 각자가 갖는 역사, 문화 예술 관광자원이 풍요롭게 조화를 이루고 소위 '우리의 것'이 전 세계에서도 통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부울경 지역의 특색 있는 전통 예술이 문화공동체로서 합작품이 탄생되어 엑스포 유치단계에서도 홍보 효과를 높이고 엑스포 개최 현장에서도 지구촌 방문객들에게 하나 되는 교감을 완성하며 부울경 지역의 아름다움과 전통문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날을 행복하게 그려본다.

메가 이벤트에서 지역 예술인의 역할 - 창의·공감이 대세인 세상에 걸맞은 전략부터

조 봉 권

국제신문 기획에디터, 부국장

예측하는 일은 어렵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관해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때는 관련 있는 사례를 찾아 참고하는 방법을 흔히들 쓴다. 새로운 각도에서 보려는 시선을 갖추고 핵심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는 써봄직한 방법이다.

부산은 2030 월드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 부산이 재도약해 세계 최고 수준 도시 반열에 들자면, 월드엑스포 같은 메가 이벤트 유치는 긴요한 과제라고 부산시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산시가 유치 경쟁에 일찌감치 뛰어든 월드엑스포는 '등록' 박람회다. '인정' 박람회였던 2012년 여수 엑스포보다 훨씬 크다. 많은 부산 시민의 바람대로 부산이 월드엑스포를 유치하는 데 성공한다면, 이와 관련된 많은 일은 대체로 '세계 정상급' '최첨단' '월드 베스트' 수준이나 기준에서 이뤄질 것이다.

동시에 명백한 '부산 지역 이벤트'로서 부산이 감당하는 기획·참여·책임의 영역이 주어질 것이다. 그중 부산 문화·예술계가 맡아야 할 일이 있을 것이다. 월드엑스포는 전 세계가 한 도시에 운집해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뽐내며 소통을 모색하고 이익도 얻기 위해 치열하게 뛰는 현장이다. 그런 자리에 예술을 중심으로 한 창의 콘텐츠, '한류'로 상징되는 문화 콘텐츠, 예술·문화를 활용하는 첨단 콘텐츠가 없을 수 없다.

당신이라면, 창의·문화·첨단 콘텐츠가 예술적으로 결합해 새로운 아름다움의 세계를 보여주지 못하는 월드엑스포에 비싼 참가비 내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내서 가겠는가? 아마 '그 돈이면 BTS 콘서트나 블랙핑크 공연 티켓 구입 경쟁에 뛰어들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부산의 '지역문화'가 바로 그런 분야에 참여해 상당한 역할을 당당히 할 것이라는 기대가 월드엑스포 유치를 바라는 시민의 마음속에는 있다. '부산시'가 사활을 걸고 유치에 나선 '부산'월드엑스포이기 때문이다. 이런 기획이 없다면 만들어야 하고 적다면 늘려야 한다.

메가 이벤트와 지역 예술이 결합한 사례를 몇 가지 떠올려보자. 그 원조는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1988년 서울올림픽이다. 이 두 행사는 한국이 세계 무대 중심부로 나아간, 상징적 메가 이벤트였다. 한국 곳곳에서 관련 행사가 펼쳐졌다. 여기에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과 같은 해 한일 월드컵을 연계해 살필 수도 있다.

꽤 오랜 세월 부산지역 대학 무용학과 교수나 춤 예술가 명함과 공연 책자에는 ‘올림픽·아시안게임 개·폐막식 안무’와 관련한 경력이 새겨져 있었다. 이때의 경험은 메가 이벤트가 펼쳐짐에 따라 지역 예술계에도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대규모 기획에 도전하고 실행할 기회가 올 수 있음을 각인시켰다.

공연예술계를 중심으로 살피면, 대형 작품이 창작돼 시민을 만났고 그 이후 재공연되기도 했다.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공식 문화축전 작품으로 ‘허황후’가 제작됐다. 이 작품은 2009년 ‘가야 허황후’라는 대형 집체극으로 재공연됐다. 2003~2004년에는 부산시립예술단 6개 단체가 연합공연 형태로 대거 참여한 ‘즐거워라 무릉도원’이 여러 차례 공연돼 꽤 인기를 끌었다. 2015년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가 동참한 종합예술공연 ‘부산 맥 아리랑’은 2012년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었다. 메가 이벤트와 연계된 대규모 예술행사는 이것 말고도 다수 시도됐다.

그 의미와 성과에 관해서는 높은 점수가 나오지 않는 게 사실이다. 나는 메가 이벤트를 계기로 대형 기획이 이뤄지고 큰 작품이 만들어져 재공연까지 이어진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대체로 그것은 부대 행사 성격을 못 벗어났고, 일회성 시도(재공연을 포함한다 해도)에 그쳤으며, 지역 예술 생태계 변화나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 했다.

한 공연 전문가는 “그렇게 메가 이벤트를 계기로 태어난 작품 가운데 시민 곁에 오래 살아남았거나 지역 예술계에 강력한 충격을 준 작품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하고 되물었다.

나는 ‘즐거워라 무릉도원’은 시립예술단의 대형 연합공연이 가능하다는 전례를 남겼고 작품 만들새도 좋아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여기지만, 대체로 이 공연 예술가의 비판에 동의했다.

공연예술계 쪽 사례에 치우친 한계는 있지만, 지금까지 살핀 사례를 종합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메가 이벤트가 열리면, 그와 연계된 새로운 기회, 계기가 지역 예술계에도 열린다. 그러나 이 계기를 지역 예술계, 예술인이 활용해 뜻 있는 성과를 거두는 것은 별개 문제이자 과제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첫째는 역시 전략적 사고와 전략적 접근이다. 아마 월드엑스포를 부산이 유치한다고 해도 주최·주관 측이 ‘지역 예술계’를 ‘알아서’ 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국가·세계 차원 행사임을 강조하면서 ‘지역이 손가락 엮을 행사가 아니다’는 식의 반응이 나올 것도 예상해야 한다. 월드엑스포에서는 분명히 예술·문화 분야의 참여 공간이 생길 텐데, ‘첨단·최신·대규모’를 앞세워 자원이 풍부한 중앙(결국, 서울이란 애기다)에서 기획·실행·인력·장비의 핵심이 모두 올 수 있다.

이런 흐름이 대두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부대 행사’에 ‘찬조 출연’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아마 철학적 대결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시대는 지역·로컬·구체성·사람·창의력·참여가 생명력인 시대라는 점을 바탕으로 월드엑스포에 관한 전략적 사유와 접근이 지역 예술계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정재와 BTS가 나서야 할 장면이 있고, 지역 예술계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으므로 조화·수용·개방 태도를 지니되 지역 시선도 필요하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월드엑스포 자체에 관해 지역 예술계가 상당히 깊은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지금 세상에 과연 예술·문화가 뿜어내는 창의력·공감력을 활용하지 않고 성공할 문화적 성격의 메가 이벤트가 있겠는가? 극히 드물 것이다. 이각규 박람회연구회장이 국제신문에 연재 중인 '엑스포 세대교체 전환점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따르면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같은 최첨단·초대형 플랫폼 기업은 엑스포에 별 관심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고 엑스포 자체가 시시해지지는 않겠지만, 왜 이런 변화가 생기며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학습하거나 꺾지 않으면 지역 예술계는 지긋지긋하게 겪어온 '수동태의 함정'에 또 빠질 것이다.

셋째, 주체를 어떤 식으로 형성할지는 아직 잘 알 수 없지만(부산문화재단이 주도할지 예술단체가 맡을지 연구·교육 쪽에서 나설지 등), 기획 단계부터 결합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판을 다 짠 뒤에는 결합이나 참여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를 종합해 결론을 내리면, 지역 예술계가 지역 예술 생태계 활성화·변화·발전을 위해 월드 엑스포 같은 메가 이벤트의 어떤 점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어떤 개인 또는 특정 단체에 이익이 돌아갈 그림이 나오느냐, 지역 예술계 전체의 상승과 지역 발전으로 연계되는 전략을 갖느냐에 따라 '설득력과 실행력'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껏 이뤄졌던 메가 이벤트+지역 예술 결합 사례를 살피는 방법도 쓸 수 있을 것이다.

예술 현장에서 바라는 문화정책 - 고리-집-길로 이어진 가온

신용철
시골 큐레이터

1. 시골큐레이터

나는 스스로 시골큐레이터라고 부른다. 내가 일하는 곳은 부산 민주공원이고 맡은 자리는 학예실장이고 하는 일은 학예연구와 전시기획이다. 사람들은 묻는다. 대도시 부산에서 일하는 큐레이터가 왜 시골큐레이터인가? 나는 되묻는다. 한국은 서울 빼고는 다 시골 아닌가? 나는 '시골큐레이터'란 말로 서울을 도발하고, 부산을 도발하고, 서울바라기를 도발하고, 부산바라기를 도발한다. '시골큐레이터'라는 말 그물은 모든 중심주의(centricism)를 도발하는 말뚝이 채찍이다.

올해 이슈페이퍼의 테마 '부울경 메가시티와 엑스포', 이번호 주제 '부울경 문화공동체와 엑스포'라는 맥락을 가늠하기 위해서 지난 이슈페이퍼를 훑어보았다.

시골큐레이터에게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말은 자못 거북하다. 시골큐레이터가 바라는 바는 모든 시골끼리의 고른 연대이다. 문턱은 있지만 문과 길로 이어져 있는 집들, 높고 낮은 언덕이 갖가지 눈길로 만나는 들판 같은 그런 것이다. 연대의 방향이 '메가시티'를 지향하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걱정은 '변종 법적 지역주의'를 지양하고 '비판적 지역주의' 관점을 강조하는 차재근의 생각(<이슈페이퍼> 15호)과 이어져 있다.

풍물굿을 이르는 '전라좌도굿/전라우도굿', 수군 통제영을 일컫는 '좌수영/우수영'이라는 말밭으로 말길을 열어 본다. '좌/우'의 이항대립으로 빚어지는 방위의 위상학은 무엇인가? 우수영은 지금의 호남 지역, 좌수영은 지금의 영남 지역이다. 지도에서 보면 우수영이 좌(왼쪽)이고, 좌수영이 우(오른쪽)이다. 지도를 몰라서 그랬을까? 우리는 이미 대동여지도를 그렸던 민족이다. 지도 위에서 좌우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좌도/우도, 좌수영/우수영이라는 쓰임새에서 왜 굳이 좌우를 뒤바꾼 것일까?

여기에서 좌우를 가르는 위상의 시점은 한성(서울)이다. 서울에서 남도를 바라보았을 때, 지도 위의 방위는 뒤집힌다. 하나의 중앙과 나머지 지방으로 나누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의 중앙을 바탕으로 모든 지방을 위계화하는 구조이다. 나는 이런 '봉건제적 시각의 위상학'이 여전히 우리 문화를 바라보는 낡은

구조틀이라고 생각한다. ‘근대적 시각의 위상학’으로 우리 문화를 바라보는 구조틀을 마련하지 못한 우리에게 근대문화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에게 아직 근대는 있지만 없다. ‘시골큐레이터’라는 말 그물은 모든 근대적 시각 체계를 직조하는 베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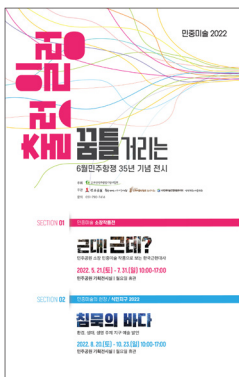
2. 고리에 고리를 무는 고리

시골큐레이터는 연대의 아이콘이다. 연대하는 이는 듣되 고개를 빠뜨리고 들어다 들어야 하고, 보되 눈손을 뺀어 만져야 하며, 말되 코를 묻고 말아야 한다. 사람이 고리이고 집이고 길이다. 공간, 기관, 정책은 ‘고리-잡-길’을 이어주는 ‘바람-햇빛-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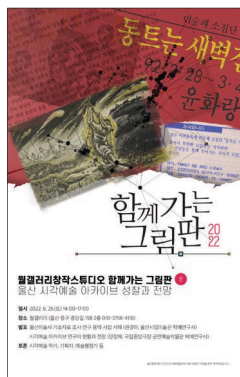
‘부울경 메가시티 형성을 위한 공공 문화기관의 방향성’을 제시한 남송우의 글(<이슈페이퍼> 14호)은 ‘바람-햇빛-비’의 틀과 쓰임새를 갈무리하는 좋은 글이다. 다만 울산 예술과 활발하게 연대를 하고 있는 나로서는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오류가 있어 바로잡으려 한다. “울산에는 고래문화재단, 울주문화재단(준비 중) 정도가 설립되어 있는 상태이다”라는 진술은 글이 실린 2022년 현재 사실이 아니다. 울산 문화재단(2016), 울주문화재단(2020)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고쳐주기 바란다.

시골큐레이터는 제 스스로가 플랫폼이고 허브이다. 원심력과 구심력이 퍼져나가고 모이는 고리이다. 나는 시골큐레이터로서 모든 예술기획을 이런 바탕에서 설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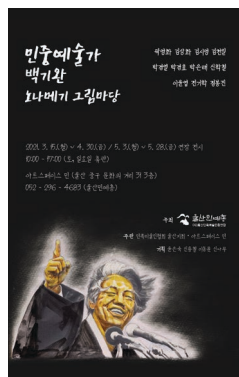
민중공원은 민중미술 거점 미술관이다. 거점이지만 중심은 아니다. 열린 거점으로서 플랫폼이고 허브이다. 2013년 시작한 ‘민중미술전’은 ‘민중미술’이란 미적 태도를 바탕으로 계층의 연대, 장르의 연대, 지역의 연대를 꾀하였다. 올해 10년이 되었다. 지역의 연대는 ‘민중미술의 현장’이란 섹션 안에 펼쳤다. 지역미술 담론을 나누는 프로젝트 ‘함께가는 그림판’은 2020년 시작하여 올해로 3년째 하고 있다. 하나하나의 전시를 계층, 장르, 지역 연대의 마음으로 만들면 시각의 들판은 갖가지 눈길이 만나 낯선 언덕을 이룬다.



민중미술 2020 포스터



함께가는그림판 11
울산시각예술.아카이브.
성찰.전망



민중예술가 백기완
노나메기 그림마당



울산시각예술프로젝트
- 정봉진

3. 고고학자의 마음 : 만지는 걸, 더듬는 커

영화 <잉글리쉬 페이스트>(The English Patient, 1996) 첫 시퀀스. 고고학자는 고고학 발굴 현장에 서 다쳐 움직일 수 없는 연인을 어두운 동굴에 눕힌 채 돌아온다는 약속을 하고 길을 떠났다 전란에 휩싸여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영화를 본 이후 나는 지금까지 그 장면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캄캄한 동굴에 움직이지 못하고 혼자 누워 연인을 기다리다 끝내 홀로 죽어가는 사람이 아프다.

우리의 미적 근대는 봉건제와 식민지 근대화 어름에서 홀로 어둔 동굴에 버려진 채 아직 묻혀 있다. 예술 마당을 여는 사람은 고고학자의 마음으로 예술의 씨줄과 날줄을 가능해야 한다. 동시대 예술 현장의 결을 온몸으로 매만져야 한다. 동굴의 속통을 더듬어 예술의 커를 캐내야 한다. 결과 커는 예술사를 균형 있게 직조하는 씨실과 날실이다. 우리시대 예술 마당을 만드는 설계는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없는 가온, 어디든 가온, 때론 가온, 열린 가온

그리하여 가온이다. 본디 가온은 없다. 가온이 없어져야 가온이 산다. 어디든 가온이다. 모든 것이 가온이다. 가온은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나 있다. 늘 가온이지 않다. 때때로 가온이고 때때로 가온이 아니다. 어즈버 열린 가온이다. 모든 가온이 서로 다르지만 서로 열려 있어 어디로 들어가도 나올 수 있는 고리-집-길이다. 우리는 그 사이에 걸려 있다. 우리는 이어져 있다.

관광·마이스에서 바라보는 지역 예술인의 역할

강석호
마이스부산 대표

관광마이스에 영감을 주는 문화예술의 실험정신

이 글에서 관광마이스의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둘 것인지 먼저 언급하고자 한다. 관광사업 범위에서 주로 해외로 나가는 아웃바운드 보다 부산으로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인바운드 중심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물론, 국내 관광객 유치도 포함이다. 그리고, 마이스도 마찬가지로 부산에서 전시컨벤션 행사를 개최하는 관점에서 볼려고 한다. 따라서, 부산만의 대표적인 마이스 기획행사를 발굴하고, 국제적으로 권위있고 규모가 큰 행사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문화예술인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관광마이스는 지역경제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비즈니스 성격이 강하다. 이런 부분을 보다 감성적으로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삶의 매력을 만들어주며 도시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지역의 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한다.

6월에 처음 열린 부산거리예술축제 흔들거리에서 100명이 동시에 북을 치는 퍼포먼스는 관광과 연계해서 역동적인 도시홍보와 여행상품의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사전에 서로 공유와 논의를 통해 협력모델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부산 거리예술축제 '흔들거리' 모습

관광마이스는 손익계산에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지속하기 어렵다. 따라서, 매우 현실적이고 수익이 나는 방향으로 경영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그런 부분만 강조하게 되면 시장수요를 이끄는 혁신이 더디게 되고, 결국 시장경쟁력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기에서 지역 문화예술인의 역할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는 실험정신이다. 반복적이고 보수적인 경제논리 사이에서 전혀 다른 배경과 기획의도에 의한 새로운 문화적인 실험이나 예술 작품은 그 도시의 고정관념을 넘어, 끊임없는 자극과 생각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자극제가 결국 시장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변화의 시대에 맞는 답을 찾아가는 비즈니스 역량을 성장하게 한다. 그 과정에서 지역의 관광마이스 산업도 글로벌 무대에서 뒤처지지 않고, 우리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지역의 매력적인 문화 콘텐츠나 예술 작품으로 그 지역의 관광산업과 마이스산업이 크게 성장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소소한 문화예술도 필요하지만, 국내에서 전국적인 이슈를 만들어내고, 국제적으로 부산이라는 도시를 주목하게 하는 문화예술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잘 만든 예술 작품 하나가 있거나, 또는 상징적인 건물이 있는 경우, 그리고, 그런 예술가의 고향이라는 이유만으로 도시 인지도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 관광마이스 산업이 자연스럽게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해외 도시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지 않은가?

끝으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만큼 국제관계를 폭넓게 만들어 가기에 좋은 분야가 있을까? 하지만, 일회성 교류에 그쳐서는 안된다. 부산국제영화제가 단순히 연차가 오래되어 자연스럽게 국제적인 위상을 인정받고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다. 관계자들이 끊임없이 해외 전문가들과 네트워킹 할려고 노력하고, 오랜 기간동안 공을 들여 내 사람으로 만들 정도로 노력한 결과이다. 그만큼 연속성 있고 지속적인 글로벌 네트워킹 노력과 실행이 필요하다. 그런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이 있어야 앞으로 국제적인 비즈니스와 관광마이스 분야에서 하나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당연히,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같은 프로젝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몇 가지 제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이것은 지역의 작가 개인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다. 예전에는 창업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스타트업이라고 부르고 있듯이, 문화예술 영역에서도 젊은 혁신과 세대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지역 스타트업의 수가 적은 양의 한계,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 질의 문제가 있듯이, 문화예술 분야도 비슷한 고민이 있다. 탄탄한 기본기를 갖추고, 글로벌 무대에서 그리고, 지역의 소재를 가지고 또는 그런 공간에서 주목 받는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토대를 하루빨리 만들어 장기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부산상공회의소 중심의 선배 기업들이 후배 스타트업들과 함께 상생하는 노력으로 99℃ 부산 스타트업 데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 행사를 계기로 많은 변화가 시작되기도 했다.

마무리 하자면, 지역 예술인들의 보다 창의적인 실험정신을 통해 관광마이스 산업뿐만 아니라, 정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해본다. 예술은 경계가 없다.



99℃ 부산 스타트업 데이 모습

예술과 관광의 시너지효과 창출

임호

(주)핑크로더 문화·관광콘텐츠연구소장

미술관 아트투어, 공연 및 예술축제 관람, 예술마을 탐방, 건축기행 등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예술관광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는 자연경관과 역사자원을 주된 관광자원으로 한 대중관광 패턴에서 벗어나고 있는 새로운 관광 흐름을 반영한다. 대규모 단체관광에서 소규모 또는 개별관광이 증가하고 있고 기존에 알려진 관광지보다 숨은 관광지를 찾아가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개별적 취향의 충족과 지역적 가치를 추구하는 관광욕구가 강한 경향도 확인된다.

예술관광은 예술시설, 예술유산 집적지, 예술콘텐츠 등 예술자원을 대상으로 방문을 통해 관람, 체험, 학습하는 행태의 관광이라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문화관광의 하위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문화관광과는 관광대상, 동기, 목적 등에 차이가 있다. 문화관광은 타 문화권의 문화유산을 감상하고 생활문화를 체험하는 것이라면, 예술관광은 인간의 표현력과 노력에 의해 창조되는 예술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있다. 즉, 예술관광은 예술자원을 대상으로 예술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예술향유를 목적으로 행하는 관광이다.

예술관광 이전에도 예술자원을 관광의 대상물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예술향유를 주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관광과정에 부속된 관광자원으로 예술자원이 인식되는데 불과하였다. 그러나 예술관광이 성립되는 것은 예술향유가 관광의 주제가 되고 예술자원이 관광대상물이 되는 흐름이 본격화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서 예술과 관광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예술은 관광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해주고, 관광은 예술에 향유자를 연결시켜줌으로써 예술의 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지역적 관점에서 보면, 지역의 예술자원은 지역 고유의 정체성, 문화적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분야로 관광상품에 활력을 주고 관광지에 대한 매력도를 증가시킨다. 무엇보다도 예술관광의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유입 확대는 지역의 산업과 경제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술관광 활성화가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Guggenheim Museum), 영국 게이츠헤드의 발틱현대미술센터(Baltic Centre for Contemporary Art)는 물론 국내에서도 부산의 F1963, 마산 창동예술촌 등 수많은 예술시설 및 공간들이 예술에 기반한 도시재생 성과를 창출하면서 관광객을 모으고 있다.

지역의 예술시설과 스토리를 활용한 문화예술축제 역시 예술관광의 오래된 대상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뉴욕의 뮤지엄 마일 페스티벌(Museum Mile Festival), 영국 에딘버러 국제 페스티벌(Edinburgh International Festival)은 익히 세계적인 관광매력을 얻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한 국내의 영화제, 통영국제음악제, 거창국제연극제 등도 국내외의 예술관광객을 개최지역으로 모으고 있다.

그리고 예술가들이 집단적으로 거주 및 활동하고 있는 예술마을들도 예술관광의 대상지로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경기도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 부산 원도심문화창작공간 또따또가, 태국 치앙마이 반캉왓(Bann Kang Wat) 예술인 마을 등도 예술관광 대상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두고 볼 때 부산에도 예술관광자원으로 활용성 높은 예술시설이나 공간들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문화예술에 기반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곳에는 예술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잠재력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시설이나 지역에서 예술관광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예술가들은 창작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에 관광객이 개입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 아울러 예술시설에서도 이미지와 시설물 관리를 위해 관광자원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술자원의 관광화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서툴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관광자가 얻고자 하는 관광욕구를 충족시켜줄 예술공연 및 전시프로그램이나 부가서비스의 기획과 관광네트워크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공연, 전시, 축제와 관련한 정보를 관광기업에 제공하고, 관광기업은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예술관광 프로그램을 기획한 다음 예술시설이나 단체와 협업을 진행함으로써 상호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예술자원 및 시설 간 연계를 통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예술과 관광의 시너지효과는 더욱 증대된다. 영화제 기간에 미술관의 특별전시를 기획하고 관광객들에게 유인을 제공한다면 훨씬 풍성한 예술관광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접근이 굳이 부산지역 안에서만 충족될 필요는 없다. 부·울·경 지역의 예술자원 간 연계를 통한 관광프로그램의 기획도 충분히 가능하다.

최근 부산·울산·경남을 연결하는 메가시티 구축을 향한 노력이 산업과 교통인프라 조성에 집중되는 반면 문화예술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관심은 보기 어렵다. 지역 간 관광협력을 모색하는 가운데 예술관광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6.1지방선거가 지나면서 울산과 경남의 광역단체장은 부·울·경 광역자치단체 협력에 대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예술과 관광은 행정적 경계를 쉽게 넘어서는 본질적인 특성을 내재하고 있다. 또한 예술과 관광의 결합이 지역에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는 점을 익히 알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만큼은 원활한 상호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실질적인 교류협력프로그램의 실행이 부·울·경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촉진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대된다.

예술을 예술이라는 틀 안에만 가둘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보다 자유롭게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예술분야 종사자의 개방적인 관광마인드가 필요하다. 동시에 관광분야 종사자들도 지역의 예술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관광프로그램의 기획에 창의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와 개최를 위해서도 예술과 관광의 시너지효과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예술과 관광의 가치를 모두 높이고, 부산이 세계적인 문화예술도시로 발돋움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지역분권 관점에서의 주요국가 예술지원 정책 분석 연구¹⁾

김수정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1990년대 후반 이후, 국내 문화예술정책에서 지역분권에 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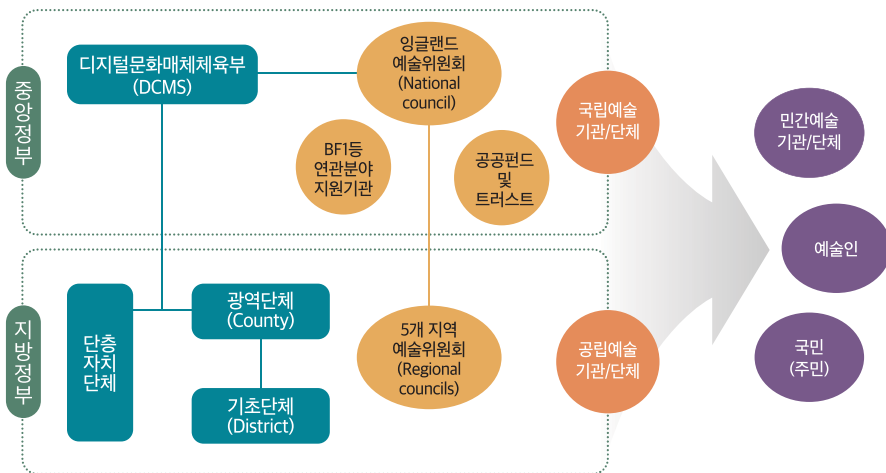
<국내 정부별 예술지원정책 영역에서의 지역분권 정책>

정부	노무현 정부 (2003~2007)	이명박 정부 (2008~2012)	박근혜 정부 (2013~2016)	문재인 정부 (2017~2022)
추진 사항	「창의한국」, 「지역문화 활성화 대책」수립	예술지원방식 개선 및 지역협력형 사업 확대 추진	「지역문화 진흥법 제정」,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 수립·발표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 ※ 지역문화분권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 설정 ● 지역문화 고유성 유지·발전 ● 지역 내 문화자치 량 위한 기반조성 ●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체계 마련 등

그러나 지역분권의제에 관한 논의는 문재인 정부 이후 가속화 되었지만 예술정책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추진된 사항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지역분권 관점에서의 주요국가 예술지원 정책 분석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는 영국, 프랑스, 미국을 중심으로 예술지원정책 체계와 분권화 사례를 분석하며, 국내 예술지원정책 영역에서의 지역분권을 위한 의제와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그 중 지역분권 관점에서 3개국의 예술지원정책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소개해본다.

[영국] 합리성과 협업을 강조하는 신사의 나라

<영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예술지원정책 추진체계>



- ▶ 기초단체 지향 정책 추진
- ▶ 중앙-광역-기초 간 합리적 역할 분담

중앙	광역
국가를 대표하는 창작물에 관한 권한·책임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험에 관한 권한·책임
광역	기초
광역 내 기초단체 간 균형발전 및 브랜딩	주민들의 향유 사업 담당

- ▶ 예술위원회 중심의 명확하고 단순한 예술지원 정책 구조
- ▶ 협업생산 모델의 중요성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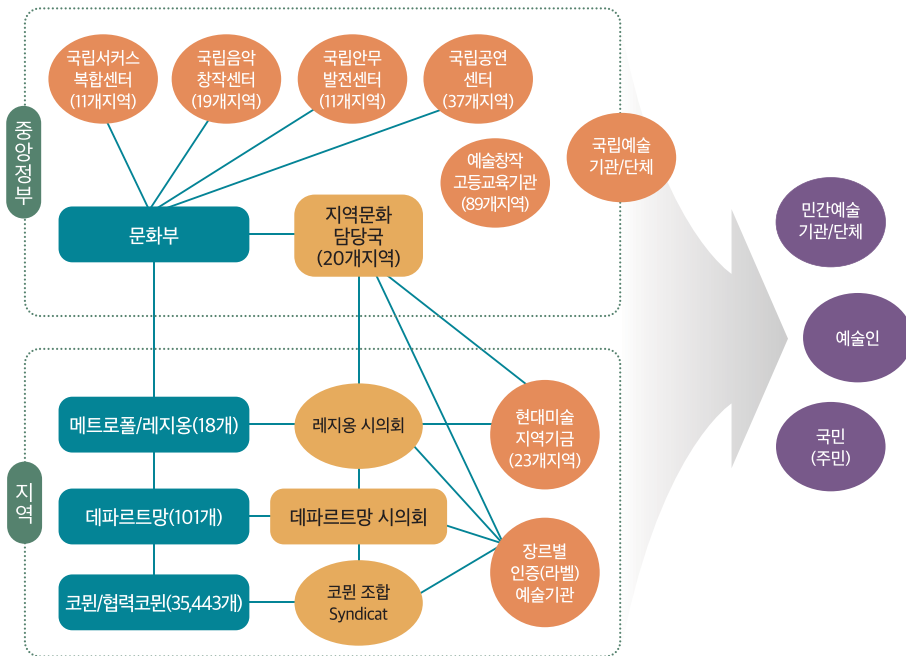
<문화를 활용한 지역발전 성공사례들의 공통점²⁾>

커뮤니티 참여	강력한 파트너십
성공 경험을 활용한 펀딩 기회 확보	핵심 그룹 및 지역 내 옹호자의 존재

- ▶ 지방정부연합(LGA, Local Government Association)의 명확한 역할
 - ☞ 문화분야 정기 조사 실시, 지역 현장 활동전문가 중심의 담론 확산 역할

[프랑스] 수평적 협력관계를 통해 꽃피우는 문화분권

<프랑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예술지원 정책 추진체계>



- ▶ 지역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기초지자체 '코뮌(Commune)'의 역할 강화
- ▶ 문화협정 등 중앙-지역 간 수평적 협력관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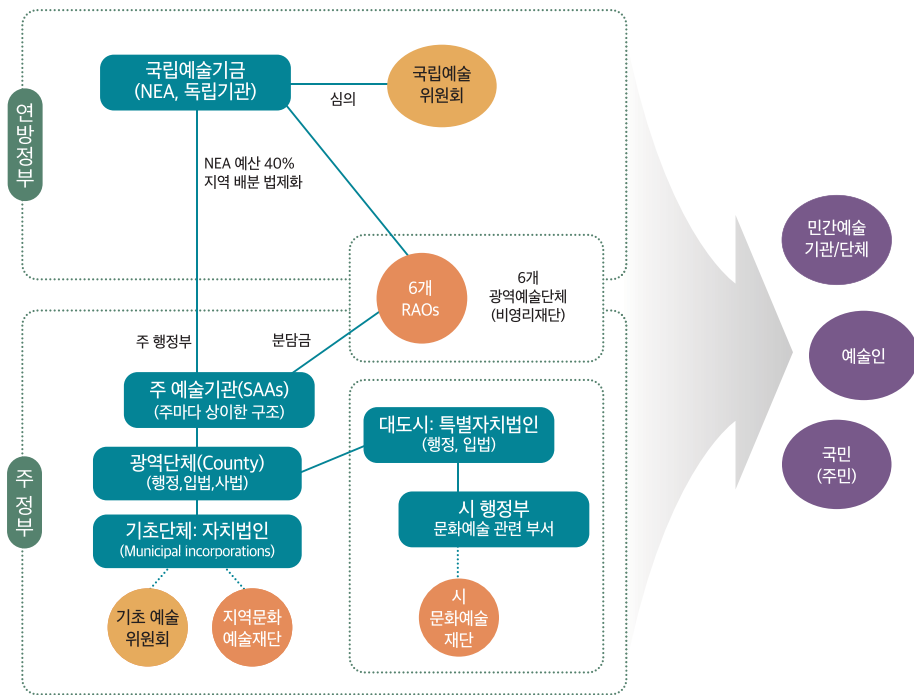
2 People, culture, place: The role of culture in placemaking(LGA&CLOA, 2017)

- ▶ 지자체와 공공문화기관 간 협력을 조직화 한 공공단체, EPCC (Établissement public de coopération culturelle, 문화협력공공법인³⁾) 설립
- ▶ 지역에 대한 자율과 책임 부여로 지역 자치 역량 강화
- ▶ 평가를 통한 지역 예술지원정책 관리

[미국] 창의적인 시도는 “지역” 중심으로!

<미국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예술지원정책 추진체계>

지역문화담당국(DRAC)은 중앙 문화부의 시책을 단순히 지자체에 재배분하는 것이 아닌, 프랑스 문화분권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동력으로 지자체와 협약에 의한 수평적 관계 유지!



- ▶ 국립예술기금(NEA) 연 예산의 40%는 파트너십 기금으로 법제화
 - ☞ 해당 예산은 56개주 주립예술진흥원 및 6개 광역예술기구에 경쟁 통해 배분토록 법제화
- ▶ 국립-광역-지역 예술기관 간 긴밀한 협력
 - ☞ 주정부 예술위원회(SSAs, State Arts Agencies)를 중심으로 국립예술기금(NEA), 광역예술기구 (RAOs, Regional Arts Organizations), 지역정부 예술진흥기구(Local Art Agency) 등과 긴밀하게 연결
- ▶ 지역정부의 독자적, 혁신적 문화예술 정책 실험 시도

3 지자체와 공공문화기관 간 협력을 조직화 한 공공단체로, 지역 중요 문화시설 및 공공문화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

영국, 프랑스, 미국으로 알아보는 '문화분권'의 공통 핵심은?

- ▶ 기초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
- ▶ 지자체간 연합과 연대, 협력체의 역할을 강화
- ▶ 중앙-지자체 간 협약 등으로
 - 지역의 자치 역량을 키우고, 수평적 관계를 형성
 - 중앙-지방, 광역-기초 간 역할을 명확화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2022. 05. - 06.

부산문화재단

- **부산다운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를 만든다(5.11.)**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미연)은 올해 부산문화예술교육 인력양성 프로그램인 「BS ARTE 아카데미」운영계획을 밝혔다. BS ARTE 아카데미는 대상별 연수과정과 특화 연수과정으로 나눠 5월부터 연중 진행된다. 대상별 연수과정은 문화예술교육 예비인력, 기획자, 매개자 등을 중심으로 예비인력연수, 기초-심화-전문가 과정으로 세분화하고, 교육행정가는 연수프로그램 형태로 추진한다.
- **문화다양성을 위하여, '위(We)하는 마음'(5.16.)**
재단은 5월 20일부터 12일간,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위하는 마음>를 개최했다. 무지개 다리 사업 운영 10년차를 맞이하여 문화다양성의 주요 키워드 '환대, 사회갈등완화, 공존, 포용' 4가지 색션으로 행사를 구성하였다.
-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비치코밍 투게더' 행사 개최(5.25.)**
재단은 5월부터 8월까지 생활문화 가치확산 캠페인 '2022 부울경 비치코밍 투게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힘을 합쳐 공동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인권리보장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두 번째 문화예술계 현장 의견수렴(5.1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5월 24일(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두 번째 공청회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홀에서 개최하고, 동시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교육의 회복과 전환 논한다(5.17.)**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5월 23일(월)부터 29일(일)까지 '제11회 세계 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 **공예의 기원 '땅'을 주제로 밀라노에서 한국 공예 선보인다(5.30.)**
문체부는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이탈리아 '2022 밀라노 디자인 위크' 기간인 6월 7일(화)부터 12일(일)까지 펠트리넬리(Fondazione Feltrinelli)에서 '2022 밀라노 한국공예전'을 개최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예술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문화 예술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5.3.)**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이하 예술위)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이강현)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문화예술 인재 양성에 힘을 모은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연계 운영 △문화예술 교육 활동을 위한 누리집(문화예술, 내 일) 활용 등을 추진한다.
- **예술위, 데이터 활용 예술 지평 넓힌다(5.23)**
예술위는 데이터와 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한 예술작품 창작 및 확산을 매개하여 지속가능한 창작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2022년 예술-데이터 매칭 지원사업의 2단계로 예술인(단체) 대상 지원신청을 6월 13일 18시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0년 문화예술활동 현황조사 결과 발표(5.25.)**
예술위는 5월 25일, 2020년 한 해 동안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국악, 양악, 연극, 무용) 등 6개 분야별 창작 발표 활동 현황과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수록한 「2021 문예연감(2020년 기준)」을 발간하였다. 시스템(NCAS)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구문화재단

- **대구예술발전소X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교류전시 <다파티스트 외전>(5.9.)**
(재)대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승익)이 운영하는 대구예술발전소는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와의 교류전시 <다파티스 (DAF+ARTIST) 외전(外傳)>을 5월 20일(금)부터 6월 12일(일)까지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1층 및 지하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인천문화재단

- **시민이 기획자다! <2022 우주인 프로젝트> 5월 공모(5.20.)**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구)은 시민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2022 우주인 프로젝트> 5월 공모를 5월 18일(수)부터 같은 달 26일(목)까지 '인천 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받고 있다.
- **인천문화재단, <창작과 삶의 리듬> 라운드 테이블 개최(6.2.)**
재단은 오는 6월 8일(수)과 15일(수), 양일에 걸쳐 예술인의 자녀 돌봄과 창작의 균형을 모색하는 온라인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어려운 저작권 시원하게 해결하세요!(5.26.)**
경상남도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원장 김영덕)은 도내 저작권 관리에 취약한 중소기업, 1인기업, 예비창업자, 문화예술 및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저작권 분쟁 예방과 역량 강화를 위해 2022년에도 경남저작권서비스센터를 운영한다.

전남문화재단

- **전남 문화예술 다시 활력을! (포스트 코로나, 아트 붐업 지원사업)(5.19.)**
전남문화재단은 전남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준비금 지원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아트 붐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부울경 지역 문화예술 교류

17호

2022. 07. - 08.

column 칼럼	부울경 지역 예술인과 도모의 순간을 쌓아가기 원항미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issue 이슈 1	부울경 지역 축제 간 콘텐츠 교류 방안 조원희 부산국제영화제 커뮤니티비프 운영위원장
issue 이슈 2	부울경 권역 문예회관 콘텐츠의 제작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고민해볼 점 서중호 김해문화재단 공연기획팀장
issue 이슈 3	지역 정체성과 고유성을 살리는 지역 예술가 간 교류 김정주 GachiART 대표, 경부울 문화연대 부산지역 간사
문화+아카이빙	부울경 아키비스트(Archivist)양성과 지역공동체 아카이브 박희진 사진가, 동주대학교 교수
정책보고서 톨아보기	프랑스의 문화유산 관리주체에 관한 연구 김수정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2022. 07. - 08.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17호 | 2022.07.-08.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17호에서는 '부울경 지역 문화예술 교류'를 주제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이 문화예술로 만나 시너지를 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다뤄보고자 했습니다. 축제, 문예회관, 예술가 간 교류부터 지역 아카 이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의 시선으로 함께 다양한 영역을 함께 살펴볼까요?

Contents

- | | | | |
|----|--|----|--|
| 79 | column 칼럼
부울경 지역 예술인과
도모의 순간을 쌓아가기
원항미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 88 | issue 이슈 3
지역 정체성과 고유성을 살리는
지역 예술가 간 교류
김정주 GachiART 대표, 경부울 문화연대 부산지역 간사 |
| 82 | issue 이슈 1
부울경 지역 축제 간 콘텐츠 교류 방안
조원희 부산국제영화제 커뮤니티비프 운영위원장 | 91 | 문화+아카이빙
부울경 아키비스트(Archivist)양성과
지역공동체 아카이브
박희진 사진가, 동주대학교 교수 |
| 85 | issue 이슈 2
부울경 권역 문예회관 콘텐츠의
제작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고민해볼 점
서종호 김해문화재단 공연기획팀장 | 94 | 정책보고서 톨아보기
프랑스의 문화유산 관리주체에 관한 연구
김수정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
| | | 96 |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

부울경 지역 예술인과 도모의 순간을 쌓아가기

원 향 미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도모[圖謀] : (사람이 일을)이루려고 대책과 방법을 꾀하다

동질성과 차이로 엮인 부울경 지역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따로 또 같은 느낌을 가진 지역이다. 타 지역에서는 경상도 사투리로 한데 묶어버리는 독특한 언어세계를 공유하면서도 세 지역 간의 미묘한 언어차이로 서로를 구분할 수 있는 관계이다. e의 2승, 2의 2승, e의 e승은 대동단결하여 발음할 수 있지만 ‘뉘라카노?’ ‘뉘라카네?’ 와 같은 단어로 서로의 출신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지역적으로 인접해서 하나로 묶일 것 같지만 서로의 고유한 심지가 굳건히 서 있는 지역인 것이다.

부울경 예술인들에게 이미 익숙한 경계 넘기

지난 해 정책연구센터에서 시행한 [2021 부산 예술인 실태조사]에서 부산지역 예술인들의 활동 지역에 대해 물어보았다. 주 활동지역 외 타 지역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2.1%가 타 지역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중 27.3%는 경남과 울산지역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타 지역 활동 이유를 물어보니 ‘협업 동료/네트워크가 많아서’가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나왔다. 이미 예술인들은 지역 간 교류와 이동에 큰 이질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올해 문화부권 연구조사 FGI(초점집단면접조사)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부울경 지역 간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들기도 하였고, 함께 새로운 활동을 도모한 사례들도 적잖이 수집할 수 있었다. 부울경이라는 지역적 경계가 예술인들에게는 동료와 네트워크를 만날 수 있는 만남과 도모의 장인 것이다.

함께 상상하는 자리 - 부울경 문화분권 문화자치 상상토크

지난 7월 27일 영도 블루포트2021에서는 <부울경 지역 문화분권 문화자치 상상토크 “우리가 ○○ 할 수 있을지도”>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에서 추진 중인 [부울경 지역 문화분권·문화자치 기초연구] 중간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세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문화분권, 자치, 연대에 대한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예총, 민예총 관계자들과 지역 문화활동가들이 모여 문화분권 자치에 대한 생각과 실천사항, 핵심 가치 등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다.

세 지역이 모여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지만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권한의 분산을 통한 수평적 관계맺음이기에 연대와 협력 이전 우리 지역에서의 분권과 자치 기반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도 함께 논의하였다.

참여자들은 문화분권과 자치에 대해 건강한 자립, 물리적 균형 등을 언급하면서 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 제도적 기반뿐만 아니라 기초단위의 강조, 예술인 및 시민의 주체적 역량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부울경 지역 간 연대에 대해서는 큰 것이 작은 것을 지워버리는 구조가 아니라 다핵적 구조를 지향하면서 서로의 고유함이 잘 발현될 수 있는 토대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예술의 상상력으로 도모의 자리를 계속 이어나가기

이 자리는 그간 행정 영역의 단어로만 회자되던 분권, 자치에 대한 고민을 예술인들과 함께 나눠보고 예술인의 언어로 분권과 자치를 해석해보았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다. 또한 연대의 가치에 대해서도 공통된 문제에 대한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는 연대와 지역의 고유성을 더 잘 발현시키기 위한 연대 등 다양한 층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었다.

물론 이 자리에서는 액션플랜이나 협력의 장을 당장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는 부족했다. 상상으로 시작한 자리이다 보니 가능성의 타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였을 뿐 방법론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상상토크라는 자리, 그리고 [부울경 지역 문화분권·문화자치 기초연구]라는 연구를 통해 만난 부울경 지역 예술인들은 연대와 협력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함께 만나는 움직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부울경 지역 예술인들이 새로운 것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가 다음 단계의 과제이다.

우선적으로 일단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의견도 있지만, 급하지 않고, 필연적이지 않은 만남의 자리는 생산적인 다음 단계를 만드는데 동력이 되지 못한다. 더욱 구체적인 의지와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도모가 지속가능성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부울경 지역의 공통된 문제들, 지역사회 문제부터 예술환경의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지역 예술인들이 머리를 맞대어 서로의 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들을 공유하는 것은 어떨까. 이번 토크와 FGI에서 제안되었던 예술인 권리보장에 대한 부울경 지역 간 공동 가이드라인 구축이나, 탄소중립실천을 위한 공동의 예술활동 등이 우선적으로 시도해볼 만한 연대의 씨앗이 될 수 있을 거라 예상된다.

이러한 실천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도모의 자리는 문화행정 영역에서 짚아줘야 한다. 문화행정 영역에서는 이 도모의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그간 선부른 협의체 만들기, 조직화, 과업 중심 활동으로 인한 참여주체의 소진 등 우리는 그간 도모의 자리에서 문화행정이 제대로 된 포지션을 잡지 못했을 때의 시행착오를 이미 알고 있다. ‘거리두기’라고도 표현될 수도 있고 ‘하는 일 없이 안 하는 일 없는’ 태도라고도 볼 수 있는 적절한 문화행정 영역의 준비가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한 부울경 예술인 간 연대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잊지 말아야겠다.

부울경 지역 축제 간 콘텐츠 교류 방안

조원희

부산국제영화제 커뮤니티비프 운영위원장

1. 커뮤니티비프 + 문화다양성 축제 맵프

지난 2021년 10월 10일, 부산국제영화제 커뮤니티비프가 펼쳐지고 있는 부산 롯데시네마 대영점 6관에서는 2021 MAMF(문화다양성 축제 맵프)영화제 수상작 상영회가 열렸다. 대상작인 이종현 감독의 <표류>를 비롯한 입상작 6편이 상영된 이날 프로그램의 특징은 전 세계 영화제 중 최초로 상영된다는 뜻의 용어인 '월드 프리미어'라는 점이였다. 맵프는 지난 2005년 '이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축제'로 서울에서 시작돼 2010년 창원으로 옮겼고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하는 경상남도 창원시의 중요한 문화 축제 중 하나다. 2021년에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의 일정이 잡혀 있었다. 그중 영화 공모전 부분의 수상작 상영회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최초로 공개된 것이다. 부산국제영화제 중 관객 혹은 관객 커뮤니티가 직접 참여해 만드는 부문인 커뮤니티비프에서 수상작을 선공개해 이슈를 발생시키고, 이후 맵프 축제 본 행사에서 시상식을 거행하는 프로세스가 이뤄졌다. 이것은 지역 축제간의 콘텐츠 교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다.

2. 부산국제영화제의 지역성 확장

부산국제영화제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영화인들이 참여하고 싶어하는 대표적 국제 영화 페스티벌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영화제의 고향인 남포동에서 센텀시티 지역으로 주 상영장이 옮겨간 이후, '일부 지역'에서 '일부 시민'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부산국제영화제는 고심 끝에 변화를 꾀했다. 2018년부터는 '커뮤니티비프'를 원도심에서 출발시켜 영화의 전당을 중심으로 열리는 영화제의 본행사와 차별된, '관객의 직접 참여'를 통해 만드는 방식으로 영화제의 포맷 다양성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해인 2021년에는 '동네방네비프'를 출범시켰다. 부산광역시의 16개 구군 모든 곳에 영화 상영장을 구축해 부산 전 지역에서 영화제를 즐길 수 있게 영역을 확장하는 의미였다. 2022년에도 계속될 '동네방네비프'는 관객이 영화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영화제가 관객을 찾아가는 지향점을 지녔다.

현재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는 부울경 메가시티로 영역을 한 번 더 확장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커뮤니티비프가 '영화제의 일부분을 떼어다 원도심에 가져다 놓는' 방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듯이 동네방네비프의 확장 역시 단순히 영화제 지역 거점의 확산으로 그 의미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다.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동네방네비프도 물리적으로 해당 구군에 영화제 베뉴를 설치한다는 개념에서 멈추지 않는다. 각 구와 군의 지역적 특성에 맞춘 장소, 그리고 해당 상영장의 콘셉트와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배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만약 동네방네비프가 부울경 메가시티로 확장된다면 더욱 정교한 지역성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운영자로서 느끼고 있는 형편이다.

3. 리멤버 부마

부산국제영화제 커뮤니티비프에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돼 오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부마항쟁기념재단과 부산국제영화제의 협업으로 만들고 있는 '리멤버 부마'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다. 커뮤니티비프 특유의 거리 행사로 만들어진 첫 행사 때는 김경수 당시 경남도지사, 송기인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 언론인 홍세화, 배우 동방우, 안미나, 가수 최성원 등의 게스트가 참여해 영화 상영은 물론 뮤지컬과 라이브 음악 공연까지 아우르는 '페스티벌 속의 미니 페스티벌'처럼 진행됐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위치해 있으며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행사였던 '부마민주영화제' 역시 씨네아트 리즘, 메가박스 마산 등 창원시 권역에서 열렸다. 부산과 마산이 동시에 일어섰던 민주화 항쟁에 대한 기념을 부산과 구 마산 지역에서 서로 콘텐츠와 예산을 공유하며 만들어낸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단순한 광역 행사가 아니라 역사적 연대성을 공유한다는 점이다. 이런 근현대사적 사건을 공유하는 지역성에 의한 교류는 어쩌면 당연해 보이기도 한다.

4. 지역 대표 축제

앞선 부산국제영화제의 이야기들은 실제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서였다. 지역 축제간의 콘텐츠 교류에 대해서는 부울경 각 거점에서 열리고 있는, 이미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페스티벌은 물론 앞으로 지역성에 맞춰 개발해야 할 미래의 페스티벌들이 더욱 중요하다. 그 이유는 모든 축제가 각자의 분야에서 부울경을 가로지르는 허브로서 자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영화 관련 콘텐츠의 중심이 되어 각 지역의 영화제들과 수평적 교류를 지속하는 어젠더를 가지고 있듯, 각 지역의 축제들이 한 분야의 허브가 되어 교류하는 것이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2002년 시작해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 클래식 음악제로 자리잡은 통영 국제 음악제는 지난해 코로나 문제로 아쉽게 취소되긴 했지만 부산시립 교향악단과 당시 '라이징 스타'였던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협연을 준비했었다. 임윤찬은 널리 알려진 것처럼 2022년 미국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을 하면서 차세대를 책임질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그 위상이 확장됐다. 부산과 통영의 지역적 교류로 예약된 거장 임윤찬의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다. 벌써 32회 행사를 치른 거창국제연극제 역시 한국 최고의 야외 연극 축제라 호명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의 연극 단체들이 활약을 펼치는 곳인 동시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크고 작은 극단들을 만날 수 있는 장이다. 클래식 음악은 통영, 영화제는 부산, 연극은 거창, 이런 식으로 각 분

야별의 허브가 지역으로 분산될 경우 얻어지는 시너지는 무궁무진하다. 아카데미 음악상 2년 연속 수상자이며 영화음악과 라틴음악의 거장인 구스타보 산타올라야의 밴드 ‘바호폰도’가 두 번이나 공연하기도 했던 울산월드뮤직페스티벌이 월드뮤직의 허브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9년 폐지된 것은 뼈아픈 일이다. 지속가능성은 상호관계성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단순히 한 페스티벌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광역화된 한 지역의 문화적 기반이 폐사할 수도 있다는 아쉬움을 던져준다.

5. 확산과 확장

현재 경남과 울산, 그리고 부산에는 적지 않은 페스티벌들이 촘촘히 배치 돼 있다. 진주의 개천 예술제와 남강 유등 축제, 밀양의 밀양 문화제, 울산 서머 페스티벌, 울산 고래 축제, 부산 록 페스티벌과 불꽃 축제 등 역사와 전통을 지닌, 혹은 새로이 만들어져 큰 인기를 끄는 축제들이 다양하다. 이런 축제들이 유기적인 관계성을 맺으며 확산하면 축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지역이 확장될 것이라는 예측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일년 내내 언제나 축제가 열리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상상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여기서 연중 언제나 방문해도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호주의 축제 도시 멜버른을 떠올리게 된다. 빅토리아 주는 멜버른의 축제 모델로 호주에서 가장 문화적인 동시에 삶의 질이 높은 광역 자치주가 됐다. 큰 규모의 페스티벌들이 같은 장르의 작은 축제들과 상호교류의 관계성을 맺으며 확산하고, 그 문화적, 경제적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을 확장한다면 가까운 미래, 경계를 넘어 연대하게 될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요한 사회적 기반이 될 것이라 믿는다.

부울경 권역 문예회관 콘텐츠의 제작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고민해볼 점

서종호

김해문화재단 공연기획팀장

문예회관의 역할이 다양해지는 시대이다. 공간을 기반으로 시설을 운영하던 시기를 벗어나 그 극장의 정체성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나타내고 기획이라는 방법을 통해 단순한 콘텐츠의 중간 제공자에서 적극적인 제안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예회관은 그 운영 주체에 따라 다양한 미션을 부여받는다. 그 미션 중 최근 몇 년간 많이 언급되는 것이 제작극장화, 문예회관 공연 콘텐츠의 제작이다.

공공문예회관은 안정적으로 사용가능한 공간, 음향과 조명 등 극장 보유의 기기, 그리고 극장 소속의 기획자와 무대전전문인력 등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본 구성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다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이나 문예회관에 소속되어 있는 지자체 소속 예술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콘텐츠 제작의 기본적인 이해가 형성되어 있었던 터라 그리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었다.

멀리 해외나 타 지역 사례를 찾아보지 않더라도 부울경 권역의 문화예관에서 제작하거나 기획하는 콘텐츠가 꽤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제작방향과 목적에 따라 지역예술인 또는 청년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거나, 지역의 문화, 역사, 인물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 전문제작진과의 협업을 통해 작품을 제작하는 등 민간제작사에서 만들어지는 작품과는 다르게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콘텐츠의 제작 방식 또한 공공극장의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제작하는 방법(지자체의 필요성에 의해 소속 문예회관이 제작 주관을 추진하거나, 문예회관이 직접 제작하는 방법)과 공모사업을 통한 제작(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문예회관, 예술단체 공연콘텐츠 공동제작·배급 프로그램',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유통협력사업')등 다양한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콘텐츠의 생산은 확대되는 반면에 콘텐츠가 유통되어 지속성을 가지고 관객과 만나는 일은 무척 드물다. 콘텐츠 제작을 위한 단계에서 제작의 목적과 방향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콘텐츠가 만들어진 이후의 출구전략도 함께 고민해야하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가야사 재조명과 함께 역사문화콘텐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수로왕과 허왕후’의 러브스토리를 소재로 김해시와 김해문화재단이 제작한 창작 오페라 ‘허왕후’(2020년 제작), 부산의 신진예술인 참여와 육성을 위해 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시립예술단과 부산문화회관의 협업으로 제작된 2개의 작품 ‘MOTI/어디로부터’(2021년 제작), ‘수퍼타이거’(2022년 제작)는 극장 자체 제작으로 추진한 콘텐츠로 제작 검토 단계에서 작품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고민이 계획에 반영된 사례이다.

김해문화재단은 창작오페라 ‘허왕후’ 초연 이후 제17회 대구오페라축제(2021년), 2021 서울오페라 페스티벌(2021년), 제13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2022년) 등 공연을 지속해가고 있으며, 2023년 가야역사문화권 도시 교류공연, 2024년 전국체전 주제공연 이후 김해예술인이 무대세트나 의상, 그리고 작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출구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부산문화회관은 한국문화예술회관의 방방곡곡문화공감 국공립예술단체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MOTI/어디로부터’ 공연을 2022년 11월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의 기획공연으로 초청받아 경남의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언급한 사례들이 제작단계에서부터 지속가능한 콘텐츠의 활용을 고민한 사례일 수는 있지만 콘텐츠 교류와 활용의 좋은 예라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콘텐츠 활용 예산의 확보, 타 극장 관계자와 관객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예술성과 보편성 등이 뒤따라야 하며, 공간(공연장) 중심의 사업을 운영해야하는 인적자원의 한계 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문제점을 지혜롭게 해결하고자 한 사례도 있다.

해운대문화회관, 영도문화예술회관, 동래문화회관이 협업하여 제작하고 있는 연극 ‘왕국의 전설 - 잃어버린이야기’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공모사업 ‘문예회관, 예술단체 공연콘텐츠 공동제작·배급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콘텐츠이다. 이 콘텐츠의 주목할 점은 위에서 언급한 공모사업이 주로 멀리 떨어진 지역의 문예회관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이라는 지역 내 문예회관이 협력하여 지역예술인과 함께 만든 콘텐츠, 부산 내 문예회관을 순회하며 공연한다는 점, 그리고 이후 콘텐츠를 꾸준히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동일한 역사 문화권의 동질성과 함께 작품의 보편성을 고려, 콘텐츠를 공동으로 제작하고 보유한다는 점에서 극장간 동반성장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운대, 영도, 동래 문예회관의 사례처럼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부울경 권역의 문예회관이 함께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대해 지혜를 모은다면 제작 이후 콘텐츠의 교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부·울·경 권역의 문예회관은 부울경 연합(부울경 메가시티)의 출범 이전부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부울경지회(총 34개 문예회관이 소속되어 있다.)라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문예회관의 현안에 대한 논의들을 이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실무자간 콘텐츠의 공동제작과 문예회관 간 콘텐츠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부·울·경 권역 문예회관의 콘텐츠 제작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예회관 간의 콘텐츠 제작 정보 공유를 통해 우수사례 뿐만 아니라 추진의 어려움, 아쉬웠던 점을 공유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은 문예회관의 입장에서 늘 시행착오의 연속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행착오를 잘 공유하려고 하지 않는다.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또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호 간의 이해와 존중, 가치의 실현이 업무 추진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콘텐츠의 제작과 교류가 문예회관과 지역 예술생태계의 이익을 바탕으로 양보와 합의가 뒷받침되고 공동의 이익을 우선한다면 부울경 권역의 예술인과 관객 그리고 문예회관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콘텐츠가 생산되고 지속 가능한 콘텐츠 교류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정체성과 고유성을 살리는 지역 예술가 간 교류 -지역 특성을 살린 세계화(glocal)를 향하여-

김정주

GachiART 대표, 경북울 문화연대 부산지역 간사

부·울·경 메가시티와 문화 도시조성이 연일 기사화되고 모두가 변화의 기대를 품고 있다. 전체 인구의 50%가 몰려있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범된 부·울·경 특별 연합. 경제·산업·물류·교통 등의 연계발전은 물론 문화 분권, 문화자치로 수도권 중심에 대응하는 문화 향유와 동남권 문화발전의 기대가 그것이다.

'메가시티'라는 용어는 인구 천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로 정의되는데 현재 세 도시를 합한 인구는 800만여 명에 그친다고 한다. 인구감소, 타 도시로의 이주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단순히 내 지역이 살기 좋은 요인이 많다면 해결될 문제이지 않을까? 그 요인으로는 경제, 교육, 기후... 등이 있겠지만 문화 예술적 요인을 간과해선 안 된다. 도시의 쇠퇴를 막고 새로운 기능을 부여해 지속적인 생활 여건과 기능을 회복하는 것은 문화예술로 지역 특성을 살리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의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 있어 문화적 연대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세 도시의 행정기관 간의 거대한 공동 프로젝트나 문화 행사는 관료적인 폐해에 노출돼 성과 중심의 보여주기식이거나, 일회성에 그칠 공산이 크다. 부·울·경의 동일 정체성을 위한 연구와 부·울·경 지역만이 가지는 지역 특성, 문화적 요소 발굴과 발전의 문화적 연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동남권(경남, 부산, 울산)의 문화예술인들이 지역 문화예술인의 소통과 다양한 연대 활동을 통해 새로운 동남 문화권 형성의 목적과 부·울·경의 문화자치, 문화 분권을 위해 '경·부·울 문화연대'를 2022년 3월 25일 결성하여 출범했다. 부·울·경 이 아니라 '경·부·울'이라 한 것은 경남에서 부산과 울산이 나왔다는 지역문화의 연원을 고려한 이름이다. '경·부·울 문화연대'는 문학, 예술(미술, 음악, 사진, 건축, 무용, 영화, 연극), 문화기획, 문화정책 분야로 지역별 30여 명씩 구성되어 있고 추가로 뜻을 같이 하는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가려 한다. 우선은 지역별로 구성원을 알아감과 동시에 문화연대의 방향성,

메가시티 조성의 문화적 역할, 문화 분권, 자치, 정책, 동남권 문화예술진흥...의 키워드로 주제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학습하고 주제에 따른 전시, 작품발표, 연주 발표 등을 통해 교류를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 별 문화적 특성을 살펴보고 연대하여 어디에도 없는 동남권 문화형성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우선 경·부·울 문화연대 부산지역에서는 지역성, 고유성, 역사성을 가진 콘텐츠를 문화예술로 펼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이미 유명한 문화적 요소도 널리 알려져 있지만 숨어있는 부산스럽고 부산다운 부산의 콘텐츠를 연구 개발하려 한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지역, 권역 중심 관광지 연계코스를 구성하여 외래 관광객의 체류 기간에 지출액 증가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지역관광을 활용하고 있다. 자연경관, 랜드마크, 지역의 먹거리, 특산물도 중요한 요소이겠지만 그 지역의 문화예술이 더해진 이벤트, 체험, 관광 상품 등으로 경·부·울 문화예술 거점 공간을 연계한 예술여행코스, 문화예술 벨트 개발을 기대한다.

제안한다면 거대한 복합문화공간을 신설하기보다는 공방, 아틀리에, 작업실, 스튜디오, 연습실이라고 불리는 규모는 작지만, 문화예술의 날 것을 느낄 수 있는 예술이 태동하며 진행되는 창작공간에서 예술가와 만나 소통하고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제공하고 싶다.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에서는 예술가 작업 공간을 탐방하는 '브릿지 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조성에 각 구·군별 문화예술단체와 예술가의 공간을 지원하여 시민들이 이웃에 놀러 가듯 '문화예술 마실'이라는 진정한 향유의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 그리고 지역 예술가들은 지역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여 지역 사회에서 전개될 새로운 아트프로젝트를 주목하고 기획해야 한다.

메가시티 개념처럼 경·부·울 문화예술가들이 동남권 문화형성에 참고될만한 지역 특성, 지역 연대 아트프로젝트 사례 중 예술이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한 일본의 성공사례 몇 가지를 소개한다. 이들은 수도권, 대도시가 아님에도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리는 세계적인 프로젝트로 유명해져 관광객 유치의 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지역주민에게도 친숙한 예술 향유의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정신적인 만족감이나 지역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생기게 한다.

「베네세 아트사이트 나오시마 프로젝트」

가가와현에 있는 나오시마(直島)는 미쓰비시가 중공업 단지를 건설하여 70여 년간 구리제련소를 운영해 번창했지만 공해와 폐기물로 환경문제가 심각해졌으며 1980년대 초반 구릿값 폭락으로 제련소가 문을 닫게 되었다. 섬은 불법적인 산업폐기물, 공해로 흉물스러워졌고 일거리가 없는 제련공장 노동자와 가족, 관련 업종 사람들이 점점 섬을 떠나 노인들만 남은 섬이 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베네세 홀딩스 기업이 섬 전체를 섬과 예술이 공생하는 '예술의 섬'으로 재탄생 된 아트프로젝트로 나오시마(直島), 토시마(豊島, 산업폐기물이 버려졌던 섬), 이누지마(犬島)를 무대로 기업의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공헌. 인구 유출로 인한 폐가의 재생, 자연환경과 예술작품의 조화, 섬과 예술작품 안내 등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함께하는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다. '과도한 도시화에 대한 저항'으로 출발한 아트프로젝트는 장소 특정적, 주민 참여적 요소로 쇠퇴한 섬을 예술로 되살린 세계적인 프로젝트이다.

「세토우치(瀬戸内) 국제예술제」

나오시마를 중심으로 12개 섬 2개의 항이 연대하고 지자체, 기업, 지역주민, 예술가, NPO가 연합하여 진행하는 국제예술제이다. 지역 활성화와 바다의 복원이라는 콘셉트로 세토우치 일대 섬 지역을 아우르는 문화예술 벨트로 조성한 아트프로젝트로 3년마다 개최되고 개최년에 약 95만 명이 국내외에서 방문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에치고츠마리 아트 트리엔날레」

니가타현의 도카마치시와 츠난마치 두 지역을 묶어 일컫는 지명으로 눈이 많이 오고 고시히카리 쌀의 산지이며 그 쌀로 빚은 술이 유명한 농촌 지역이다. 이 지역도 노령화 문제로 쇠퇴하는 지역에 넓은 평야와 지역의 유희공간을 활용세계 최대의 '대지의 예술제'가 762km² 전역에서 개최된다. 각 지역의 지리 및 문화적 개성을 잘 살려 에치고츠마리만의 예술 정체성을 고스란히 녹여내고 있다. 세계 각국의 현대 예술가들을 초청해 기존의 에치고츠마리에 존재하는 상설 전시작들과 함께 소개 한다.

「국제 단남(丹南) 아트페스티벌」

1995년부터 27년간 출품 참가하며 한국 작가 큐레이팅을 하고 있는 국제 단남 아트페스티벌은 소재 표현에 중점을 두어 그 지역의 특산품인 철(鐵), 토(土), 목(木), 포(布), 종이(紙)를 소재로 한 현대미술 전시회로 대도시가 아닌 곳에서 국제 페스티벌을 29회 개최한 저력이 놀랍다. 단남은 일본 후쿠이현의 사바에서, 에치젠시, 이케다초, 미나미에쓰마에초, 에치젠초를 합쳐 부르는 말로 종이, 철, 도기, 칠기, 포목이 유명하다. 지역에서 국제적 문화예술의 발신지가 되어 해마다 많은 사람이 아트페스티벌을 위해 방문한다.

수년 전부터 국외 작가를 초청하는 국제교류 전시를 기획할 때 기존 제작된 작품을 가져와 전시하기 보다는 현장에서 느낀 감정과 현장에서 구한 재료로 제작 의뢰하여 지역 특성을 담은 기획을 해오고 있다. 이방인이 체류 기간 바라보는 부산의 해석은 의외의 결과를 가져와 숲에서 나무밖에 보지 못한 우리를 깨우쳐 주기도 한다.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에 문화예술관계자들의 고민과 역할로 세계로 발신하는 대한민국 동남권 지역문화 예술을 위해 지역민이 살아오면서 남긴 흔적과 그들의 삶 속에 녹아 있는 문화자원을 연구하고 공유하여 예술로 승화시켜야 한다. 전 세계가 부산문화, 부산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세계인이 사랑하는 예술의 발신지는 부·울·경의 작은 마을, 작은 공동체에서 출발 되길 기대한다.

부울경 아키비스트(Archivist)양성과 지역공동체 아카이브

박희진

사진가, 동주대학교 교수

부울경 지역 문화예술에 있어서 기록을 바탕으로 한 교류와 지역콘텐츠 생산 등을 아카이빙(archiving)이란 관점에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아카이브 작업은 문화예술의 특성을 보존 유지하면서 현재와 미래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소장품이나 의미 있는 자료들을 모으고 디지털화하여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작업을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쯤 시작되었다. 다시 말해 아카이빙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디지털 환경이 구축되면서 거대한 정보화 물결이 일기 시작하였고 1999년 공공기록물법(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부터 아카이브 정책에 집중하였고 정부기록물보존소도 국가기록원으로 승격되었다. 큰 틀에서 문화예술의 아카이빙에 대한 실천을 살펴 보면,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의 정보화사업을 통해 문화재 전반에 걸쳐 조사 연구된 생산 기록물들을 DB화 하였으며 2016년 12월 국립국악원에서 개최한 '디지털시대, 공연예술 아카이브의 역할과 가치창조'라는 학술세미나를 통해 유,무형 문화예술의 아카이브 작업의 특이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문화예술의 범주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실생활의 아카이브 작업에 대한 사례를 찾아보면, 1997년 한국토지공사는 100만평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대상 지역에 대해서 사라지는 주민들의 삶과 자취에 대한 아카이브 작업을 필수로 진행하였다. 한국토지공사의 아카이브 작업 첫 결과물로 2006년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마을의 '사이버 고향전시관'을 구축하였으며 2008년에는 대구의 혁신도시 프로젝트로 사라지는 마을에 대한 '대구혁신도시 사이버 고향전시관'을 그리고 2009년에는 인천 영종도의 '영종하늘도시 사이버 고향전시관' 등등 전국에 걸쳐 9개의 혁신도시 아카이브를 구축하였다. 무형유산에 대한 아카이브 작업은 2012년 국립무형유산원이 설립과 함께 시청각 자료와 문서 작품등이 디지털로 전환되어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무형유산 전승자 구술채록사업'도 진행하면서 생활도구와 사진자료 등에 관한 생활공간도 기록하고 있다.

지역활동가로 아키비스트(Archivist) 양성해야

부울경 문화예술의 아카이브 작업은 개인이나 단체가 활동하면서 창작해온 1차적인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작고한 예술가나 각종 공연 전시 등의 기록물들이 각기 다른 기관과 분야에서 보관하는 것 보다 광역화된 틀 속에서 공유 가능한 아카이브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아카이브들의 문화예술적, 역사적 가치에 대한 정리와 분류들은 도서관이나 출판물 등이 가지는 가치와 의미를 넘어서 지역 문화예술의 고유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부울경 문화예술 아카이브 작업은 기록된 자료의 평가와 수집 그리고 진본 확인, 보존 검색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록학(Archival science)의 기본 지식을 갖춘 기록관리자를 양성하고, 다음 단계로 문화예술에 특화된 역량을 강화하여 부울경 문화예술의 아카이브 작업을 담당할 아키비스트(Archivist)를 양성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울경 아키비스트들은 지역문화예술의 역사적 기록을 선별하고 보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적절한 분류와 정리를 통해 또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후학 그리고 문화예술의 계승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아카이브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아카이브 작업과 아키비스트들의 활동은 문화예술의 특성을 보존하는 것은 물론이고 창조와 변화의 지평을 열어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공공기록물법은 2006년에 기록물관리와 기능적 분류 방법, 번호 보존기간과 장소 및 비치기록의 기준과 검색어 지정 등을 현재의 실정에 맞는 '분류 기준표'로 개정하였다. 이러한 보다 확장된 시각에서 부울경 문화예술의 아카이브 작업은 국가 분류기준표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아카이브 규정과 제도를 동일하게 규격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울경의 아키비스트들이 활동한 결과물로 생산된 아카이브를 평가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심의하여 등록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이관이나 폐기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후 분류, 편철 과정을 거쳐 검색과 활용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아카이브 작업의 제도화된 공정도 필요하다.

기록공동체(Archives Network)로 지역 문화예술 정체성 확보

부울경이 연계한 기록공동체(Archives Network)로서 문화예술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울경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지역 도큐멘테이션(Locality Documentation)의 장/단기 전략을 설정하고 실천해야만 한다. 우선 지역 문화예술 아카이브 대상에 대한 일차적인 자료 수집이 진행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수집된 자료를 디지털방식으로 아카이빙하고 마지막으로 다양하고 폭넓게 아카이브를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확보해야 하는 마무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부울경 아카이브 공동체 협력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정체성에 관심을 가지게 하며 부울경의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소속감 강화와 보다 넓은 외부세계로 지역 문화예술을 알리는 확장성을 통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한다.

단순한 부울경 문화예술이라는 아카이브 작업에서 발전하여, 지역 네트워크와 협력하고 연대하는 통로를 확보함으로써 인해 공동체 아카이브 작업이라는 광역화된 아카이빙을 실천할 수 있고, 부울경 지역 다수의 양성된 아키비스트들이 찾고 만들어낸 결과물에 의한 문화자본(cultural capital) 축적으로 문화예술의 자본 생산성도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후속 조치로 아카이브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문

서 사진 음성 동영상 등의 파일형식과 자료형식의 표준화 등 기본적인 사항이 마련된 상태에서 아카이브 작업을 진행하여야 인력과 행정력 그리고 비용까지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때 아카이브 작업에 있어서 자료의 기증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기증자에 대한 예우 기준이 있어야 금전적 가치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부울경 공동체 아카이브 작업의 문화예술 결과물로 저장된 집단적(collective memory) 기억과 사회적 기억(social memory)들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표현하게 된다. 아울러 세대를 이어주는 의사소통의 도구가 되고 활용 가능한 자산과 부가적으로 문화예술 생산이 가능한 자원 그리고 지역공동체 문화예술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메타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이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부울경 문화예술 아카이브 작업의 형식 표준화가 대중화되기 시작하면 모든 시민들이 아카이브 활동가(activist archivist)되고 지역 공동체와 함께 아카이브 네트워크 형성을 거쳐 지역의 정체성을 만들기 가꾸어 나가는 보편적 기록 공동체에 의한 아카이브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역 정체성확립과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을 위해 민관이 함께 참가하는 상설 협의체로서 '부울경 기록공동체(Archives Network)'의 결성과 정기적인 진행 성과를 관리하는 실무적인 운영이 절실한 시점이라 하겠다.

프랑스의 문화유산 관리주체에 관한 연구¹

- 공법인 간 협력 방식을 통해 알아보는 프랑스의 문화분권 -

김수정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프랑스는 1980년대부터 지방분권화 개혁을 추진하며 행정구역 변경, 권한과 재정의 이양 및 배분 등 지속적으로 변화를 시도해왔다. 그와 동시에 문화의 특권화 폐지 및 지역 간 문화 불평등 해소 등 문화분권을 위한 끊임없는 시도를 이어오고 있다. ‘프랑스 문화유산 관리주체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앞서 말한 그런 흐름들을 살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국가 문화유산 보호를 비롯해 프랑스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 및 민간 등 여러 주체들이 문화분권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해왔는지 파악 가능하다. 이번 정책보고서 돌아보기에서는 특히, 프랑스 공법인 간 협력에 대한 다양한 모델을 요약 발췌하여 그 시사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공동 협약부터 실험적인 시도까지, “계약”을 통한 공법인 간 협력

구분	문화헌장 (Chartes culturelles)	국가-레지옹 계획계약 (Contrats de Plan Etat-Région)	실험 (Expérimentation)
재정년도	1974년	1982년	2003년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진흥 촉진 및 문화 사업 공동 추진을 목적으로 국가가 꼬린, 레지옹 등과 공동으로 협약 체결² - 문화분야에 있어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간 최초의 계약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및 중요계획의 시행을 위해 국가의 대표인 레지옹 지사와 지자체 대표 간 계약 - 레지옹은 계약 목표 달성 위해 민간, 공법인 등 다른 당사자와 별도계약 체결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지자체가 3년 간 계약 체결 후 시범적으로 시도하는 방식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 지자체, 민간 등이 협력 - 사업별 계약 당사자인 지자체의 지위, 참여방식, 국가-지자체 간 예산배분, 계약기간 등 상이 → 지역 특수성 반영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사업 단위로 계약 체결 - 국가와 지자체 간 협의 통해 투자예산 범위설정 - 최소 5년의 계약으로 안정적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실험 이후 평가를 통해 적절하지 않다는 결과가 도출될 시, 미지속 → 가역성과 효율성의 장점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가 지자체로의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수단으로 평가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에 의해서만 계약 해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헌장, 국가-레지옹 계획계약과 마찬가지로 주도권이 국가에 있음

#공공단체, 너와 내가 하나 되어!

구분	문화공공단체 (Groupement d'intérêt public culturel, GIP)	문화협력영조물법인 (Etablissements publics de coopération culturelle, EPCC)
관련법 재정년도	1991년	2002년
주요내용	-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공익 목적의 시설, 서비스 제공·관리를 위해 국가, 지자체, 영조물 법인, 사단법인과 그 밖의 사법인 간 협약가능	- 지역의 중요 문화시설 및 공공문화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거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 및 국가가 연합하여 만든 공공단체(2020년 기준146개소) ³
특징	- 일정기간 간 문화활동 수행 - 유연한 구조의 공법인	- 지자체가 국가와 협력 하에 법인 설립 가능한 점을 법으로 명문화 - 독자적인 예산과 운영 방식으로 지역 문화정책 추진 - 행정적/상공업적 성격의 유형을 지님 ⁴
한계	*지속 불가능한 구조 ⁵ - 일정 기간만을 위해 창설 가능하며 30년 초과 불가 - 그룹의 구성원에 의해 직원 파견만 가능, 자체 직원 채용 불가	*법적, 관리적 측면의 한계점 ⁶ - EPCC 설립 참여 파트너들의 연간 최소 기부금액을 법적으로 명시하지 못함 - 꼬원연합체 수의 증가로 인한 계약 체결, 관리의 어려움

#시사점

- ▶ 프랑스는 양자 간, 다자 간, 국가-지자체 간, 지자체-지자체 간, 다른 종류의 공법인 간(횡적 협력), 같은 단계의 공법인 간(종적 협력) 등 문화유산을 비롯한 문화 분야 각 주체들이 협력하는 형태의 다변화를 시도해옴
- ▶ 지역은 자발적인 문화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으며, 중앙과 지자체 간 관계가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동반자적 관계로 변화
- ▶ 지자체, 영조물법인, 민간단체 등 다양한 이들 간의 협력이 중요해짐. 이에 따라 국가는 가교 역할을 맡고, 지역은 주체성 및 자율성 확대됨

1 권채리, 한국법제연구원, 2016

2 프랑스의 지방행정체계. 레지옹(Région)은 우리나라의 도와 유사한 행정구역을 뜻하며, 데파르트망(Département)은 광역규모의 자치단체, 코뮌(Commune)은 우리나라의 시, 읍, 면에 해당하는 프랑스의 최소 행정구역

3 손동기, 프랑스의 문화협력공공법인으로 살펴본 균형발전정책과 문화정책, <월간공공정책 189>, 2021. p67

4 행정적 성격의 영조물 법인은 교육시설과 문화유산, 유물 보호의 임무를 지닌 시설이며, 상공업적 성격의 영조물법인은 주로 창작, 공연의 보급에 대한 역할을 하는 시설임

5 김규원, 프랑스 지방 문화분권 정책의 변화와 방향성, <문화와 정치, 2권 2호>, 2015, p115

6 손동기, 상동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2022.07. - 08.

부산문화재단

- 부산문화재단-광주문화재단 교류 협약 10주년 기념식 개최(7.6)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미연)은 올해 부산문화재단과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풍년)은 7월 5일 감만창의문화촌에서 양 기관 교류 협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향후 사업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부산예술인 행복플랫폼」 지역 예술인과 한 걸음 더 가까이(7.7)

재단은 지난 6월 29일 부산예술인 행(정)복(지)플랫폼 최종 선정된 퍼실리테이터(예술인)와 협력기관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및 약정 체결을 진행했다. 최종 선정된 퍼실리테이터(예술인)는 7월 4일부터 3개의 협력 기관에 파견되어 지역 예술인을 만난다.

- “부울경 문화예술인과 문화분권을 상상하다”(7.21)

재단은 7월 27일 오후 3시 블루포트2021에서 [부울경 문화분권·문화자치 상상토크 “우리가 ○○할 수 있을지도”]를 개최했다. 이번 상상토크는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에서 진행 중인 ‘부울경 지역 문화분권 및 자치전략 연구’와 연계된 행사다.

- 부산문화재단 3년 만에 쓰시마시, 시모노세키시 등 방문(8.9)

재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일본 조선통신사 연고 지역과의 교류가 3년 만에 재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조선통신사 연고 지역과의 추후 사업 추진을 위해 한일 양국의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이 서로 뜻을 함께 하겠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산문화회관

- 부산대-부산문화회관 「지역 문화예술 역량 강화 협력」 협약 체결(8.12)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는 지역 문화예술 대중화 및 대학의 공연·전시 역량 강화를 위해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이정필)과 8월 10일(수)에 「지역 문화예술 역량강화 협력」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금정문화재단

- 부산 금정문화재단,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오픈 콘서트 개최(8.18)

부산 금정문화재단은 8월 23일(화) 19시부터 부산대역 1번 출구 문화나눔터에서 '금정 버스킹과 함께하는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오픈 콘서트'를 개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 **중대사고 발생 시 공연장 운영자에게 보고 의무 부여(7.19)**

공연장 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과 관련해 ▲사망사고,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시설 파손으로 공연 중단 후 복구까지 7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9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지역 고유문화의 가치와 매력을 찾아 공정하게 누리는 문화균형발전 추진한다(8.10)**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8월 10일(수) 오후 2시,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제4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위원과 제1차 회의를 열어, “국민이 지역과 관계없이 공정하고 차별 없는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하는 실행방안 논의(8.23)**

심리학계와 문화예술계 현장 전문가들이 코로나19로 증가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8월 23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예술위, 텀블벅과 예술가 크라우드펀딩 역량 키운다(8.16)**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텀블벅(대표 김동환)은 8월 18일(목) 예술가를 대상으로 ‘ARKO X 텀블벅 크라우드펀딩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교육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 **아창제 첫 지방연주 개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with 아창제’(8.16)**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창작음악제인 ARKO한 국창작음악제(이하 아창제)가 부산문화회관과 공동 주최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with 아창제> 특별 연주회를 8월 19일(금)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한다.

인천문화재단

- **지역문화예술 아카이브 심포지엄 개최 “지역문화예술 아카이브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8.23)**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구)은 “지역문화예술 아카이브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주제로 9월 1일(목)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역문화예술 아카이브 사례를 살펴보고, 인천 지역의 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기회를 갖고자 기획하게 되었다 전시설에서 개최한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경상남도 지역문화재단 협의회, 교류와 협력을 위한 회의 개최(8.18)

경남도내 광역·기초문화재단 협의체인 '경상남도 지역문화재단 협의회'는 지난 18일 문화재단별 현안 공유와 공동사업 발굴 등 교류와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강원문화재단

- 2022년 강원 콘텐츠산업 발전방안 라운드테이블 개최(7.19)

(재)강원문화재단 부설 강원영상위원회(위원장 홍지영)는 돌아오는 7월 27일(수), 7월 29(금) 양일간 '2022년 강원 콘텐츠산업 발전방안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하여 도출되는 의견들은 추후 '강원 콘텐츠산업 지역거점 정책 거버넌스 협의체'의 주요 회의 주제로 지정하여 강원도 콘텐츠 산업의 전략적 육성 정책 및 다양한 유관기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예정이다.

대구문화재단

- 2022 대구예술발전소 대구×파리 교류기획 전시 개최(8.11)

(재)대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승익)주관하고 주한 프랑스대사관이 후원하는 기획전시 <Daegu-Paris art exhibition 2022_The Blue Bird>를 9월 6일(화)부터 10월 16일(일)까지 대구예술발전소에서 개최한다.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이괄 수장인 원장 공개모집(8.23)

대구문화재단은 10월 출범을 앞둔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이끌어갈 전문성과 경영혁신 역량을 갖춘 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을 공개모집 한다. 대구문화재단은 9월 중 재단정관을 변경하여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발하며, 진흥원장은 지역의 문화·예술·관광 정책을 이끌어 가는 수장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제주문화재단

- <제주해녀 문화예술 지역특성화 지원사업>, 마을 브랜드 공연 육성을 위한 첫 축제형 쇼케이스 공연 시작(8.18)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은 제주해녀 문화의 다양성에 기반한 축제형 마을 브랜드 공연 육성을 위한 '2022년 해녀문화예술 지역특성화 <마을브랜드 공연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쇼케이스 공연을 북촌리, 협재리, 고내리에서 진행한다.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부울경 공동의 문제, 바다와 기후위기

18호

2022. 09. - 10.

column 칼럼	부울경과 바다, 그리고 기후위기 모상미 모이다아트협동조합 이사장
issue 이슈 1	세상에 나쁜 새는 없다 이동열 삼인행 대표
issue 이슈 2	1제곱미터의 우주 창파 실험실 C 아트 디렉터
issue 이슈 3	“생명평화미술행동”, 사회적 문제에 미술로 행동하다. 성효숙 화가
문화+기후위기	예술계 밖에서 바라보는 기후와 문화예술의 접점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
정책보고서 토크보기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인식과 미래수요 조사 연구 김수정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2022. 09. - 10.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18호 | 2022.09.- 10.

이번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제18호는 "부울경
공동의 문제, 바다와 기후위기"라는 주제로
원고를 구성하였습니다. 부울경 지역이 함께
해결해나가야 하는 해양오염 문제를 문화예
술 활동과 어떻게 연결하여 협력해나가고 있
는지, 실제 사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103 column 칼럼

부울경과 바다, 그리고 기후위기

모상미 모이다아트협동조합 이사장

106 issue 이슈 1

세상에 나쁜 새는 없다

이동열 삼인행 대표

109 issue 이슈 2

1제곱미터의 우주

창파 실험실 C 아트 디렉터

113 issue 이슈 3

"생명평화미술행동", 사회적 문제에
미술로 행동하다.

성효숙 화가

116 문화+기후위기

예술계 밖에서 바라보는
기후와 문화예술의 접점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

120 정책보고서 톨아보기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인식과
미래수요 조사 연구

김수정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123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부울경과 바다, 그리고 기후위기

모상미

모이다아트협동조합 이사장

#피부로 느끼는 기후위기

매년 전 세계적으로 기후재난의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당장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2020년에 찾아온 집중호우, 2021년의 10월 한파주의보, 2022년 8월의 기록적 폭우와 9월의 '힌남노'등 해마다 더 강하게 찾아오는 기후 위기 소식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재난 영화를 방불케 하는 장면들은 현실이 되고 있으며, 이미 마지막 노선에 가까워진 지구의 온도와 이로 인한 가뭄, 홍수, 혹한 등 영향으로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상태로 지구 평균기온이 1도만 더 상승해도 남북극의 빙하들이 녹아 해수면의 상승으로 세계 주요 대도시들이 상당수 바닷속으로 잠길 것으로 예상한다.

지구는 본래 예전부터 빙하기와 간빙기를 거치면서 지속해서 기후가 바뀌는 과정을 겪어 왔지만, 오늘날의 기후 변화를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대부분 많은 나라에서 배출한 온실 기체로 인해 지구 전체 기온이 비정상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지금의 기후 위기는 지구도, 우리 다음 후손의 문제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겨누고 있다. 빙하가 녹아 살 곳을 잃은 북극곰, 이상 가뭄으로 농사를 망친 아프리카 농부의 이야기부터, 우리나라의 폭우까지 한 지역의 기후 위기 피해가 돌고 돌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도미노와 같다. 이산화탄소 배출, 쓰레기 발생 등 이러한 모든 일들로 인해 피해를 고스란히 되돌려 받는 사람도 모두 우리이자 나 자신이다. 기후위기 문제를 타인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해야 할 때인 것이다.

#예술로 바라보는 기후위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은 전방위적으로 환경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일상에서 삶의 양식이나 사회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에 대해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에 따라 기후 문제와 관련된 위기 의식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연, 전시 등의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있다. 관객들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일상에서 사소한 행동 변화의 시작을 촉구하는 시도인 것이다.

예컨대 기후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환경 주제 전시 'EARTH MOOD'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를 고려한 다양한 방안들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구와 인류의 관계를 고민하는 전시이다. 작품들은 '맑음·흐림·슬픔' 세 가지 범주를 유연하게 넘나들면서 작가들의 다양한 관점을 통해 관객과 상호 작용을 유도하고, 환경을 탐구하는 일을 통해 정서적 깨달음을 예술로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이승규 작곡가는 음악가로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회용품 쓰레기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기후위기와 관련해 인간이 해왔던 불편한 진실들을 알게 됐고, 이후 음악과 접목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고 한다. 인간으로 인해 생존의 위기를 겪는 동물을 주제로 한 피아노 모음곡 '잃어버린 동물의 사육제도', 버려진 농약 분무기를 재활용해 만든 첼로로 연주하는 유니크 첼로 콰르텟 첼로 4중주단 창단을 통해 전문 연주자들이 재활용 악기로 환경 보호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바다를 중심으로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하는 부울경

'부·울·경'. 무엇이 이 세 지역을 하나로 묶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일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세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환경을 살펴보자. 울산 반구대 암각화, 부산 동삼동 패총, 암남동, 영선동, 다대포 패총과 울산 신암리, 경남 진해 안골포, 통영 연대도 등에 산재한 패총과 수많은 선사유적이 존재한다. 모두 바다를 중심으로 한 유적들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부터 부울경이 바다를 통해 초광역권을 형성하며 해양문화와 관련된 동질성을 지녀왔음을 알 수 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부울경 지역은 교통, 관광, 쓰레기나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해 행정구역을 넘어서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바다라는 공통적인 특성과, 삼국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행정구역이었던 역사·문화적 동질성을 지닌 부산, 울산, 경남 이 세 지역이 하나 되어 미래를 모색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

문화예술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2021년에는 동남권의 문화예술 협력을 위한 부울경 광역문화재단 협의회가 출범을 하였고 부울경의 고유문화자산 및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문화 인프라 확대, 네트워크 강화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협업과 모색을 이어가고 있다. 부울경 세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발굴하고 그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초 생활권 단위의 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며 부산에서만 진행했던 '2021 비치코밍 프로젝트'를 이어, 올해에는 '부울경

1 부산문화재단 사업으로, 생활문화 가치확산 캠페인으로 부산, 울산, 경남 생활문화 동아리와 시민들이 해양 쓰레기를 줍는 '비치코밍'을 통해 환경문제를 일상으로 끌어들이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하는 프로젝트

비치코밍 투게더'로 명명하고 부산·울산·경남으로 범위를 넓혀 진행했다. 부울경 시민들이 함께 바다와 문화예술을 매개로 기후환경에 대한 이슈에 개입하는 예술적인 시도였다. 부울경 시민들과 생활문화 동아리의 역량을 모아 총체적 대응 및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였고, 부울경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간절곳에서 비치코밍을 하는 시민들



비치코밍 후 공연예술을 관람하는 모습

공공기관 외에도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진 개인이 추진한 프로젝트도 살펴볼 수 있다. 부산의 한 시민은 매일 아침 청사포와 동네를 돌며 비치코밍과 줍깅(줍다+플로깅의 합성어)을 시작해 다른 사람들에게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 변화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 분은 100명과 함께 광안리 바닷가에서 주운 쓰레기를 이용하여 전시를 한 사례도 있었다. 이렇듯 개인의 작은 움직임들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 다음 지면들을 차지할 원고들을 통해서도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와 활동가들의 예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사례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관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글을 마치며 이 말을 덧붙이고 싶다. 바다가 주는 힘, 그것은 '행복'이다. 무엇이든 포용해 주려는 아름다운 바다를 앞으로도 우리는 지키고 가꿔 나가야 할 것이다.

issue 이슈 1

세상에 나쁜 새는 없다.

이동열
삼인행 대표

#섬 들여다보기

섬에 들어와 정착한 지 12년 차, 강물과 바닷물이 교차하는 하구언에 다양한 어류가 많이 모여 살 듯 이 도시에서 나고 자라서 섬으로 정착한 내게도 섬과 물을 드나들며 생긴 다양한 궁금증과 물음이 매일 자라며 서식하고 있다.

그중 섬과 섬사람, 바다가 있다. 강은 물을 구획하면 흘러서 마을과 행정구역 등의 경계로서 서로의 권리와 상대의 책임을 요구하지만, 바다의 경계는 섬이나 연안의 생업을 잇는 사람들과 몇몇 전문가나 최신의 위성 장비 같은 기계가 아니면 경계도 불분명하고 권리와 책임도 힘의 작용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이 불분명한 권리와 책임 속에서 거친 자연환경과 고립된 외로움에 내몰린 섬과 섬사람들은 스스로를 바다만큼이나 거칠게 만들었고, 그리 보였다.

멀리서 섬을 바라보면 섬과 어울린 바다는 너무 평화롭고 아름답다. 하지만,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양쓰레기, 가뭄, 슈퍼태풍, 해양생태계 파괴, 멸종 등, 섬은 우리 시대가 떠안은 모든 환경 문제의 표본이고 상징이 되어버렸다.

이런 섬의 환경 속에서 나처럼 물에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이나, 여행자들처럼 잠시 섬을 스치고 갈 이방인들이 식자의 편견만 가지고 그 섬과 섬 주민들에게 기후, 해양, 환경 생태와 같은 말이 갖는 위중함이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자연재해와 이변들의 책임 일부가 당신들에게도 있음을 말하는 것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쥐보다 같은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다. 어쩌면 그리 말하기 전에 섬과 섬 주민도 스스로 알고는 있지만, 어쩔 수 없음에 살아가는 것인지도 몰랐다.

#빨난 섬 프로젝트

플라스틱이 없는 섬(Plastic no'N Seom), 쓰레기로 빨(화)이 난 섬이라는 뜻의 프로젝트는 섬 주민과 이방인인 여행자들이 문화 콘텐츠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섬 주민들이 이를 통해 섬이 처한 지금의 현실을 스스로 자각하게 만들어보자는 섬 정착 이주민 관점의 출발이었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매일 재생산되는 수많은 문화 콘텐츠도 '기후 위기'의 큰 명제 앞에서는 한낱 쓰레기와 다를 바 없다는 엄중함의 상징적 자각을 스스로 해보자는 취지의 **공정여행 프로젝트**이기도 했다.

우선 함께할 주민들을 모으는 일이 가장 중요했다. 섬에 거주하면서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여행 프로그램을 찾는 사람들을 수소문하여 한명 한명 찾아다녔다. 그렇게 모인 이들 중에는 섬에서 태어난 이들도 있었고, 물에서 태어나 섬으로 살러 들어온 이도 있었다. 그들의 공통점은 섬 주민인 동시에 섬 밖에서 살아본 적이 있다는 것이다. 섬을 떠나본 경험이 섬의 모습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섬지니협업체'**라는 주민 조직을 먼저 만들었다. 섬에서 소수인 채 살아가는 이들과 이제 청년들 다 떠나고 늙은이 몇몇 모여서 섬의 아침을 여는 모습이 섬에 얹혀사는 것이 아닌 섬을 지고 사는 모습으로 보였던 것이다. 지금까지 9개 섬, 40명 정도의 주민들이 각 섬에서 최소한 한 명 이상 우리의 이야기에 상응해주는 주민을 만들자는 계획으로 3년째 서로 모여 의논하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들과 **섬마을 영화제와 빨난섬 음악회**를 궁리했다. 섬 주민들의 **문화 향유권 회복과 기후 행동**이라는 주제 의식 아래 섬의 곳곳을 공연장으로 활용했고, 불필요한 무대의 가설 없이 파도 소리와 새 소리, 주민의 뱃소리 모두를 공연 일부로 녹여냈다. 낮에는 해안의 쓰레기를 줍고, 식사에는 모인 이들이 주민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리고, 모인 쓰레기를 쌓아두고 음악을 들으며 우리는 섬 주민들과 여행자들이 기후 위기와 해양환경의 문제가 누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님을 함께 공유하길 바랐다.

섬의 해안을 걸으면 발신지 불명의 온갖 종류 쓰레기와 이질적인 부유물들이 썩어서 오뉴월의 벼보다도 빨리 자란다. 그런 것들을 줍고 있을 때, 어느 주민은 '또 쌓일 건데 뭣 하러 쓸데없는 일을 하냐'며 말을 툭 건넨다. 그러면 나는 "오늘 하루치만큼 쓰레기는 안 쌓이겠죠"라며 웃고 만다. 그 쓰레기 중에는 섬 주민에게서 나온 것도 많다. 모든 쓰레기가 그들의 책임은 아니지만, 그중에 양식장의 스티로폼이나 폐그물과 같은 어구들은 변명의 여지도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오 년째 물메기가 잡히지 않아 빈 채로 녹슬어가는 추도의 물메기 덕장이나, 담그면 대물 감성돔이 손 저리게 올라오던 것이 먼 전설이 되어버린 욱지도의 갯바위나, 국립공원 표지판 너머로 바스라진 굴 양식장의 스티로폼 조각들이 선착장 돌 틈마다 빼곡한 추봉도의 갯가에 살면서도 이것이 지금 그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다.

섬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용기에 박수를, 그들의 외로움에 위로를, 그들의 가련함에 눈물을 보낸다. 그 섬사람들의 삶을 보면 저 산업혁명의 시대, 변화되는 세상과 단절된 채 탄광의 어둠 속으로 내몰린 노동자의 손 새장 속에 들린 카나리아가 떠오른다. 가스가 차오르면 민감한 카나리아는 고통에 지저귀고 몸부림쳤을 것이다. 어쩌면 무너지고 죽어간 탄광 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어느 자본가를 위해 노동자들과 함께 순장 당했을 그 새 한 마리가 마치 내 앞의 선 섬과 섬 주민들 같았다.

부산 해안가 고급 아파트 단지에 몇 해 전부터 파도가 방파제를 넘나들고 바닷물이 높아지는 재앙적

인 기상의 반복 속에서 바닷가 어딘가에 성벽 같은 방파제를 쌓아 만들 계획이 있다고 한다. 기후 위기의 최일선인 섬에는 바닷물이 몇 치 높아지면 포구 앞 구판장의 문지방 앞까지 물이 칠랑거릴 것이다. 몇 치 더 높아지면 섬 할매 집 마당에 정지 아궁이가 잠길지 모를 일이다. 이들을 위한 방파제는 누가 준비하고 있는가? 어느 하나 제대로 연민해 주지 않는 섬 사람들의 삶은 누구를 위한 순장인가?

#우리의 행동은 계속 이어진다

바다에 잠겨버린 시대, 문화는 어느 해안가에 떠밀려온 쓰레기가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뿔난섬 음악회를 통해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섬에 밀려든 하루 이틀치 만큼의 쓰레기를 치울 뿐이다. 섬 주민들에게 며칠 동안 공연을 함께 나누고 밥 한 끼 대접하며 외로웠을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할 뿐이다. 섬 주민들이 알아차리거나 혹은 아직은 못 알아차려도 우리의 행동은 계속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또 다른 기후행동이라고 정의한다.

인지하고 이겨내려는 기후행동의 시간보다 기후재앙이 더 빨라서 우리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채 이 행성에서의 마지막을 맞이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루치의 쓰레기를 치우면 하루만큼은 더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하루만큼 위로를 받으면 하루만큼은 더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섬 주민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여행자들과 함께 뿔난섬 프로젝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자연의 생명 안에서 인간이 어떤 것의 주인도 될 수 없고, 누군가의 의지로 함부로 죽임을 당할 세상에 나쁜 새는 없다. 나쁜 섬은 없다.



뿔난섬 음악회, 그리고 비치코밍

1제곱미터의 우주

창 파

실험실 C 아트 디렉터

#다대포를 수집하기

다대포는 어떤 곳인가, 또는 무엇으로 이뤄진 장소일까. 당신은 다대포라는 도시에 대해 어떤 기억을 지니고 있는가. 이 글은 《1제곱미터의 우주》 프로젝트로 2021년 가을부터 2022년 여름까지,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다대포를 오가며 몽글몽글 피어올랐던 장소의 면모나, 만났던 이들의 기억에 관한 이야기다. 매서운 바람이 불던 날 물운대에서 겨울눈¹을 기록하고 내려오다가 인상적인 풍경을 마주하였다. 성창기업에 산더미처럼 쌓인 통나무와 아파트 병풍 사이로 자그마한 해안에 한 무리의 채집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이들은 모두 허리를 숙인 채 열중하여 무언가를 줍는 중이었는데, 미역인지 조개인지 알 수 없었다. 저렇게 줍는 것들을 과연 먹을 수 있을까. 여러 날 동안 그곳에 가면 같은 모습의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궁금증을 키워가던 어느 날, 바다가 낮아지는 사리²에는 해변에서 미역과 파래를 채집할 수 있다는 것과 이를 아는 사람만이 이곳에서 과감하게 해초를 줍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봄이 깊어지자 그들의 모습은 감쪽같이 사라졌다. 해초 채집의 계절이 막을 내린 것이다. 다른 물엿³의 시기가 돌아오면 홀연히 다시 모습을 드러내겠지. 바다와 삶의 시계를 맞추어 살아가는 법을 아는 고수들, 어촌의 계절 시계를 정확히 아는 존재를 깨닫게 해준 일화였다. 그들에게 자연의 시계를 헤아리는 법을 배우고 싶다. 기술이 고도화된 현대사회는 무엇이든 데이터로 예측할 수 있으며, 유튜브라는 새로운 정보의 바다에선 타인의 지식을 십사리 습득할 수 있다. 그러나 몇 번의 클릭과 달리 '자연의 철과 때를 기다리는 일'은 놀라운 경험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걷기로 했다. 동네 골목이나 시장에서, 마을과 가까운 숲이나 바닷가에서 그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기억에 의존해 장소에 새겨진 생활사와 그곳만의 특수한 자원 그리고

1 겨울눈은 식물이 겨울을 지내기 위해 여름부터 가을까지 만드는 '잎눈'과 '꽃눈'이다.

2 음력 보름과 그믐 무렵에 밀물이 가장 높은 때. [네이버 표준국어대사전]

3 다대 토박이 주민과의 대화 중에서 주민들이 여러 번 사용한 표현으로 바다에서 나는 먹을 것을 의미한다.

지금은 사라진 것들의 흔적에 대해 수집한다. 우리의 도시에는 오랜 세월을 걸쳐 누적된 이야기가 산재해 있다. (불을 밝히면 서서히 밝아지는 방처럼) 지역에 생활사와 식물문화사의 교차점을 연결하다 보면, 그곳의 고유한 맥락이 서서히 드러난다. 신기루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해초 줄기는 사람들처럼 말이다.

지난 6월, 《1제곱미터의 우주》 프로젝트에서 물운대라는 생태공간과 다대포 1사장이라는 생활사 공간을 중심으로 현장과 자료 연구의 과정을 거친 후에 해당 공간에서 장소특정적 전시를 열었다. 숲속의 오솔길과 몽돌이 자글자글 소리를 내는 바닷가 그리고 횃집 골목 사이를 거닐면서 관객은 다대포에 자생하는 식물에 대해 알아가고, 작품을 감상하거나 체험하며, 다대 토박이 주민의 이야기에 다가선다. 이때 관객은 그곳에 자연을, 예술 작품을, 지역에 요소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행동력을 요구받게 된다. 이것은 이번 프로젝트의 중요한 주제이자 개념인 ‘1제곱미터’와도 연관되어 있다. ‘1제곱미터’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한사람 정도 앉았을 만큼의 작은 공간이다. 그러나 그 속에는 무한의 이야기가 잠재되어 있는 소우주이기도 하다. ‘1미터’는 한 팔을 쭉 뻗었을 때, 사회적으로 개인이 고유성이 지켜지면서 타인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기에 적절한 거리이다. 나와 타인, 나와 동네, 나와 동식물처럼 다양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간격이다. ‘1미터’의 공간에는 무수한 생명이 깃들여 있다. 물운대에서 어느 곳이든 가만히 앉아 1미터의 공간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곳엔 엄청나게 다양한 식물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땅속에는 씨앗과 뿌리가 들어 있고, 이와 연결된 곤충과 동물도 그 장소를 드나든다. ‘1미터’는 생명을 움트게 하는 에너지와 자양분의 공간이다. 우리는 《1제곱미터의 우주》라는 렌즈를 통해 다대포 속 다양한 ‘1미터’를 관객과 함께 찾아보고자 하였다. 1제곱미터의 우주는 장소가 지닌 생태적인 가치와 생활사적인 의미를 밝히는 문화예술의 실천이다.

다대포는 우리나라의 가장 크고 긴 낙동강이 흘러 바다와 만나는 기수역이다. 강과 바다의 경계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민물과 갯물이 자유롭게 섞이고 어우러지며 다양한 농도의 염도가 분포하며, 덕분에 풍요로운 생태환경을 갖추었다. 덕분에 다대포 앞바다는 다채로운 종이 서식하고, 이러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오래전부터 포구로써 어촌이 형성되어 사람이 정착하였다. 다대포 옛 포구의 모습을 다룬 기사(경향신문 1983년 02월 04일 발행)에는 한 장의 사진이 실렸다. 봄철을 맞이해 배를 수리하는 두 어민의 모습과 뒷배경으로 꽤 많은 나룻배가 바다에 떠 있다. 현재는 볼 수 없는 광경이나, 다대포는 옛날부터 배가 드나드는 물류의 중심지였다. 포구, 군사지역, 여가시설과 산업시설, 밀항과 밀수, 황금어장과 활어시장처럼 바다를 맞댄 다대포는 부산의 끄트머리 항구이자 풍요를 상징하는 곳이다. 한 주민은 인터뷰에서 “바다에는 캐도 캐도 황금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던 아버지의 말은 해주셨다. 황금어장. 다대포는 어민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고 기댈 수 있던 곳이고, 어울려 살아가는 공존의 토대였다. 1960년까지 다대포에서 멸치가 잡혔다고 한다. 그러나 다대포 앞바다에서 멸치가 사라지고, 후리소리(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7호) 문화로 남아 전승되고 있는 것처럼 바다도 다대포도 사정이 달라졌다. 1967년 다대포 공설 해수욕장 개장, 1970년대 목재업체들의 설립, 1981-87년 다대지구 택지 조성사업으로 인한 대단지 아파트 건설 등 도시의 경관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고, 1990년대 거주 인구수가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 무렵 금속공장, 냉동창고, 수리조선, 신평·장림공단, 소각장 등 산업시설이 늘며 산업을 견인하는 도시의 역할이 더해졌다. 다대포는 생태환경과 산업도시의 모습이 뒤섞인 풍경을 갖게 되었다. 무질서하면서도 활기가 넘치는 경관 사이로 어촌의 일상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예술로 만나본 다대포

실험실 C는 강은경, 고등어, 김경화, 김덕희, 김민정, 조혜진 작가와 다양한 전문 인력이 함께 하는 기획팀을 구성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다대포예를 리서치 하였다. '1제곱미터의 우주'에 관한 주제 스터디, 다대포의 거시사 조사 및 정리, 생활사 수집, 9명의 주민을 인터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생각을 전시에서 선보였다. 전시는 깔끔한 갤러리가 아니라 거친 생활의 공간으로 선택했다. 바로 우리가 걸었던 리서치 장소인 몰운대와 다대 제1사장을 중심으로 관객과 걸을 수 있는 루트를 물색했다. 작품을 보고 체험하고 듣기에 적합한 장소를 고르는 일은 꽤 다리품을 팔아야 한다. 전시 구성은 '1제곱미터의 우주', '다대 포시즌(four seasons)', '인 시즌(in season): 제철과 움직임들'로 나뉜다. '다대 포 시즌'은 몰운대 속에서 1제곱미터의 우주를 찾아보고 감각하는 생태 체험 프로그램으로, 계절마다 다시 돌아오는 자연의 시스템이 선사하는 여러 장면 속에서 6월이라는 한 페이지를 함께 탐색한다. 현시대에 우리의 소통은 어떻게 달라졌으며, 관계의 회복이란 무엇인가를 다대포의 자연 속에서 사유하고 오감으로 감각하는 시간이었다. 몰운대 입구의 큰길이 아닌 사잇길을 30분 정도 걸어가면서 진행되었는데, 동백나무, 사스레피나무 군락, 새머루, 큰천남성 등 크고 작은 식물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곳이다. '1제곱미터의 우주'에서는 예술이라는 렌즈를 통해 다대포의 비가시적 세계를 다루었다. 6명의 예술가는 다대포의 생태적 요소, 주민의 기억과 진술, 사회구조와 갈등, 시공간의 압축 등 도시의 이면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인지하고 상상하도록 예술의 언어로 구체화하였다. 드넓고 풍요로운 바다와 산업시설, 폐소각장, 가덕도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양지바른 터에 설치된 김경화 작가의 <자유의 가능성>(2022)은 다양한 존재를 보듬고 키워내는 어부림(魚付林)으로써 몰운대의 생태적인 에너지와 그에 못지않게 해안에 빼곡한 유리조각, 어업용 페스티로폼 쓰레기를 채집하고 다듬어 사람과 자연의 경계에 선 다대포의 장소성을 간파한다. 높게 자란 참나무 군락과 사스레피나무 군락에 설치된 김민정 작가의 <보이지 않는 루페>(2022)는 리서치에서 수집한 자연과 도시의 이미지를 미시레벨로 확대한 드로잉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는 순간 인간과 무관하게 진화하고 변화해온 것들과의 관계를 세밀한 시선으로 쫓는다.



김경화, <자유의 가능성>(2022)



김민정, <보이지 않는 루페>(2022)

고등어 작가는 몰운대에 있는 식물들이 듣는 소리를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드로잉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하는 사운드 스케이프 작업 <다섯 개의 귀: 식물처럼 듣기>(2022)와 상호 작용하는 두 종의 생물의 공진화와 다대포의 밀항을 연결한 영상작업 <빛 먹이기>(2022) 원화를 전시하였다. 김덕희 작가의

〈기억하는 바다〉(2022)는 수천만 년 동안 퇴적하며 형성된 물운대의 자갈과 바위, 식물과 바다가 조우하는 무한한 시간 속에서 인간의 존재에 대하여 사유하도록 제안한다. 물운대 해안에서 관객은 ‘바다를 기억하는 방법’이라는 안내서를 따라 자연에 놓였을 때 느껴지는 감정과 몸짓이 지닌 의미를 생각하고 경험한다. 강은경 작가의 〈파래 떡: 바다와 나는 나누어 먹는다〉(2022)는 다대포에 환경적인 변화로 사라진 것들에 대해 인식하고, 또다시 헤아릴 수 없는 원인으로 사라질 수도 있는 것들의 안위를 바라는 식경험 퍼포먼스이다. 조혜진 작가는 〈합판에서 몽돌까지〉(2022)라는 제목처럼 합판공장부터 몽돌 해변까지 오가며 나무를 모았다. 얇은 낱장의 나무가 겹쳐지고 단단해지며 쓰임새를 획득한 합판의 개념과 거센 조류의 영향으로 모든 것이 공평하게 동글어지는 몽돌의 태도에 집중하며 이를 조각으로 설치한다.



김덕희, 〈기억하는 바다〉(2022)



조혜진, 〈합판에서 몽돌까지〉(2022)

‘인 시즌: 제철과 움직임들’은 황금 어장이라 불릴 정도로 풍요로운 바다를 배경으로 형성된 다대포의 생활사를 다양한 매체로 찾아보고 체험하도록 제안한다. 지역사와 생활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마디 연결하기’, ‘파래’, ‘제철과 움직임들’, ‘그럼에도 다대포’는 역사의 질곡과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계절마다 알맞은 것들이 존재하고 순환하는 다대포의 제철(in season)을 되새기며 상기하여 본다. 다대포의 장소적 특성, 어업의 생활상과 변화, 사시사철 반복되는 움직임에 대하여 거시사와 생활사를 교차하는 아카이브 형식으로 풀어내었다. 사운드스케이프 〈다대포의 제철〉은 전시 관람의 끝자락에 감상하는 작품으로 숲길을 걸어 내려오면서 이곳의 제철에 대한 주민의 인터뷰 목소리를 재편집한 음성 작업이다.

물운대 숲길과 다대포항의 공장들과 1사장의 상가들과 고운 모래 위를 걸으며, 때론 고요한 숲에서 솔바람 파도를 맞으며, 주체적으로 생활사를 구축해 온 아홉 명의 주민과 마주 앉아서 우리는 무수한 대화를 나누었다. 다대포라는 장소가 지닌 풍요롭고도 독보적인 환경과 그곳에 일어난 공간적인 변화를 세밀하게 찾고 생태와 예술과 생활사를 발견하려 했던 《제곱미터의 우주》는 다대포에 감추어진 여러 우주를 비추어 준다.

“생명평화미술행동”, 사회적 문제에 미술로 행동하다.

성호숙
화가

#들어가며

하늘이 투명하고 빛나는 날엔 마치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듯하다. 비 개인 후 씻겨나간 마 알간 얼굴들, 초록빛 바다와 나뭇잎은 바람에 넘실거리고 달의 인력에 의해 촘촘듯 출렁거리는 파도는 깊은 숨을 쉬고 있다. 별들은 지구별에 어떤 메시지를 전송하는 듯 끊임없이 반짝이고 있다. 귀 있는 자 들으라는 것처럼.

하늘이 어둡게 내려앉았다. 우리가 눈 막고 귀 막은 것처럼. 보다 못한 하늘은 튼베리라는 어린 아이 를 보내 깜빡이기도 한다. 지구가 몇 개라도 되는 듯 다음 세대는 없는 것처럼 마구 파헤치고 퍼 쓰고 있 는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마지막 경고를 하며 깜빡인다.

천천히, 이웃과 자신을 살피며 살아가야 하지만 요즈음의 삶은 더 할 일이 많아지고 이 원고를 써야 하는 날 연안환경미술행동으로 삼척을 가게 되었다. 삼척에서 석탄화력발전 반대행동으로 지역의 하태 성, 성원기, 김덕년 집행부와 김지영 연구위원님께서 생명평화미술행동 작가들을 초대하여 미술행동과 전시를 하게 되었다. 삼척은 요즈음의 기후위기가 자행되는 하나의 원인인 듯 모순의 축소판인 것 같다. 생명평화미술행동이 2020년 새만금 미술행동으로 부터 시작되었듯이 현시기의 모순들이 집약된 곳 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것이 자본의 시스템 아래 움직이니 이 체제 안에서 움직임의 한계를 느끼다 가도 갈등의 정점에 있는 곳으로 가게 된다.

#환경에 대한 관심의 시작, “새만금”

생명평화미술행동이 시작된 2020 새만금문화예술제의 제목은 “새만금 코이노니아”였다. 코이노니 아는 영적 사귀, 나눔이다. 2020 새만금문화예술제에서 문규현 신부님은 “우리와 더불어 살고 있던 풍 요의 땅에 백합과 동족, 바지락과 뚝장어, 실뱅장어와 주꾸미, 전어와 송어가 함께 어우러진 공간, 철새들

의 군무가 장관을 이루어졌던 땅에 33km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가 들어선 후 방조제 안쪽 담수호는 썩은내가 진동하고, 하얀 썩데기만 남은 백합의 시체는 산더미처럼 쌓이고, 해마다 물고기의 떼죽음은 늘어가며, 군무를 펼치며 날던 철새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풍요의 땅, 축복의 땅이었던 이 곳은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황량한 사막이 되어버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재앙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게 새만금은 회한의 갯벌, 상실의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했던 잘못과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오만함에 대한 뉘우침을 통해 다시 새만금이 생명의 바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못 생명의 희생에 대한 용서를 청하고 우리 함께 생명과 상생, 공존의 땅으로 새만금을 변화시켜 나갑시다...” 라고 간절한 소망의 말씀을 전하셨다.

홍성담 화가는 “대지의 어머니의 자궁이 바로 새만금 땅인데 사람의 자궁이 막히면 육체의 생명이 위험하듯, 땅의 자궁인 새만금이 틀어 막히면 우리나라가 병이 드는 절체절명의 순간인 것입니다. 생명의 자궁인 새만금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에 많은 예술인들이 미술행동에 동참한 운동이 바로 새만금문화예술제”라 하였다.

생명평화미술행동, 연안환경미술행동은 새만금을 포함하여 남한의 바다를 다니며 연안의 오염을 목격하고 플라스틱 바다가 되어가는 폐해도 알리고 못 생명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작가들이 모여 움직였다. 작가들 중에는 연안환경미술행동 이전부터 환경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작업해오던 작가들도 있고 미술행동을 하며 합류한 작가들도 있다. 연안환경미술행동은 그동안 신안 앞바다, 군산, 울산, 인천, 삼척 두 번, 부산, 새만금 두 번, 목포, 흑산도를 다니며 플라스틱의 폐해와 멸종위기를 알리고 작업으로 발언하였다.

#생명, 평화, 환경을 생각하는 예술인들의 행동

생명평화미술행동의 작가들은 지금 여기의 환경생태 문제를 안고 출발하였는데 작가들의 면면을 보면 주로 세 부류라고 할 수 있다. 지역 미술행동과 전시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여한 작가들 중에 두 부류는 80년대 광주항쟁으로부터 세례를 받아 시작된 광주, 목포 작가들, 홍성담, 홍성민, 전정호, 박태규, 김희련, 주홍, 김화순 작가와 80년대 미술운동과 노동 현장에 함께 한 미술동인 <두렁>의 성효숙, 정정엽 작가, <시대정신>의 박건 작가가 있다. 이천년대의 화두인 생태환경 문제에서 새만금의 독을 트고 물을 흐르게 하라는 취지에서 제1회 새만금문화예술제에서 첫 발을 내민 것이다. 작가들은 해창갯벌 근처의 초등학교 강당에 모여 만장을 그리기 시작하였고 해창갯벌, 수라갯벌 일대에 만장을 걸고 바다가 들려주는 신음, 바람 소리와 함께 하며 다음 세대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어야 하는지 고민하였다. 세 번째는 80년대의 정신을 이어받은 후배 세대들과 환경생태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작가군으로 강민구, 박성호, 천현노, 전해옥, 주라영, 권계영, 서진선, 이소담 작가이다.

연안환경미술행동은 비단 바다에 관한 행동만은 아니다. 삼척에서 보여주듯이 에너지의 문제, 기후위기의 문제와 한 배를 타고 가는 것이다.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환경 생태문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몇가지 방법을 나누어 보고 공공의 지원책도 생각해 본다. 지역마다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하는, 예를 들면 2021년에는 새만금 문제를 보다 많은 시민들과 나누기 위해서 전주의 광장에서 문화예술제를 하였고 전주의 70

여개 단체들이 함께 하였다. 인천에서는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인천민예총이 결합하여 시민들과 함께 하였고 목포에서 목포환경운동연합과 예술가들이 목포의 초등학교들과 만나며 커뮤니티 아트, 미술행동과 전시를 한다.

이러한 움직임에서 첫 시작의 내용과 형식이 중요하므로 재원은 작가들이 직접 호주머니를 털어 작업해왔다. 관과 결합할 때 부작용의 사례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이나 재단이 예술가를 지원할 때 지원은 하고 간섭을 하지 않는 사례를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 지역마다 존재하고 만들어지고 있는 재단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아낌없는 지원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인천의 구 단위 재단에서는 오히려 재단이 주도하여 기후위기 환경생태 문제를 시민들과 만나는 지원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지역의 마을 활동가들을 모집하고 지역의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례들도 있다.



2021년 인천에서의 미술행동

#나가며

지금까지 만든 세상에 책임을 져야 하는 기성세대가 된 이 시대에 이런 황폐한 세상을 물려주게 되어 한없이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다. 80년대부터 우리의 노력이 제대로 되었다면 이런 세상일 리가 있겠는가. 전국의 연안이 있는 지역을 다니며 미술행동과 전시를 하는 우리의 힘은 거대한 자본의 힘보다 미약해 보이지만 우리는 그동안 독재정권이 무너지는 것도 보았고 시민과 노동자들의 권리도 쟁취하였다. 현재가 부끄럽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며 움직이고 발언할 것이다. 우리가 민중들, 시민들과 함께 이루어낸 그 힘으로 희망의 세상의 꿈을 놓지 않고 갈 것이다. 생명평화미술행동의 동지들이 있음으로 이 황폐한 시대를 따뜻하게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짧은 줄고를 마친다.

예술계 밖에서 바라보는 기후와 문화예술의 접점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

#환경과 탄따라

무리하게 예술의 영역에 종사하는 분들을 '탄따라'라고 부른다. 전업 환경운동가로 산 지 36년, 사실 탄따라들과 환경문제를 공유했던 기억은 제법 오래된 듯하다. 낙동강, 금정산 관통 고속철도 등등에서 극과 노래, 시 또는 창작무용 그리고 그림으로 하나가 되어 활동한 경험이 있다. 예컨대 삼랑진 산업 폐기물매립장의 문제를 다루었던 극단 자갈치의 '뒷기미 병신굿'은 현장을 공유하며 만들어진 마당극이다. 극단의 지향점과 당시 환경단체 공해추방운동협의회(약칭-공추협: 부산환경운동연합 전신)의 반핵 반공해 미션이 의기투합한 것으로 지역 환경운동사에서도 중요한 비중으로 기록되는 사건이다. 물론 이 싸움은 지역민이 이겼고 사업은 백지화되었다.

굳이 옛 기억을 들추어낸 것은 '접점'이란 단어 때문이다. 이 또한 오랜만에 접한다. 하나의 목표를 위해 같이 손을 잡는다는, 그 연결 고리는 늘 열려 있다. 다만 세월이 흐르면서 역동성은 다소 무뎠지만, 더 세분화되고 다양화되었다. 앞서 지면을 장식한 이슈들은 또 다른 현장이라 본다. 그럼에도 현장은 늘 문화예술계 탄따라들과의 결합 혹은 접점에 목말라 한다.

#인간의 욕심이 부른 재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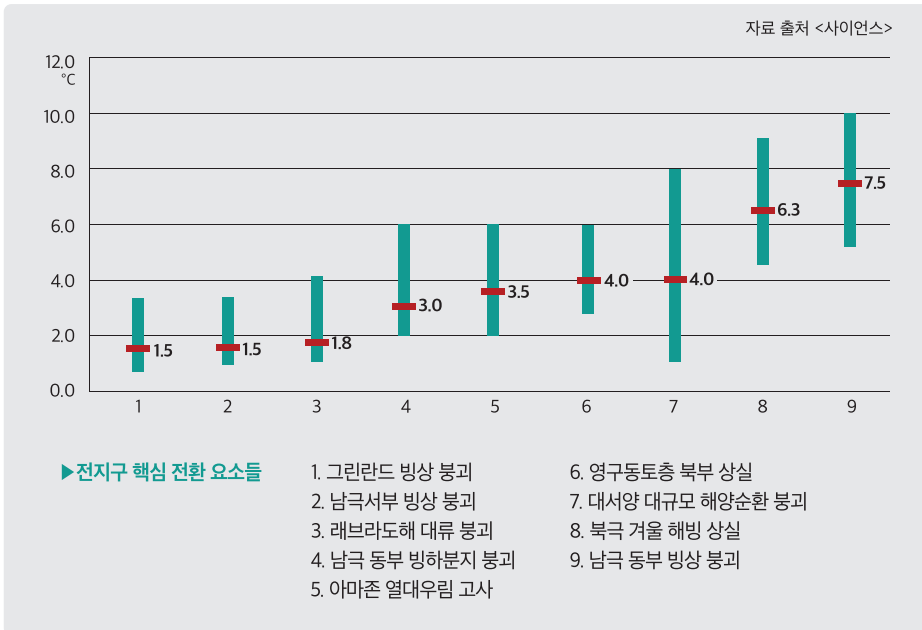
저성장 시기를 타개하기 위해 작당되는 거대개발의 음모는 지구온난화로 비롯된 기후위기에 역행할 뿐 아니라 지역의 소중한 자연자산이 사라짐으로 인해 생물종다양성에 치명적이다. 안타까운 노릇은 코로나19의 등장과 지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 원인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가 왜 등장했는가. 인류의 과도한 개발욕구가 야생의 경계를 허물어 버림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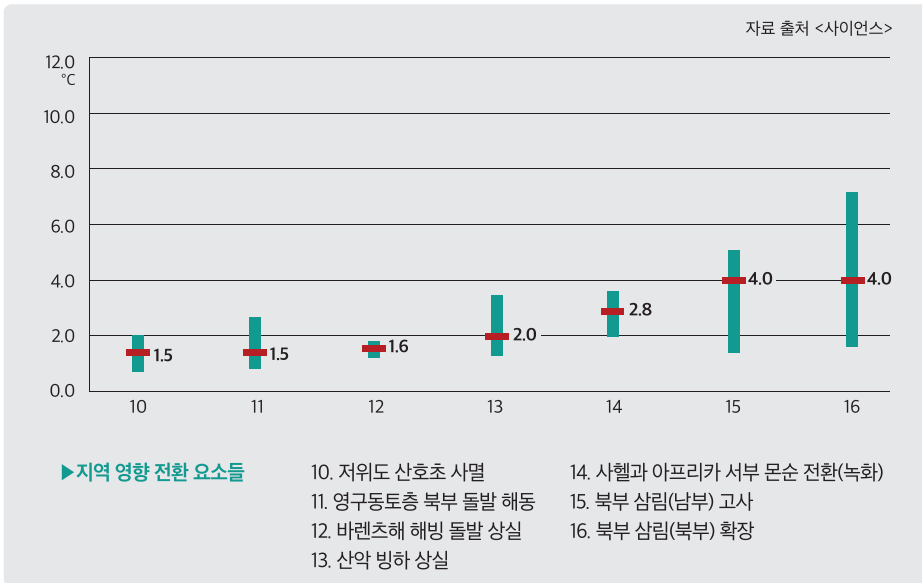
그 점염 전파력과 파괴력 앞에 인간은 속수무책이었다. 전쟁이 아닌 상태에서 국가간 교역과 이동이 차단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란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 집회와 회의 세미나는 비대면이 강제되었

다. 이 시기 ‘코로나의 역설’이라고 잠시나마 짓눌렸던 대기가 정상을 찾아 맑았던 적이 있었지만 기후 위기를 조장한 중독적 풍요와 파괴적 성장의 신화를 깨지 못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생활고의 압박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여 맞이했던 ‘기회’조차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로 오역되었다. 문명의 반성과 새로운 이정표 찾기는 그렇게 유야무야 됐다. 고약하게도 IMF가 그랬듯 코로나는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동시에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간에 축적된 온난화에 지구는 더는 버틸 힘을 상실하고 와해되고 있었다. 그래서 어쩌면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고서야 경제활동이 급락했던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한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은 견잡을 수 없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어디쯤 와 있을까?

언론을 통해 거의 매일 전해지는 엄청난 면적의 산불과 폭염, 홍수 나아가 남북극을 비롯한 고산지대의 빙하유실과 해수면 상승, 또 이로 인한 생물종의 격감은 기후재앙 시대로 접어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2000년대 초기에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펜타곤 보고서’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일테면 동유럽 곡창지대가 장기 가뭄으로 흉작이 이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웃 국가들이 윤리적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다가 정작 자국 상황도 어려움에 직면하자 경제봉쇄에 돌입하면서 충돌이 일어난다. 처음에는 재래식 무기가 등장하지만, 나중에는 가공할 무기가 등장하면서 중국에는 서로 치유치 못할 길로 간다는 시나리오다. 그 시초가 이상기후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소 다른 양상이지만 작금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본질은 같다. 그 여파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옆친 데 덮친 격으로 물가는 앙등했다.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식량, 에너지문제가 전면화되었다.





16가지 기후위기 티핑 포인트 임계온도. 빨간 줄은 각 기후 티핑 포인트가 일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임계온도값. 검은 막대는 임계온도 추정치 상한과 하한 범위. (자료=<사이언스>)

이같은 상황은 우리나라라고 예외일 수 없으며 오히려 그 속도가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데 심각해진다. 2020년 기준 곡물자급율 20.2%, 식량 자급율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다. 나아가 신재생에너지시장을 낙후시키는 기형적 에너지 자급율은 모든 것을 수입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위협변수가 될 것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기후변화대응지수 61개국 가운데 58위 등을 근거로 '기후악당(climate villain)'으로 불려진 지 오래다.

오늘의 환경운동은 이같은 국내외적 상황과 분리될 수 없다. 여기에 수반되는 의제는 세대간 환경정의 혹은 더 넓게는 기후정의, 인권과 인종, 경제적 불평등, 민주주의 등을 관통한다. 체제가 문제되긴 하지만 지구 등골을 빨아대는 흡혈귀는 자본주의며 사회주의를 가리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지난 200년 화석연료 남용으로 인한 기후변화를 어떻게 반전시킬 것인가이다. 솔직히 반전은 고사하고 현상 유지만이라도 된다면 파국의 시간을 다소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아래로 낮추기 위한 국제적 약속과 노력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범위를 아주 좁혀 부산으로 무대를 옮겨 보자

이 도시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구적 차원의 탄소중립 달성 실천이 부산이라고 예외일 수 없는데도 대응과 방법 구사는 여전히 오래된 노래를 틀고 있다. 대규모 개발을 통해 당면한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요량으로 목을 메다시피 전사적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대표적 현장이다. 내걸은 기대 효과가 만만치 않지만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건설의 비용(C)대비 편익(B) 비율(B/C)이 0.51로 나

왔다. 이 비율이 1 이상 나와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그럼에도 이를 부정하고 그 값이 틀렸다면 그 모든 것이 항공마피아의 농간이며 수도권 중심주의라고 항변한다.

관련하여 환경단체들은 가덕도가 신공항부지로 적지가 아닐뿐더러 이로 인한 생태환경적 파괴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문제를 제기해왔다. 실제 그렇다. 부산시민 누구도 가덕도의 생태 정보며 역사유적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 개발에 앞서 최소한의 정보 제공과 득실에 대해 숙의할 수 있는 환경은 애초부터 제공되지 않았다. 오로지 월드엑스포 개최 전까지 공항은 만들어져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역에 출현하는 국제 보호종 상괭이며 천연기념물 수달을 비롯한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멸종위기 생물의 서식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생물이 깃든 남해안 유일의 국수봉 100년 숲의 존재는 신공항 건설의 장애물처럼 취급한다.

환경단체는 이를 알리고자 또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차원에서 문화예술 그룹과의 접목에 목말라 한다. 일부 소수 종사자들이 동참을 하고 있지만 그 목소리와 몸짓은 섬에 갇혀 버렸다. 기후위기는 먼 곳에 있지 않다. 관심과 연대가 공존을 가능케 한다. 주변을 돌아보라. 그리고 현장의 아픈 목소리를 따 따라들의 소리와 몸짓으로 재해석하는 실천이 시급하다.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인식과

미래수요 조사 연구¹

- 기후위기에 대한 예술인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

김수정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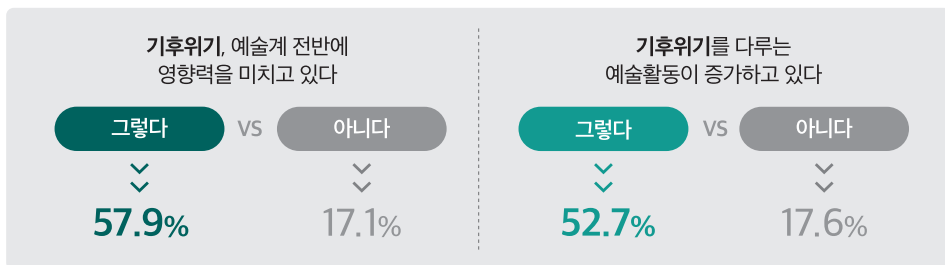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 2021년, 전국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예술단체·문화예술 유관기관 관계자 5,596명을 대상으로 공공지원사업 경험, 예술전반 및 공공지원에 대한 인식, 미래 예술지원사업 수요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중 미래 예술지원사업 수요 관련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①기후위기와 예술정책에 대한 인식 정도 ②기후위기 대응 예술정책에 참여/불참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예술인들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기후위기, 외면할 수 없다

- 기후위기가 예술계에 미치는 영향

> 예술계 전반에 기후위기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기후위기를 다루는 예술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과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후위기를 비롯, 다양한 환경 관련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크게 일상생활 속 직접 겪은 경험, 기후위기 및 재난으로 인한 공연취소, 코로나19 사태 이후 변화하는 예술환경과 인간관계의 양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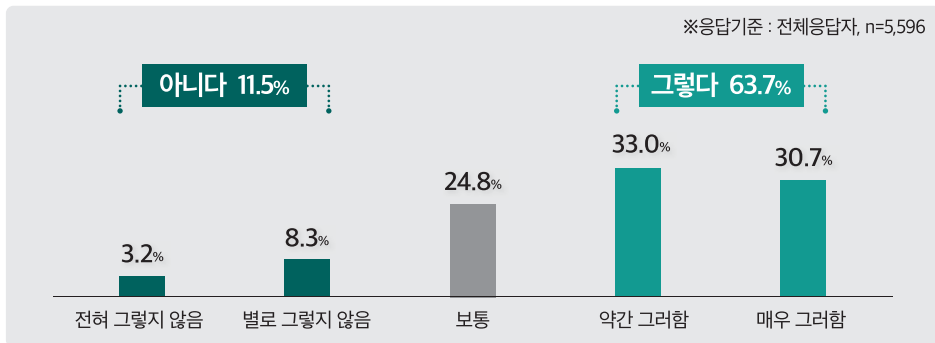


¹ 2021년 11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간. 본 원고는 해당 보고서 중 기후위기에 대한 예술인들의 인식과 기후위기 대응 예술정책 참여 정도를 중심으로 발췌하였음을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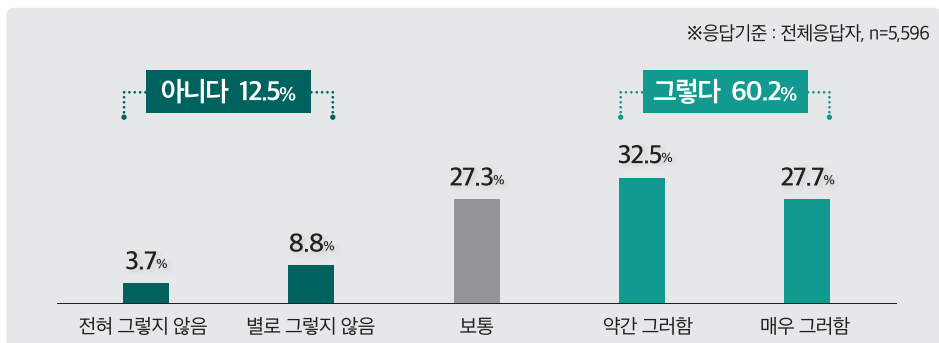
#“예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 기후위기 속 예술의 역할

> 전체 응답자 중 63.7%는 기후위기 담론 매개체로서 예술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예술이 기후위기에 대해 개인적, 집단적 대응방안을 탐구하는 변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 기후위기 담론 매개체로서 예술



[그림 2] 변화 수단으로서의 예술의 역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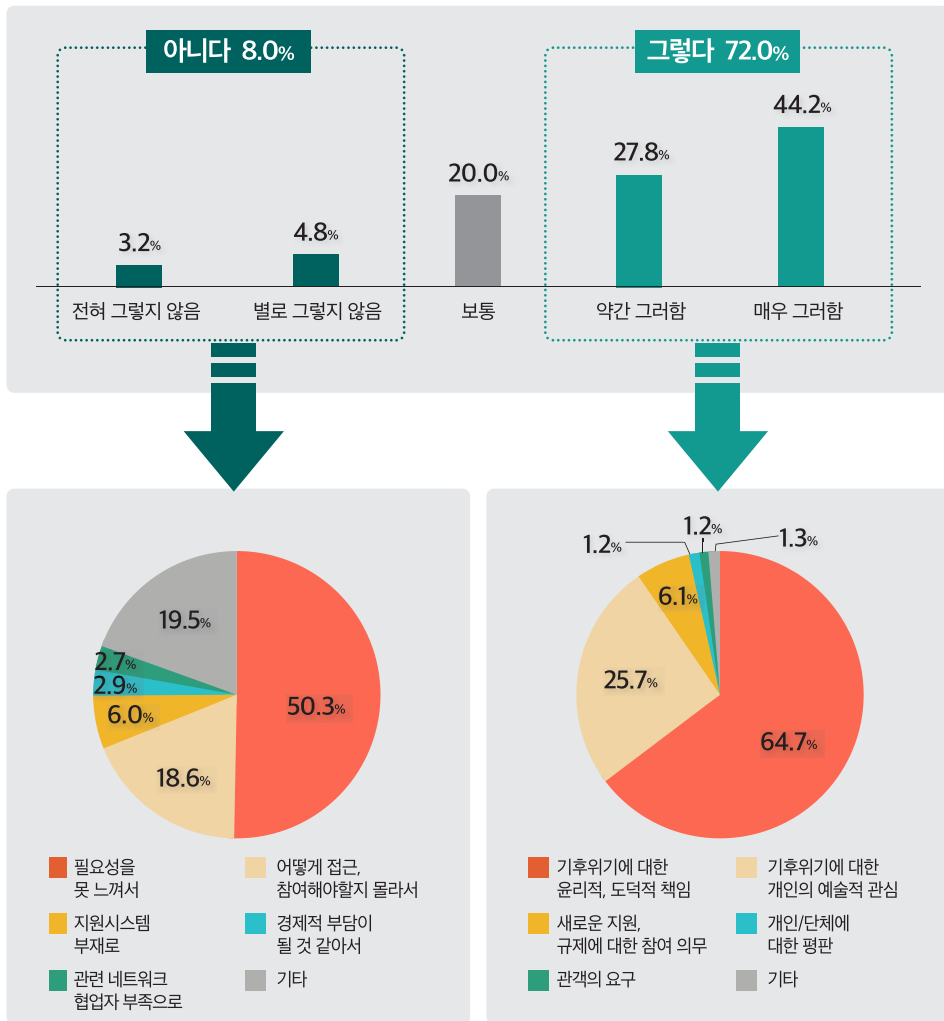
> 한편, 기획 단계에서부터의 작품 재사용 방안 마련, 창·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환경문제 조명, 친환경 소재 활용 작품 제작 등 실제로 이미 예술활동 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사례를 FGI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술정책, 당신은 참여하시겠습니까?

- 기후위기 관련 예술정책 참여 의사

> 기후위기와 관련된 예술정책이 실현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8%인 447명,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2%인 4,030명이었다.

> 예술 관계자의 가장 큰 기후위기 대응 예술정책 참여 이유는 기후위기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책임과, 기후위기에 대한 개인의 예술적 관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에 대응해 앞으로 예술활동 환경에 필요한 것

- 친환경 예술활동을 위한 다양한 여건 마련

- > 친환경 예술활동 독려 가능토록 친환경 활동 효과 가시화(데이터화)
- > 창작과정 중 환경 관련 자문이 가능한 에코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 >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환경 가이드라인
- > 현 정책의 친환경 예술활동 제약 여부 검토 등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2022.09. ~ 10.

부산문화재단

- 부산문화재단, 쿠무다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9.18)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미연, 이하 재단)은 9월 15일 쿠무다(이사장 주석스님)와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지역 문화예술 인재 양성을 위한 교류와 지원 ▲상호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 부산문화재단, UNESCO, EU 지역 교류 확대를 통한 국제문화 교류의 새로운 모델 제시(9.28)

재단은 9월 20일~23일에 걸쳐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5주년 - 조선통신사 세계로 사업’의 일환으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문화외교 사절단인 新조선통신사의 임무를 띠고, “파리 유네스코 본부”, “EU 교육문화총국(DG EAC)” 등 세계적인 문화 관련 기관들과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 부산문화재단, 프랑스 국립거리예술창작센터 리유 뵍블릭(Lieux Publics)과 업무협약 체결(9.30)

재단은 9월 30일 프랑스 국립거리예술창작센터 리유 뵍블릭(Lieux Publics)과 문화예술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IN SITU 차기 운영위원회에 부산문화재단을 협력 파트너로 제안 ▲문화예술분야 교류 협력 ▲예술인과 단체 교류 지원 ▲부산문화재단과 리유 뵍블릭의 인적 교류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 부산문화재단, 2022년도 청년정책 유공 포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10.4)

재단은 2022년도 정부 청년정책 유공자 포상에서 청년을 세대 특화하여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삶 개선과 기존의 정책 개선에 기여한 바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인 복지 지원, 권리침해 피해 구제 전담 조직 만든다(9.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9월 1일(목), 예술인 복지를 지원하고 예술 활동 관련 권리침해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는 전담 조직인 '예술인지원팀'을 신설한다.

- **역대 첫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9.8)**

문체부는 9월 8일(목), 역대 정부 최초로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2022~2026)'을 확정 발표했다.

- **'이건희 기증품 지역순회전'으로 문화 향유의 지역 균형 뒷받침한다(9.26)**

문체부는 10월부터 '이건희 컬렉션 지역순회전'을 본격적으로 개최한다. 국정과제인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와 저변을 확대하고자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의 지역 연계망을 활용, 2024년까지 각 지역을 대표하는 박물관·미술관으로 찾아갈 예정이다.

- **지역문화 현장 의견 수렴으로 새 정부 문화도시 발전 방향 모색한다(9.29)**

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원(원장 차재근)과 함께 9월 29일(목)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가칭) 문화도시 2.0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지난 3년 동안 추진한 문화도시 1단계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문화도시 정책을 새롭게 재편할 계획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ARKO한국창작음악제 이건용 추진위원장 제67회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상(9.5)**

우리나라 창작음악계의 발전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에서 추진하는 기획 사업인 ARKO한국창작음악제 추진위원장 이건용이 제67회 대한민국예술원상을 수상한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중앙극장과 업무협약 체결(9.30)**

예술위 아르크예술기록원은 국립중앙극장(극장장 직무대행 강성구)과 문화예술 분야 자료의 수집·보존·연구 활성화를 위해 교류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업무협약을 9월 29일(목) 국립중앙극장에서 체결하였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자료 수집·보존 관련 협력 ▲문화예술 분야 연구기반 강화를 위한 교류활동 ▲양 기관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기타 양 기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다.

- **새로운 예술을 준비하는 지역예술가를 찾아가는 '아트앤티크 살롱' 교육 개최(10.5)**

예술위는 예술기술 융합 교육프로그램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그동안 참여하기 어려웠던 지역 예술인을 위해,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와 함께 경북·전남·충남문화재단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아트앤티크 살롱' 교육을 추진한다. '아트앤티크 살롱'은 예술위의 아트앤티크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과학기술의 시대에 예술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창작자를 위한 연결과 축진의 장으로 기획되었다.

인천문화재단

- 인천문화재단, 사회참여형 예술지원 신청 접수(9.15)

(재)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구) 인천예술인지원센터는 9월 14일(수)부터 21일(수)까지 <2022 사회참여형 예술지원> 사업 공모 접수를 진행했다. 본 사업은 예술과 사회의 상호 작용을 탐색하고, 예술 창·제작 및 과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예술의 사회 참여를 확산하고자 마련되었다.

- 인천문화재단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바자회 개최(9.29)

재단은 지난 9월 28일(수)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바자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물건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바자회는 인천시 출연기관으로서 지역의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ESG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에 바자회 수입금은 재단 직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 기부처로 전액 기증될 예정이다.

울산문화재단

- ‘음악으로 세상을 연결하는 뮤직 플랫폼’ 2022 울산에이팜 개최(9.5)

울산광역시와 주최하고 (재)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배)이 주관하는 제11회 울산에이팜(Ulsan APaMM)이 9월 2일(금)부터 4일(일)까지 3일간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과 제1전시장에서 개최됐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경남 예술인·장애예술인 실태조사 착수(9.1)

경상남도과 경남문화예술진흥원(원장 김영덕, 이하 진흥원)은 9월 1일 관계자 및 수행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2년 경남 예술인·장애예술인 실태조사’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2022 영남권 지역문화활동가대회 개최(9.30)

지역 문화 기획자의 일거리를 확장하기 위한 분야별 과제 발굴을 위해 문화기획자 7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활동가대회를 연다. 진흥원은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진흥원 합천 청사에서 ‘2022 영남권 지역문화 활동가 대회<다음 자리>’를 연다고 밝혔다.

광주문화재단

- 광주문화재단, 광주형 문화메세나 기업과 예술의 만남 행사 성료 (9.30)

광주광역시와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풍년)은 9월 28일, '기업과 예술의 만남'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2 광주형 문화메세나 '3대 문화동행(시민문화동행, 기업문화동행, 함께문화동행)' 중 '기업문화동행'으로서 기부 및 잠재적 기부기업인들과 함께 광주문화 메세나 활동을 기념하고, 기업의 기부 참여 방법 등 안내를 통해 기부의 꽃을 피우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전남문화재단

- 새로운 도약, 전남의 문화진흥 위한 전략방향 모색(9.4)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선출, 이하 재단)은 9월 2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전남 문화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대도약 전남, 문화의 힘으로'를 키워드로 한 이번 포럼은 새 정부와 민선8기 전라남도의 문화정책 이슈를 살펴보고 전남 문화예술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전남문화재단, 문화예술로 죽어있는 공간을 살린다(9.7)

재단은 '2022 문화기반시설 활용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사업' 수행단체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내 방치된 문화기반 시설을 발굴, 활용하여 문화예술단체가 들어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공모를 통해 공간지정형, 공간발굴형 등 총 6개 지역 8개 시설이 선정되었다.

금정문화재단

- 부산 금정문화재단, 2022 부산국제공연예술제(B.P.A.F) 개최

금정문화재단(이사장 김재윤)은 부산시 대표 공연예술축제인 '2022 부산국제공연예술제(B.P.A.F)'를 오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금정구 온천천변 일원에서 개최했다.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 마을공동체가 만든 마을영화, BIFF 상영(9.29)

(재)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원장 황영우)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부산의 도시재생사업지 내 마을공동체가 직접 시나리오 기획부터 연기, 촬영 등 영화감독, 배우로 구성된 멘토에게 교육받아 단편영화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마을영화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그 일환으로 제작된 마을영화가 10월 10일 부산 국제영화제 커뮤니티비프에서 상영됐다.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지역 문화예술계가 바라본 청년문제

19호

2022. 11. - 12.

column 칼럼	지역 청년이 바라본 청년문제 최정원 청춘연구소 컬처플러스 대표
issue 이슈 1	부산시립예술단 청년 예술인 육성 프로그램의 시사점 이상현 총 비평가, 부산시립무용단 운영위원
issue 이슈 2	문화는 청년들의 업(業)이 될 수 있을까 김미양 문화기획자, 작가
issue 이슈 3	지방청년, 멸종위기종이 될 것인가. 김은주 거제섬도 대표
예술+고령화	예술의 옷을 입고 어른의 어른이 되다 배우민 (사)한국예총 경남연합회 사무처장
정책보고서 토크보기	울산청년예술인을 위한 지원방안 개선에 대한 연구 김수정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2022. 11. - 12.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19호 | 2022.11.-12.

이번 19호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들이 생각하는 청년예술가 육성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예술 현장의 고령화도 살피며 지역의 청년과 함께 사는 삶을 어떻게 그려나가는 것이 좋을지 모색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Contents

131 column 칼럼

지역 청년이 바라본 청년문제

최정원 청춘연구소 컬처플러스 대표

135 issue 이슈 1

부산시립예술단 청년 예술인 육성 프로그램의 시사점

이상현 춤 비평가, 부산시립무용단 운영위원

138 issue 이슈 2

문화는 청년들의 업(業)이 될 수 있을까

김미양 문화기획자, 작가

141 issue 이슈 3

지방청년, 멸종위기종이 될 것인가.

김은주 거제섬도 대표

144 예술+고령화

예술의 옷을 입고
어른의 어른이 되다

배우민 (사)한국예총 경남연합회 사무처장

147 정책보고서 토크보기

울산청년예술인을 위한
지원방안 개선에 대한 연구

김수정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150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지역 청년이 바라본 청년문제

최정원

청춘연구소 컬처플러스 대표

#지방분권과 자치

지방분권과 자치를 이야기 해 온 것이 어언 30년이 되어가고 있다. 분권의 핵심인 재정과 행정의 독립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에 대항하는 지역의 대응으로서 권역별 행정통합을 이야기 해왔지만 권역별 메가시티 계획은 논의 단계에서 그쳤다. 인구소멸, 지역균형발전을 이야기하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원도심 공동화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오히려 지역과 지역 간의 갈등 요소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신공항 이슈는 아직도 뜨거운 감자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갤러리 유치권도 문화분권의 도마에 올랐다.

분권은 크게는 수도권과 지역, 작게는 지역 간의 경쟁으로 변질되는 양상이다. 분권의 본질은 지역 간의 편 가르기 또는 경쟁에 있는가? 우리는 정치적 명분과 정책적 실효성만을 따지고 있지 구체적으로 분권이 가져올 미래상을 그려보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담론을 형성하기도 전에 법제화, 제도화하기에 급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분권의 실익과 명분이 단순히 수도권을 상대로 한 지역의 대응전략 중 하나라는 좁은 시각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청년들이 느끼기에는 덩치 큰 지역 정도에 불과하지 않을까?

#지역 청년이 생각하는 지역의 청년문제

지역의 청년들이 느끼는 지역의 가장 큰 청년문제는 무엇인가? 근 10여년 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이나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가면 매번 나오는 이야기가 '없어요', '부족해요' 라는 이야기들이다. 비교 대상은 당연히 수도권이다. 수도권에 비해 부족하거나 부재한 것들을 이야기한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단골메뉴는 일자리와 문화다. 그렇다면 청년은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적 차이를 무엇으로부터 느끼는 것일까?

2019년 부산에서 청년들이 많이 오가는 젊음의 거리 서면에 삼정타워가 개관하였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건물에 무언가 들어가는 족족 실패하여 점포 임대나 나오기 일쑤였는데 1층의 섹션버거를 기점으로 층마다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하면서 청년들의 취향을 선점하였다. 개관일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들이 삼정타워를 찾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핵심은 바로 다양성이다. 다양한 사람들의 취향을 담은 다양한 브랜드는 어떤 사람들이 오든 만족을 선사한다.

서면 외곽의 인접지 전포의 골목거리에는 다양한 카페와 편집샵들이 들어섰다. 폐업한 철물점과 공구상가들의 빈자리를 하나둘 매워갔다. 초창기 사람들이 발걸음이 전혀 없던 곳에 지금은 젊은이들이 넘쳐난다. 임대료가 싼 곳을 찾아 건너편 사잇길까지 확장되었다. 그곳에는 힙한 청년들의 복장과 개성 있는 가게들을 경험할 수 있다. 2017년에는 뉴욕타임스 ‘올해의 세계여행지 52곳’ 중 한곳으로 한국에서 유일하게 전포카페거리를 선정하였다. 전포 카페거리가 수평적 다양성이라면 삼정타워는 수직적 다양성을 담았다.

삼정타워와 전포카페거리를 보면 서울이 생각난다. ‘서울에는 다 있어요!’의 ‘다’는 청년들의 다양한 니즈를 다각도로 만족시켜 줄만큼 다양성과 개성이 넘쳐나는 도시라는 말이다. 다양한 색이 각각 담길 수 있는 파레트 같이 철저히 자기 고유의 색으로 존재하지만 모여 있을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난다. 그렇게 도시는 섞이지 않은 채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이 되었을 때 청년들은 그것에서 매력을 느낀다. 지역을 대표하는 특징은 없지만 하나 하나가 모두 개성 있는 곳,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한 도시, 모든 것이 허용되는 도시라는 이미지는 각박한 도시에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오히려 ‘자유’를 부여해 준다. 삼정타워와 전포카페거리는 ‘부산안의 서울, 지역안의 수도권’ 같은 문화다양성이 자리잡았다.

#개성과 다양성에 정책 초점 맞추기

수도권이라는 도시의 차별성은 단순히 도시의 인프라에서 오는 걸까? 오히려 다양한 개성들이 모여 지금의 차별성을 만들었다. 문화의 융성은 자유로운 도시의 분위기, 수용성 높은 도시의 이미지로부터 시작되었다.

청년정책의 방향성은 여기에 있다. 수용성 높은 도시, 청년의 개성과 다양성을 지원하는 개방적인 청년정책 말이다. 서울의 인구 절반은 서울 원주민이 아닌 타 지역 사람들이다. 서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 교류를 통해 발전해 온 것이다. 지금의 지역정책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폐쇄적이다. 지방소멸, 인구유출에 대응해 타지역 청년들이 자신들의 지역에 정착하는 것을 돕는 거주정책 같은 것들이 생겨나고, 관계인구에 착안하여 ‘살아보기’ 정책도 생겨났다. 최근 대구에서는 탈향하고 다시 돌아온 귀향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중이다. 부산에서는 리모트워크라는 정책이 타지역 소재 청년들 중 부산에 근무지가 있는 청년들에게 거주비를 지원해주는 정책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모두 정책의 방향성이 거주민 인구수를 늘리는 데 있다. 정책의 명분상 필요해 보이지만 오히려 지역 간 인구 경쟁을 촉발할 뿐이다. 왜냐하면 유입인구가 수도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인근 지방도시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경남 통영에 있을 때 서울로부터 재미있는 정책 하나를 접하게 되었다. 서울 청년과 지역 청년이 서로 컨소시엄하여 지식, 문화, 기술을 교류하여 해당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서울 청년들이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중앙 부처 사업이 아닌 지역이 지역의 예산으로 다른 지역을 지원한

다는 것이 정책적 명분으로서 어떻게 가능한가? 당시 서울은 인구 3분의 1이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지역이 겪는 어려움에 책임을 느끼고 문제해결에 동참하기 위한 작은 시도라고 하였다. 그 시도를 지역 간 민간 교류를 통해 풀려고 했다는 것은 새로운 행정적 발상이다.

서울은 지역과 달리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해 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었다. 청년들에게 서울생활이란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삶일 수밖에 없었고, 한정된 도시 공간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은 가혹한 생활을 버텨내야 했다. 그 해결점은 오히려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고 지역으로 인구가 분산되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았고 수도권이 독점하고 있는 지식과 경험, 기술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최초의 작은 시도라고 생각되었다. 행정이 민간을 지원해 민간 차원에서 서로의 지역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움직임이었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다. 당사자인 청년들의 참여와 교류였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

#넓은 시야로 청년문제 바라보기

청년문제가 단순히 청년세대의 문제만이 아니듯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 자체만의 문제는 아니다. 얽히고 설킨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숙제인 것이다. 지역 간의 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그 실타래가 한 지역에 묶여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재미있지 않은가? 우리 지역의 청년유출 문제가 서울과 수도권에는 또 다른 지역문제를 낳고 있다는 것 말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지역의 청년유출을 막는 것은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과 같이 인구밀도가 높아지는 지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2014년도에 처음 청년문화 활동을 시작했을 무렵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 교류하기 위해 전국을 다녔다. 교류를 통해 얻었던 경험과 지식, 영감으로 부산에서 다양한 시도들을 이어갔다. 그 축적된 경험으로 통영에서도 2년간 활동하며 가진 경험들을 나눴다. 울산청년센터의 다양한 청년정책 사업의 심사와 자문을 맡아 울산청년들의 다양한 시도에 힘을 보탤 수 있었다. 울산청년들의 문화적 시도에 많은 부분 부산을 오가며 참고하고 있다는 것도 그 때 알았다. 아직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그 때 교류했던 다양한 청년들의 시도를 참고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류가 줄어들었을 때도 지역 간 이어진 네트워크 자원은 지역의 한계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교류는 지역이 가진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

지역의 청년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의 청년정책들은 지역 간 협력을 담보하기 보다는 오히려 경쟁을 유발한다. 청년들을 지역 안에 가두기 위해 열심히 울타리를 치는 정책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배울 수 있도록 열린 정책들이 필요하다. 부울경의 협력적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정책의 장소적 한계를 돌파할 필요가 있다. 여태껏 지자체의 정책은 해당 지역 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교류를 위해서는 장소적 제한을 부울경 전체로 넓히는 시도가 필요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중앙 부처에 전국 또는 권역을 대상으로 한 정책지원들이 있었다면 부울경이 협력한 권역 내 청년정책들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는 메가시티 논의나 문화분권과 관련된 논의가 행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오히려 이러한 교류의 주체들을 청년 당사자와 민간으로 옮겨 더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가 자유롭게 교류하는 장을 열도록 지원하

고 이를 통해 발전할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지금은 행정중심, 행정 의존적 담론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더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데 한계가 있다. 오히려 그런 지역담론과 교류를 민간에서 시도할 수 있도록 정책사업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미 짜여진 판을 벗어나 지역을 새롭게 할 논의들과 소외된 목소리를 담는 기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부울경 간 지역 협력으로 '다양성의 한계' 극복하기

부울경의 협력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의 한계'를 극복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부울경이란 지역 협력이 단순히 덩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수용력을 넓히는 시도여야 한다. 또한, 조금 더 열린 태도와 넓은 시야를 가진다면 향후 부울경이라는 권역과 다른 지역 또는 권역과 권역의 교류가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간 협력사업들도 시도해 볼 수 있다. 교류와 협력속에서 청년들의 시도는 다양성을 갖출 수 있다. 지역이 수도권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만의 다양성을 갖추고, 도시의 수용력을 키울 때 청년문화, 청년예술인들은 자신을 수용해 줄 지역과 역할을 찾아갈 수 있다.

원고를 퇴고하는 과정에서도 작금의 청년문제를 분석하거나 지역의 한계를 정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동안의 경험들을 통해 청년정책의 방향, 청년문화와 지역예술의 발전이 어디로 가야지만 부울경 문화분권과 자치가 의미를 얻을 수 있는지,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았다. 물론 부족한 견해일 수도, 한 사람의 단순한 주장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래서 다양한 청년 중 한 명으로서 글을 쓰고자 노력하였다.

끝으로 지역의 한 청년으로서 또 다른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결국에 이런 부분들은 방향이나 방법을 제시해 줄 뿐이지 실제로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청년들의 의지이다. 지역을 바꿔가고자 하는 의지 나아가 지역이 청년들로 인해, 나로 인해 조금씩 바뀔 수 있을 것이란 믿음과 실천이 분권과 자치의 핵심이며 원동력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청년들이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개척해 나갔으면 한다. 결국 미래는 청년들의 편이다.

부산시립예술단 청년 예술인 육성 프로그램의 시사점

이상헌

춤 비평가, 부산시립무용단 운영위원

부산시립예술단(이후 '예술단')은 (재)부산문화회관(이후 '문화회관')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부산 대표 공공 공연단체로, 1962년 시립교향악단(이후 '시향')을 시작으로 72년 시립합창단(이후 '합창단'), 73년 시립무용단(이후 '무용단'), 84년 시립국악관현악단(이후 '국악단'), 98년 시립극단(이후 '극단')을 창단하면서 5개 상임 단체 체제를 완성하였다. 현재 소년소녀합창단과 청소년교향악단을 포함해 7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부산시 출연 문화예술기관 중규모가 큰 두 곳은 (재)부산문화재단(이후 '문화재단')과 문화회관이다. 두 기관의 예산 규모는 300억 원대로 비슷하다. 문화회관 예산의 절반 이상(185억, 22년도)이 시립예술단 운영비이고, 대부분은 인건비로 사용된다. 시립예술단이 부산의 세금을 가장 많이 쓰는 예술 단체임이 분명하다. 시립예술단 운영은 부산시가 문화회관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두 기관의 설립 목적은 다르다. 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창작 기반 조성'과 시민을 위한 문화서비스 확대가 목표이고, 문화회관은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이다. 문화재단은 지원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이 주 사업이고, 문화회관은 질 높은 공연예술을 공급하는 것이 주 사업이다. 이렇게 두 기관의 지향점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으로 '청년 예술인 육성'을 들 수 있다. 예술인 육성 면에서 본다면, 문화재단은 예술가의 창작을 구현할 수 있게 지원하고, 시립예술단은 예비 예술가나 신진 예술가가 더 안정적으로 기성 예술계에 정착할 수 있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을 키워준다.

#부산시립예술단의 청년 예술인 육성 방안

시립예술단은 청년 예술인 육성 프로그램을 오래전부터 운영해 왔다. 시향과 국악단은 지역 청년 예술인 중 협연자를 선정해 무대에 함께했고, 무용단은 객원만이 아니라 비상임 단원을 뽑아 청년 예술인 육성에 한몫을 담당했다. 극단도 객원 단원을 뽑아 공연에 함께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예술인들은 높은 기량의 기성 예술가와 공연하는 기회를 얻고, 최고의 스태프, 기획, 홍보 시스템과 극장을 경험하게 된다. 코로나로 대학교까지 비대면 수업을 했던 시기에 대면 수업을 하지 못했던 청년 예술인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2019년 시작해 격년제로 개최하는 ‘부산 신진예술 페스티벌’도 만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청년 예술인 육성 사업이다. 이 사업에 선정된 단체가 다른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시립무용단은 매년 비상임단원을 뽑아 공연에 투입하는데, 비상임단원 중에 상임 단원 공채에 선발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지난 8월 공연한 <슈퍼 타이거>는 부산시 ‘신진 청년 예술인 인큐베이팅 및 경력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회관이 맡아 기획, 제작한 작품이다. 애초 39세 이하 부산에 거주하는 국악, 무용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졸업자 중 60명(무용 20명, 국악 40명)을 선발할 계획이었는데, 1차 공모에서 인원을 채우지 못해 울산·경남까지 지역을 넓혀 재공모를 했지만, 결국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현재 지역에 남아있는 청년 예술인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수퍼 타이거 Super Tiger>는 석 달의 연습과 공연 기간에 월급으로 사례를 지급해 참가자가 작품에만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그림 1] 슈퍼 타이거 공연 장면(출처 : 예술의 초대 22년 11월호)

예술단 청년 예술인 육성 프로그램의 중심은 청소년교향악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소년 교향악단 단원은 고등학생부터 만 28세까지인데, 고등학생은 연주 기량에서 오디션을 통과하기 어려운 단원 대부분은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이다. 대학을 졸업하면 시향에 들어갈 것이지 왜 청소년교향악단에 들어가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향 단원 공모에 전국의 실력자가 몰리기 때문에 대학을 갓 졸업한 연주자가 경쟁을 뚫기가 쉽지 않다. 먼저 청소년교향악단에서 기량과 경력을 쌓고, 시향 단원 공채에 응시 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교향악단에 들어가면 전문 지휘자를 만날 수 있고, 시향 단원이 멘토가 되어 개별 지도도 받을 수 있다. 청소년교향악단에서 악장으로 활동한 단원이 시향 단원이 된 경우를 보면 청소년교향악단이 수준 높은 연주자를 키우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때 청소년교향악단을 서울처럼 ‘유스 오케스트라(Youth Orchestra)’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다. 서울시는 청소년교향악단을 2007년 10월 유스 오케스트라로 개칭하고, 단원을 각 음악 대학 전공 대학생 중 오디션을 통해 선발했다. 안정적인 예산과 전문 시스템 지원으로 청년 예술가를 전문 예술가로 키우려는 의도였다. 부산도 단원 연령을 만 34세로 높이고 체제를 바꾸려고 했다. 여기서 34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성의 경우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와 유학을 다녀오면, 거의 서른 살이 된다. 이때 비로소 사회로 나가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만 34세까지라는 나이는 현실을 반영한 중요한 기준이다. 여성 단원도 활동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불리한 면이 없다. 의도는 좋았지만, 이런저런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고 말았다.



[그림 2]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사진제공 : 부산시립예술단)

#부산 청년예술인 육성의 중요성

“부산의 청년 예술인을 육성하는 일이 왜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반드시 정리해야 하고, 그래야 청년 예술인 육성에 적합한 지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다. 부산의 예술 기반은 서울에 비해 약하다. 이유는 많지만, 결정적인 배경은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짜인 사회구조이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성찰이 없으면, 금방 사라지는 단발적이며 단기적인 정책만 나온다. 청년 예술인 육성은 한두 번의 시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르를 막론하고 지역 청년 예술인들은 수도권이라는 블랙홀로 빨려들어 가는데, 부산에서 견딜 지지 기반이 약해서이다. 예술로 먹고살 수 있는 기반이 있다면, 이런 현상이 덜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기댈 수 있는 학교 바깥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카페나 편의점 알바를 하지 않고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청년 예술인들이 졸업 후에도 부산에 남아 있을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축구에는 U23(23세 이하)부터 초등학교 리그인 U12까지 세분되어 있다. 기량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연령에 따라 필요한 기량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발전시켜야 하는 점에서 예술과 스포츠가 비슷하다. 사회에 발을 갖 디딘 신진 예술가나, 대학생 예비 예술인을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육성 프로그램을 짜야 한다. 예를 들자면, 유스 오케스트라, 유스 무용단 등이 그것이다. ‘유스’ 프로그램으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청년 예술인 육성 계획을 실현할 수 있다.

몇 년 후면 오페라하우스가 완공되고 국제아트센터까지 개관한다. 부산 공연계의 준비가 절실한 시기이다. 그 준비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청년 예술인을 키우는 일이다. 물론 지금까지 청년 예술인 육성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부산의 청년 예술인이 성장했다는 증거가 뚜렷한 경우는 흔치 않았다. 반면 시립예술단의 청년 예술인 육성 프로그램은 성과가 비교적 뚜렷하다. 부산 청년 예술인들에게 절실한 예술로 먹고살면서 경력을 쌓고 기량을 키울 기회를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부산 공연예술계의 자생적 선순환 구조가 튼튼하다고 아직 말할 수는 없지만, 시립예술단의 객원과 협주, 협연 프로그램, 청소년교향악단 같은 희망의 씨앗이 꾸준히 자라고 있다.

문화는 청년들의 업(業)이 될 수 있을까

김미양
문화기획자, 작가

#1. 문화가 밥 먹여주나요.

“선생님은 본업이 뭐예요? 지금 이거는 그냥 취미로 하시는 일일 테고. 돈은 따로 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맞죠?”

“.....”

몇 달 전, 부산진구의 한 생활문화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의 일이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생활문화시설 인문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통해 인문전문가로서 사례비를 받으며 5개월 간 프로그램을 이끌어오고 있었는데, ‘취미 아니냐’는 물음과 맞닥뜨리니 순간 당황스러웠다.

내게 질문을 한 이는 나와 비슷한 또래의 청년이었다. 몇 년간 직장생활을 하다 잠시 휴식기를 택한 그는 부산 곳곳의 문화프로그램을 찾아다니며 시간을 보내는 중이었다.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부산진문화재단,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부산청년센터, 청년작당소, 청년월동기지 닛트플레이스 등 등 워낙 많은 기관과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그것들만 찾아다녀도 그의 하루일과는 24시간이 모자랐다.

현재 부산 내 청년대상 문화예술프로그램은 대부분 무료로 운영된다. 어떤 취지에서 무슨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인지 참가자 입장에선 속사정을 일일이 다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는 아마도 향유자 본인이 무료로 여가생활을 누리고 있으니, 프로그램을 진행자들 또한 재능기부 내지는 무보수의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는 거라 생각한 듯했다.

“저도 사실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생계유지가 안 될 것 같아서요.....”

그의 말에 나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나에게 사실 이번 인문프로그램 운영은 최근 1년 중 가장 큰 보수를 가져다주는 일이었다. 이런 식으로 경력을 쌓아간다면 앞으로는 정말 좋아하는 일로 밥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쌓여가던 중이었다. 그러나 희박한 희망이었다. ‘굶어죽지는 않으니까 도전하세요!’라는 말로 눈앞의 청년을 끌어들이기에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2. 향유자에서 창작자로 변화는 했지만

나는 외식조리학과를 졸업해 현재는 문화기획자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문화예술 계통의 전공자가 아닌데도 지금의 삶을 택하게 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부산문화재단의 청년예술가 창작활동지원제도 중의 하나인 ‘청년예술가 생애 첫 창작활동’ 지원이다. 이 지원을 통해 2021년에 첫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2021년 초, ‘청년예술가 생애 첫 창작활동’ 지원 사업 공모 소식을 접했을 때 머릿속에 처음 든 생각은 ‘내가 청년예술가인가?’라는 의문이었다. 몇 년간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고 또 자발적으로 운영하기도 하며 글을 써오고 있었지만, 스스로를 ‘예술가’로 여겨본 적은 없었다.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업일 거라 지레짐작하고 포기하려 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의 걱정은 기우였다 부산문화재단이 생각하는 ‘청년예술가’의 범주가 내 예상보다 훨씬 넓게 열려있음을, 나는 이 사업에 선정되며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다.

책을 읽는 독자에서 책을 쓰는 작가로, 문화예술 향유자에서 문화예술 창작자로의 변화를 겪으며 나는 한 차례 성장했다. 이걸 책을 얼마나 잘 썼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였다. 취미로 책을 읽고 글을 쓰던 청년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책을 발간하고 인세를 받는 경험. 이 사소한 경험이 내 삶의 궤도를 완전히 틀어놓았다.

그 후로 1년이 지나 다시 공모사업 시기가 되자, 주변 청년들에게 지원 사업에 신청해보라며 등을 떠밀었다. 그러나 막상 도전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나는 수혜를 입은 입장이었으나, 사람들에게 권하기 위해 돌이켜보니 아쉬운 점도 눈에 보였다. 가장 큰 것은 홍보의 문제. ‘청년예술가 생애 첫 창작활동’ 지원 사업 자체를 아는 청년들이 거의 없다. 내가 지원했던 2021년엔 경쟁률이 2대 1도 되지 않았다. 물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씁쓸한 수치다. 아마 정보를 알았더라도 나처럼 ‘예술가’의 정의 앞에 망설이며 포기하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

#3. ‘맛’만 보여주지 말고 ‘밥’을 주세요.

나는 부산문화재단의 수혜를 받아 청년예술가로서 활동을 시작한 케이스지만, 나를 포함해 많은 청년들이 문화예술로 밥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선 앞서 말한 ‘홍보’외에도 많은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많은 청년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이 ‘진입 장벽 낮추기’이다. 공모사업 정보를 접한 이후, 지원서 작성 단계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 공모 취지에 맞게 자신의 기획의도를 설명하고 상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문자로 정리해 설득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서류 작성 자체를 힘들어하기도 한다. 부산문화재단의 ‘아이컨택’ 제도나 부산시의 ‘청년이음도서관’ 등을 활용해 지원서 작성법에 관한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면 어떨까. 또한 처음 공모에 도전하는 청년과 이미 지원 사업을 경험해본 청년 사이의 갭 차이가 존재하므로, 공모의 규모나 사업의 난이도를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어떤 청년이든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사업을 늘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부산문화재단의 지원 사업은 아직 문화기획보다는 기초예술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듯하다. 기존에 ‘실패해도 괜찮아’라는 문구와 함께 홍보되었던 ‘청년 UNIVERSITY’가 청년문화기획자의 진입장벽

을 낮추고 실험적인 도전을 응원하는 사업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2022년에는 청년 기획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아 아쉬웠다. 반면,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영도에서는 ‘기획자의 집’을 포함해 문화예술기획자를 양성하고 다양한 실험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문화기획은 문화예술창작자와 향유자 사이를 매개하는 판을 깔아주는 일이다. 향유자를 위한 무료 프로그램만 운영해서는 자생력을 높일 수 없다. 문화예술이 성장하려면 기획의 역할이 중요하다. 부산문화재단도 기초예술분야 예술가 육성과 함께 문화기획자 육성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돈’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삶의 전환점에서 취업 압박에 시달리는 청년세대에게 생계는 절박한 문제다. 부산문화재단의 ‘청년예술가 생애 첫 창작활동’ 지원사업과 달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청년예술가 생애 첫 지원’ 사업은 본인 사례비 책정이 가능하다. 내가 쓴 글에, 내가 그린 그림에, 내가 짠 기획에 ‘사례비’를 책정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변화를 가져온다. 문화예술을 계속하기 위해 별도의 돈벌이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어째서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할까. 청년들이 문화예술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부산문화재단이 더 고민해주길 바란다. 언젠가, ‘이건 취미로 하시는 거죠?’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아니요? 이건 제 업인 걸요!’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본다.

지방청년, 멸종위기종이 될 것인가.

김은주
거제섬도 대표

청년이란 무엇일까? 청년의 사전적 정의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 어린이에서 성인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말한다. 성인으로 전환되는 시기의 위태로워 보이는 이들에게 주목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요즘, 그중에서도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은 거의 멸종위기종과 유사하게 취급받는다. 개체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 그들의 본성을 찾아주려는 활동, 야생으로의 복귀 전 유사한 환경을 경험하는 연습 등은 정말 효용성이 있는 것일까, 지방 청년들은 지금의 행정이 만든 정책적 방법론을 통해서 멸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청년을 위한 공간에 청년이 없다.

2022년 12월 3일, 경남 청년센터의 운영이 중단되었다. 그 이유는 운영비는 많이 드나, 저조한 이용실적, 시와 군의 청년센터와의 역할이 중복된다는 이유였다. 청년센터는 운영이 중단되지만 2022년 812억보다 215억 원이 증액된 1,027억 원을 편성(26.6% 증액)하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지원 정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예산은 증액되었지만, 센터는 문을 닫는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혹은 경남도청의 행사는 대부분 창원에 집중되어 있다. 창원이라는 도시가 다른 도시와의 연결성, 이동의 거리도 하나의 이유일 것이며, 관의 특성상 모두를 아우르는 일을 해야 한다는 설정값 때문으로도 여겨진다. 창원 인근의 양산, 김해와는 다르게 남해, 거제에 있는 이들은 청년센터를 이용하는 일은 거의 없다.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 운전해야 한다. 특별한 행사에만 창원 밖의 청년들은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공간을 방문했을 확률이 높다. 올해 경남도민의 집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겠냐는 진흥원과 경상남도의 질문에 다른 공간들과 같이 대관 등의 목적으로만 운영이 된다면 이곳은 경남도민의 집이 아니라 창원시민의 집일뿐이라고 답변했다. 경남도민들과 외부인이 창원을 찾는 이유는 기관, 기업과의 미팅을 위한 출장의 이유가 크다. 비즈니스 목적의 출장 중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경남 청년들이 창원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공간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며, 성과라는 것을 낼 수 있었을지 모른다. 하드웨어를 만들기 전에 정말 그 공간을 적절하게 이용할 대

상자를 고민하고, 그것에 맞게 만들어져야 한다. 공간은 사람이 이용해야 힘과 성격을 가지게 된다. 공적 공간뿐만 아니라 지역 정책 역시 상업적인 방면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공간과 내용을 소비할 고객층을 세분화하고, 적절한 표적화와 홍보가 필요하다.

#거제시의 청년 기획가로 살아가기

거제시는 2020년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되면서 다양한 청년정책과 사업을 만들었다. 이 지점에서 아쉬운 것은 정책의 수립을 진행할 때 내부 청년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였다기보다는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되어 정책자금만 내려왔고, 사업을 해야만 하는 환경에 내몰려 진행한 느낌이다. 이미 만들어진 유사한 사업을 거제도 내에서 그대로 진행했다. 사업을 참여하였을 당시(섬도는 민간청년활동공간과 거제 청년 한 달 살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제대로 된 행정 서류 양식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다. 참여한 사업 중간마다 예정되어 있지 않은 보고 자료를 당연하게 요청하였다. 문서 역시 직접 만들어서 전달할 것을 일반적으로 전달 받았다. 지방의 행정이 민간과 어떻게 일했는지 적나라하게 느꼈다. 당신들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말은 잊히지 않는다. 거제시 변화의 흐름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는 행정의 하청업체로 끝났다. 어떤 일이든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사람이 하는 일은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조율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배려는 필수적이다. 행정에서 만든 정책의 성과는 담당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행정은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고, 민간은 행정의 도움이 필요하다. 공무원과 시민이기 전에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이 아닌가. 시민이 없으면 공무원도 없다. 지방 소멸은 먼 이야기가 아니다. 동네에 사람이 떠나면 세금도 줄어 들고 공무원도 결국 멸종한다. 우리는 같은 생태계 구조에 있다.

관에서는 여러 가지 요청을 해온다. 특히 홍보 관련 자료나 영상 촬영 요청이 대표적이다. 거제도라는 공간에서 우리들은 이렇게 잘 지원받으면서 살아남았어요 를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홍보하는 것인데, 촬영을 진행하면서 비용 포함 다른 지원은 없다. 10분 내외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 거의 하루 혹은 반나절 촬영을 진행한다. 그리고 지방 미디어를 통해서 나를 목격한 연락을 받는데, 그럴 때마다 얼굴이 붉어진다. 그래도 참여하는 이유는 담당자의 일을 줄여주고 싶은 것,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일이 생길 거라는 두 가지 마음으로 참여한다.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에도 참여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경우는 참여비가 책정되어 있다. 패널로 참석하게 될 경우 길게는 10분 정도 의견을 말할 수 있다. 몇 시간을 운전하여 도착하고, 대기한 뒤 겨우 몇 마디를 하는 것이 정말 정책 수립의 방향성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의견을 전달해도 반영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 회의적인 입장이다. 이런 아쉬운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은 약속의 문제이다.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간극이 크며, 쉽게 관계자들을 잘라낸다. 필요에 의해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험은 행정이 수립한 정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청년정책에 걸쳐 말하는 것은 지방 청년 작가들은 더욱 소수의 그룹으로서 정책적 혜택의 사례에서 더 멀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보편적 청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지방 청년 창작자는 아직 차례도 오지 않은 기분이다. 거제시의 경우 문화예술과는 많은 지원을 핵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 청년 작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조차 힘들다. 또한 근본적인 의문이긴 하나 작가의 기준은 무엇일까. 지방에서 활동하는 지금, 어려웠던 그 경계를 개인적으로 다시 정의하는 일은 더 어려워졌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청년 사업 공모에 참여한 적은 없다. 초기에는 사업자등록이 3년이 넘지 않아서 참여할 수 없었고, 이후에는 사업의 단위와 필요도를 고려하니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 지역에서 보고 싶은 풍경을 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없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움직였다. 절실하면 정책과 지원을 넘어서 방법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직접 경험하면서 알 수 있었다. (그 와중에도 행정적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필요한 자원이 다 되었을 때, 적절한 단계를 통한 지원은 너무 늦다. 지금과 앞으로의 시간은 과거와는 빗대기 힘들 정도로 아주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홍보가 필요할 때, 홍보를 해주는 것, 관련 프로젝트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면 그를 위한 행정적 조례 및 발판을 빠르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관내의 개인이 스스로 튀어낸 싹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설계한 사업이 아니니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태도가 아니라, 공모 시기를 기다리고, 공모 내용에 따라서 하고 싶은 일을 잘라 내거나 구겨 넣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앞으로는 넓은 의미의 지원보다는 좁은 의미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제주도의 뿔소라가 동해까지 올라갔다고 한다.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찾아서 본능적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적절한 환경이 아니라면 맞는 곳을 찾아 떠나는 것이 섭리이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인데, 그 법칙이 당연하게 적용되지 않겠는가.

#청년의 다양한 실패를 응원하자

청년 그룹의 다양한 실패를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경상남도가 도와야 한다. 행정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닌 추경 사업의 성격으로 다양한 파일럿을 지원한다면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다. 그것 자체가 그들의 지방 청년들의 중요한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 직접 설계한 파일럿 사업을 통해 성장하고, 경험을 쌓는 성취의 순간이 필요하다. 행정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만, 독창적인 시도들을 홍보하고, 지원하는 용기를 내야 한다. 개인 사업자인 청년들이 다른 기관에 협조를 구해야 할 때, 든든한 공적 보증인이 되어주어야 한다. 청년들은 만들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원과 투자는 다르다. 사후에 따르는 책임도 다르다. 공적자금을 통한 성장은 한계가 있다. 상업적 행위를 전적으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원을 통해 인상적인 포트폴리오를 쌓은 다음, 행위를 상업화하고, 소비되는 형태로 가공하여 정기적인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문화예술의 영역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비이성적이며 추상적인 가치를 현실의 가격으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붕 떠있는 것에 적절한 중력을 더하는 일, 구름 같은 문화에 현실의 무게 추를 대입하여 수평을 맞춰야 한다. 적당한 무게를 유지하며 상업적 행위로 영리하게 치환한다면 지방에서 지금의 현실과 미래에 살아남게 될 것이다.

예술의 옷을 입고 어른의 어른이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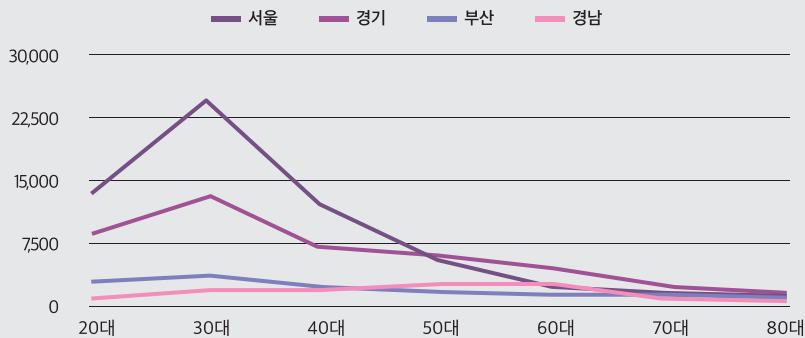
배우민

(사)한국예총 경남연합회 사무처장

보건복지부 자료(2022년 8월)에 의하면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둘 다 없는 시군구는 전국 16개에 달하고 한다. 반면 서울 강남구에는 산부인과 33개 소아과 57개(합계 105개)가 운영중이다. 지방소멸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중의 하나이다. 예술인들이라고 사회 전반적인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 현황을 살펴보니 연령대별로 조사가 되어있다. 예술인의 고령화 문제를 다루고자 분포도를 가만히 보고있자니 이것을 고령화라고 부르는게 맞는건가 하는 원론적인 질문이 든다. 왜냐하면 고령의 예술인들이 많아졌기 보다는 20대, 30대 예술인들이 전부 수도권에 있다 것이 예술인 고령화의 근본적인 이유로 보인다. 연령대가 높은 예술인이 많아서 고령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층이 특정 지역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상대적으로 고령화가 된다는 이야기다.

전국 예술인 수 상위4개 지역 연령별 예술활동 증명 현황

(2022년 12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서울	13,637	23,919	10,708	4,579	2,577	1,318	517
경기	7,819	11,783	6,954	4,507	3,148	1,214	403
부산	1,519	2,043	1,331	1,404	1,502	818	265
경남	836	1,223	1,208	1,881	1,934	682	154

젊은 예술가들이 왜 수도권에 모여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굳이 파헤치지 않아도 될듯하다. 경남의 어느 한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공연 중 자랑거리를 늘어놓았는데 졸업생들을 서울의 유명대학으로 배출했다는 것이다. 이 말에 단원들도, 관객들도 박수를 치고 뿌듯해 한다. 예술단체 운영의 모범사례이며 유능한 인적자원을 배출하는 최고의 업적이다. 그렇기에 이 부분을 문제삼는 것은 결말이 공허한 논쟁이다.

나이가 든 것을 탓하지 말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고령화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부분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예술활동증명 연령대별 분포도에서 보다시피 청년층의 인구 밀집 때문에 고령이 눈에 보이게 된 것이지 고령층이 증가하거나 다른 요인이 발생해서 고령화가 된 것은 아니다. 지역예술가들이 자신의 지역을 묵묵히 지키며 나이가 든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기엔 서럽지 않은가?

예술은 자존감을 확보하는 가장 고상한 행위

‘교직에서 은퇴 후 서예가의 길을 걷는다.’ 혹은 ‘임원으로 퇴직하고 그림을 그린다’, ‘요즘 글씨요 곧 시집이 나옵니다.’라고 하는 근황소개를 듣는다. 고령화 시대 새로운 삶을 찾는 여러 방법 중에 예술을 선택한 이들의 자기소개이다. 이런 소개는 여러 가지 의미가 느껴진다. 굳이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저는 고상합니다. 생각이 깊고 창조적 이예요. 돈에 집착하지 않고 생활에 여유가 넘칩니다.’ 라고 하는 속마음이 느껴진다. 난잡하게 절절히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 고령화 예술이 생성되는 여러 경로중의 하나이다.

삶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인생에 무엇이 소중한가 몸소 깨닫는 나이가 되면 욕심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자신이 무언가를 남기거나 이루고 싶어한다. 늙어가는 것의 의미는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것이니 그 것에 반항하는 심리로 자신 내면에 새로운 것을 찾아서 그것을 생산하고 키워나간다. 예술은 삶을 명확하게 하고 죽음에 반대하며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게 한다. 이것이 고령의 생애 예술이 갖는 의미이다.

고령화된 예술단체, 청년을 고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서부 경남의 어느 행사장에서 미술관련 활동하는 예술단체장을 만났다. 자신이 회장이며 막내라고 말씀하신다. 올해로 70세. 회원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에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냐고 조언을 요청한다. 순간 공모사업 이후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생각이 났다. 사업계획서부터 e나라도움까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라고 고민하다가 “언제 한 번 연락주세요” 라는 말로 얼버무렸다. 누구나 예술을 할 수 있고 관련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식당에 들어가 키오스크 앞서 멀뚱히 보고만 있는 어느 할아버지처럼 고령화 된 예술가들은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부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저는 오히려 e나라도움이 편해요 딱딱딱 하면 되잖아요’ 20대 기획자가 한 말이다. e나라도움이 만 들어지는 초창기가 떠올랐다. 누가 왜 이런 것을 만들었냐며 너도 나도 불평불만을 이야기하였다.

시스템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이도 있었고 사업담당자는 자고 일어나니 메뉴 버튼이 달라져 난처해 하기도 했다. 그런데 사업 처음부터 e나라도움으로 시작한 20대 기획자는 예전의 정산방식에 대한 설명에 당황에 한다. 그냥 e나라도움으로 하면 안되냐고 물어본다. 여기서 고령화된 예술단체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청년으로 이루어진 문화매개자를 양육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대신 그에 대한 확실한 고용체계가 따라야 한다.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과 예술단체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예술의 옷을 입고 어른의 어른이 되다

어른이 되어 예술을 깊이 받아들이고 고민하는 것은 돈의 문제를 넘어서 정신적 만족을 위해서 끊임 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어른들이 모두가 예술가라면 얼마나 품위 있고 고차원적인 사회가 될 것인가? 고령의 예술이 어른을 어른답게 만들고 우리 사회의 품격을 높인다는 결론에 다다른다면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은 예술의 옷을 입은 어른을 존대하고 어른은 끊임없이 예술적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우리는 즐겁게 맞이해야 할 것이다.

울산청년예술인을 위한 지원방안 개선에 대한 연구¹

김수정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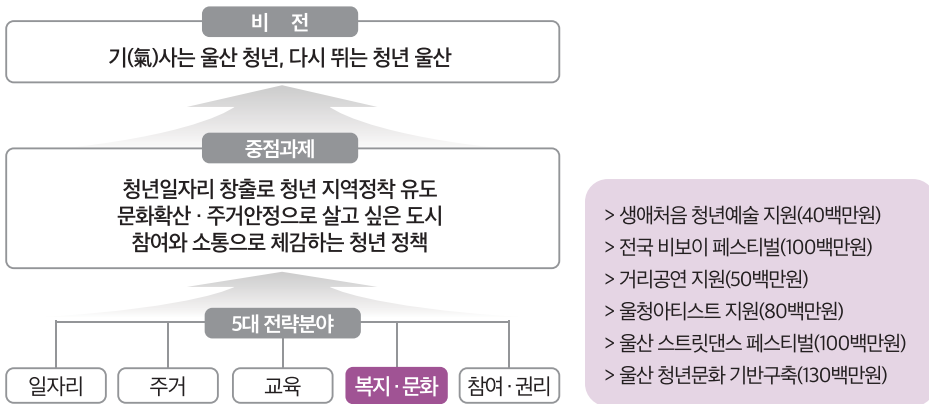
수도권은 예술인, 청년예술인, 예술단체 등에 대한 지원금이 지역에 비해 상당하고, 문화인프라 영역에 있어서도 지역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로 인한 지역 청년예술인 유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는 해당 문제를 인식하고 지역 청년예술인을 육성 및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울산연구원은 울산지역 청년예술인에 대한 기존 지원방식을 파악함으로써 울산지역 청년예술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울산 청년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원방안 개선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지역 청년예술인에 대한 지원으로 청년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자생력을 갖춰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정책보고서 톭아보기 코너에서는 해당 연구의 주요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울산청년예술가 기살리기

• 울산 청년정책 시행계획 발표

- > 울산은 2020년 2월,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울산청년 기살리기)를 발표함. 정책참여, 일자리, 생활안정, 문화생활 보장, 주거지원 등과 같은 영역에서 청년 대상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함.
- > 청년예술인 대상 직접 사업은 문화기반 조성, 예술활동지원 3가지로 설정하였으며, 2022년 올 해에는 직접 사업을 6가지로 다양화하였음

• 2022년 기준, 5대전략 분야 “복지·문화” 중 청년예술인 지원 관련 사업



1 2020년 12월, 울산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발췌, 요약하였으며 일부 2022년 자료를 활용함

#울산 청년예술인, “우리는 00이 필요하다”

• 울산 청년예술인들이 바라는 것²

> 지원사업의 행정과 정산 간소화

지원사업 참여 시 제출하는
서류들이 많아 복잡하다 **50.8%**



11.9% 지원사업 참여에 필요한 서류의
복잡성에는 문제가 없다

정산 방식이 어렵다 **52.3%**



14.9% 정산에 어려움이 없는 편이다

> 예술활동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

청년예술인을 위한 단기지원
사업은 문제가 있다 **32.3%**



21.8% 청년예술인 대상 단기지원
사업도 괜찮다.

> 안정적인 예술활동 보장

청년예술인을 위한 단기지원
사업은 문제가 있다 **32.3%**



21.8% 청년예술인 대상 단기지원
사업도 괜찮다.

소액지원방식에 대해
부정적이다 **53%**



15.2% 정산에 어려움이 없는 편이다



예술활동을 통한 월소득 200만원 이하

80.6%

> 예술지원 장르 다양화

지원장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4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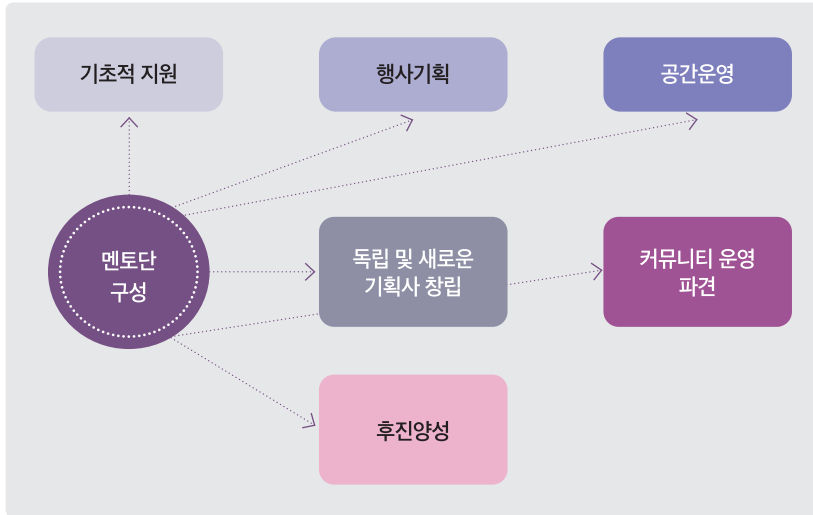


18.1% 지원장르 다양성에는
문제가 없는 편이다.

2 2020년 7월 한 달간 진행한 20세 이상 30세 이하 울산 거주 남녀 청년예술인 13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

#울산 청년예술가의 활동 기회 보장을 위해서는?

① 단계적, 전략적 지원



> 단기적, 소모적 지원에서 탈피하여 단계적 장기지원으로 청년예술인 육성방안 고도화, 지역 청년 예술인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장르별/단계별 멘토단 운영

② 지역산업체와의 연계

- > 지역소재 기업과 메세나 협약 체결로 청년예술인 파견 등 활동 기회 보장
- > 기업 내 노동자 대상 문화예술 지원
- > 기업의 사회공헌, 메세나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의 조례 제정

③ 지원사업 다양성 제고

- > 실험적, 융합적 문화예술 분야로 지원사업 장르 확대
- > 시민투표를 통한 심사제, 공모 참가 단체 상호 심사제 실시 등으로 심사방법 다각화
- > 타지역 청년예술인의 울산지역 일정기간 거주 및 활동 지원, 울산출신 타지역 청년예술인 지원으로 네트워킹 거점 역할 부여

④ 디지털 교육 지원

-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활용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교육 지원
- > 청년예술가 - 인문학자 - 엔지니어 정보 교류를 위한 디지털 문화예술 허브 구축으로 융합 콘텐츠 제작 기반 마련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2022. 11. ~ 12.

문화체육관광부

- **민관의 뛰어난 공공저작물 활용사례 선보인 다(11.18)**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정보원(원장 홍희경)과 함께 11월 18일(금) 서울산업진흥원(SBA홀)에서 공공저작물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과 담당자들을 포상하고, 공공저작물 공유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진행했다.

- **예술을 통해 가치를 창출한 예술기업 단체 6곳 시상(12.2)**

문체부는 12월 2일(금), 수림문화재단 김희수아트센터에서 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문영호)가 주관하고, 수림문화재단(이사장 최규학)이 후원하는 '2022 예술경영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 **확장 가상세계, 대체 불가 토큰 환경에서의 저작권을 논하다(12.2)**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와 함께 12월 2일(금) 오후 2시, 서울스퀘어 빌딩에서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대체 불가 토큰(NFT) 저작권 쟁점과 산업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 **예술활동증명 장르 추가한다(12.9)**

문체부는 스트리트댄스, 웹툰 등 최근 한국문화(케이컬처)의 주요장르이거나 비대면 온라인 활동 증가로 급성장하고 있는 예술 분야의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활성화하고, 그 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예술활동증명 장르를 추가한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웍진(A SQUARE) 창간(1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이하 예술위)는 11월 7일, 예술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현장 이슈들을 바라보는 담론을 담기 위해 아르코웍진(A SQUARE)을 발간했다.

- **예술위, 예술 데이터 활용한 사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서비스 개발까지, 원스톱 지원 나선다(11.10)**

예술위는 데이터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예술현장 디지털 활용역량 및 기반 강화에 앞장서며 새로운 예술생태계 지원에 나섰다.

- **“재판정에 선 [근대] 법” 세대 간 기후범죄 재판소(CICC)가 서울 문화비축기지의 석유탱크 안에 세워진다(11.16)**

예술위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2021-2022 한국-네덜란드 교류 협력 프로그램』으로 기획, 진행된 쇼케이스 <세대 간 기후범죄 재판소(CICC): 재판정에 선 법(The Law on Trial)>을 11월 18일부터 12월 4일까지 마포 문화비축기지 T4에서 개최했다.

- **“세상을 바꾸는 예술, 예술을 이끄는 후원” <2022 문화예술후원인의 밤> 성황리에 막내려(12.5)**

예술위는 12월 2일(금) 오후 5시 한강 세빛섬에서 <2022 문화예술후원인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문화예술 후원기업과 후원자, 수혜 예술단체 등 주요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했다. 화에 앞장서며 새로운 예술생태계 지원에 나섰다.

부산문화재단

- 기후위기에 대해 셰프들이 전하는 이야기 <미래의 식탁: 기대어 잇든> 프로젝트(11.18)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미연, 이하 재단)은 ‘메세나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미래의 식탁: 기대어 잇든》을 오는 11월 26일(토)부터 27일(일)까지 영도구 봉래동 봉산마을회관에서 개최했다.
- “부산문화의 분권적 체계를 상상하다”(11.30)
재단은 12월 6일(화) 오후 3시 한성1918 청자홀(부산 중구)에서 [문화분권-문화자치 상상토크 3 “부산문화, 새로운 질서를 찾다”]를 개최했다. 이번 상상토크는 부산지역 내 문화영역의 분권적 협력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2023년도 예산 증액 확정(12.9)
부산시의 내년도 예산이 결정됨에 따라 지난 8년간 제자리였던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의 예산이 20억 증액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산문화재단과 리유 펍블릭의 인적 교류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진주 독립서점 ‘보틀북스’ 문체부 장관 표창 (11.11)
경남문화예술진흥원(원장 김영덕, 이하 진흥원)은 <2022 지역서점 및 출판문화 활성화 사업> 선정 단체인 보틀북스(대표 채도운)가 11월 11일 서점의 날을 맞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된 제6회 서점의 날 기념식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경남도, 지역음악축제 ‘뮤지시스 페스티벌’ 개최(11.23)
경상남도과 진흥원은 경남 뮤지션들의 음악 축제인 ‘2022 경남음악창작소 뮤지시스 페스티벌’을 11월 26일 경남도민의집·옛 도지사관사에서 개최했다.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정책세미나 ‘문화예술 창업, 성공 가능성을 묻다’(12.9)
진흥원은 12월 13일 화요일 오후 2시 경남 콘텐츠코리아랩 중앙홀에서 ‘문화예술 창업, 성공 가능성을 묻다’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문화재단

- 기후위기 대응방안 모색 - 서울문화예술포럼 개최(11.17)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이하 재단)은 “기후위기와 문화예술”을 주제로 제2회 서울 문화예술포럼을 11월 29일(화) 오후 3시에 청년예술청에서 개최했다.

- 대학로에서 새로 시작하는 문화예술 약자와의 동행(11.21)

재단은 대학로에서 새로 시작하는 서울장애 예술창작센터(구.잠실창작스튜디오)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기념식 <갈이 잇는 길>을 11월 22일(화) 개최하고, 관련 전시를 12월 4일(일)까지 진행했다.

- 서울문화재단, ‘원로예술지원’신설, 5일 공모 접수 개시(12.5)

재단은 12월 5일(월)부터 22일(목)까지 만60세 이상 원로예술인의 지속가능한 예술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2023 원로예술지원’ 공모를 실시한다.

인천문화재단

-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역문화예술 자원조사 진행(11.3)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구, 이하 재단)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인천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는 단체 및 예술교육자 정보를 수집한다. 수집한 정보는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하고자 하는 담당자 또는 기획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 시민참여형 예술프로그램 10년의 발자취를 조명하는 아카이브전시 <10년의 기록, 굿바이 인천왈츠> 개최(11.25)

재단은 인천왈츠 1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자발적인 시민문화활동의 성과를 공유하는 아카이브전시 <10년의 기록, 굿바이 인천왈츠>를 12월 2일(금)부터 12월 10일(토)까지 인천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에서 개최했다.

- 인천문화재단, 창립 18주년 기념식 및 CI 개편 선포식 진행(12.8)

재단은 12월 8일 11시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장을 비롯한 인천 문화예술계의 주요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하버파크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창립 18주년 기념식 및 CI 개편 선포식을 열었다.

전남문화재단

- **전남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작은 학교 살리기 큰 역할'(11.21)**

전남문화재단(대표 김선출)이 올해 처음 실시한 '농산어촌 학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폐교위기에 몰린 도내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에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X전주 교류전 <이음과 닿음> 개최(12.5)**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은 전주 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과 함께 "제주X전주 교류전 <이음과 닿음>"을 12월 21일까지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에서 진행한다.

- **2022 제주문화예술교육 성과공유팝업 운영(12.11)**

재단은 12월 11일, 일상 속 예술교육의 가치를 확산해나가기 위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제주문화예술교육 성과공유 팝업>을 개최한다.

금정문화재단

- **부산 금정인 삶 담다...서동예술창작공간 협업사진전(11.18)**

부산 금정문화재단(이사장 김재운)은 11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서동예술창작공간 1층 작은갤러리에서 시각예술가 협업사진전 '금정인'을 무료로 개최했다.

- **금정문화재단, 서동예술창작공간 '서동 미로 시장 문화 장날' 개최(12.1)**

재단은 12월 3일(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동예술창작공간에서 2022 문화가 있는 날 <금정예술마실 문화로 막 끌리네> 5회차 행사 '서동미로시장 문화장날'을 개최했다.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발행일 2022. 12. 16. 발행인 이미연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84-1(감만동) TEL051-745-7205~8
www.bscf.or.kr 편집위원 김경화 서승우 송교성 이지훈 편집기획 조정윤 김수정 디자인 제작 스토리진
필진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